

향토성북 제1호

성북의 문화재

성북문화원

성북의 문화재

향토성북 제1호



성북문화원

향토 성북 · 제1호

성 북 의 문 화 재



성 북 문화원

성북의 문화재

향토 성북 제1호

성북의 문화재

발행일 : 1997. 12. 30

발행처 : 성북문화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번지

☎ 765-1611 · F 765-1619

집필자 : 박경룡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연구간사)

편집 · 인쇄 : 경인문화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94-15

☎ 718-4831

표지사진 : 國寶 第74號 청자압형수적

성북문화원

성 북 의 문 화 와 전 통

우리 선조들의 혼과 열이 깃들여 있는 문화재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에 배어있는 선조의 숨결이 이어지고 문화적 업적이 퇴적되어 오늘을 있게 한다고 할 것입니다.

옛부터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쳐흐르는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성북구에는 조상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문화재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성북구로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소중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북구에는 국보급 문화재와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간송미술관을 비롯해서 고대 박물관, 성신여대 박물관 등이 있으며, 서울 성곽,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심우장, 정릉, 의릉 등의 사적과 수많은 보물급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내 고장에 대한 관심과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높아가는데 이를 충족시켜 줄만 한 책자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성북문화원에서는 우리 고장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성북문화의 뿌리를 되찾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성북의 문화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북의 문화재』는 기존의 다른 자료집이나 안내 책자의 틀을 벗어나 전체



구두회 / 성북문화원장

문화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총망라하고, 어려운 한자로 표현하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편집되어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북의 문화재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다른 자료집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수록 내 고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 측면에서 내 고장을 바로 알리기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북의 문화재』가 청소년들의 교육에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라며, 또한 주민들의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성북구의 문화와 전통의 우수성을 알리는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성북의 문화재』 발간을 계기로 우리 성북문화원은 더욱 더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힘 쓸 것이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간을 확보하여 질 높은 문화를 소개하고 또한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북의 문화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서깊고 전통있는 성북구

향토문화의 결정체인 『성북의 문화재』 발간을 50만 구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진산인 북한산 아래에 자리한 우리 구는 일찍이 하북위례성의 고지(故址)로 알려져 있고, 고려시대에는 도읍의 후보지로 거론되기까지 했으며, 조선시대에는 동소문 밖 교통 및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현재는 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의 종합대학교와 간송미술관, 한국가구박물관, 도자기박물관 등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시는 교육과 문화, 전통이 잘 어우러진 서울 동북구의 쾌적한 도시입니다.

또한 서울성곽, 북한산성 등과 같은 많은 유적지와 훈민정음, 동국정운, 훈천시계 동궐도, 대동여지도와 같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지정문화재만 총 50개로 국보 16점, 보물 22점, 사적 7점, 중요무형문화재 5점, 중요민속자료 2점 등 예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선조들이 남긴 빛나는 문화유산이 우리구 전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진영호 / 성북구청장

이와 같이 유서깊고, 전통있는 성북에 소재한 다양한 문화재와 유적 등에 배어있는 선현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깨우치고 다듬어서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후손의 책무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때 성북문화원에서 우리구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곁들여 발간한 『성북의 문화재』 향토 성북 제1호는, 구민은 물론 우리 구의 문화재를 아끼는 많은 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성북문화원이 제2, 제3의 향토 성북 발간은 물론 우리구 향토문화 발전의 중심체적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며, 『성북의 문화재』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례

국가지정 문화재

■ 국 보	15
청자기린뉴개향로 · 17 / 청자상감류죽연로원앙문정병 · 18 / 청자상감운학문매병 · 19	
훈민정음 · 21 / 동국정운 · 22 / 금동계미명삼존불 · 24 / 금동삼존불감 · 26	
청자압형수적 · 28 / 해원풍속도 · 29 / 동래선생교정복사상절 · 31	
분청사기인화문태호(내외호) · 32 / 혼천시계 · 34 / 동궐도 · 36 / 청자모자원형 연적 · 38	
용감수경 · 39 / 청화백자철사진사국화문병 · 41	
■ 보 물	43
백자박산향로 · 45 / 금보 · 46 / 금동여래입상 · 48 / 금동보살입상 · 50	
청자상감포도동자문매병 · 52 / 분청박지화문병 · 54 / 분청사기모란문반합 · 55	
청자상감모자합 · 56 / 홍무정운역훈 · 57 / 안중근의사 유묵 · 59 / 괴산 외사리 석조부도 · 60	
전 문경오충석탑 · 62 / 중용주자혹문 · 64 / 동인지문 사록 · 65	
경국사 목각탱 · 68 / 대동여지도 · 70 / 수선전도 목판 · 73 / 궤장 및 사례장연회도첩 · 74	
해산 유숙필 매화도 · 75 / 묘법연화경 권 제7 · 76	
■ 사 적	79
서울성곽 · 81 / 선잠단지 · 84 / 의릉 · 86 / 정릉 · 88	
고려대학교 본관 · 91 / 고려대학교 구도서관 · 93 / 성락원 · 94	
■ 중요 무형문화재	97
판소리 · 99 / 조각장 · 102 / 대금산조 · 104 / 소목장 · 106 / 태평무 · 108	
■ 중요 민속자료	111
사영 김병기 일가 옷 · 113 / 홍진중 의복 · 114	

서울시 지정 문화재

■ 서울시 유형 문화재	117
삼충석탑 · 119 / 석조 팔각부도 · 120 / 석조 미륵불입상 · 121 / 석조 비로좌나불좌상 · 123	
삼군부 총무당 · 124 / 홍천사 극락보전 · 126 / 홍천사 명부전 · 128 / 보타사 마애불 · 129	
보문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 130 / 보문사 대웅전 신중도 · 131 / 보문사 지장보살도 · 132	
■ 서울시 무형문화재	133
매듭장 · 135	
■ 서울시 기념물	137
만해 한용운 심우장 · 139	
■ 서울시 민속자료	141
장교동 한글설대감가 · 143 / 성북동 이재준가 · 145 / 성북동 이태현가 · 146	
장위동 김진홍가 · 147	
■ 비지정문화재 및 유적	149
동활인서 터 · 돈암장 · 151 / 성저5리 정계비 · 154 / 영성단 · 155 / 숙정문 · 156	
해화문 · 158 / 동망산신각 · 160 / 개운사 · 162 / 경국사 · 164 / 대원암 · 166	
돈암동 산신당 · 167 / 미타사 · 167 / 보문사 · 169 / 봉갑리 지석묘 · 171 / 봉곡사 · 172	
안암동 삼충석탑(예산군) · 173 / 안암동 삼충석탑(봉화군) · 174 / 안암동 오충석탑 · 175	
오봉리 지석묘 · 176 / 완왕묘지 · 177 / 인명원지 · 178 / 홍천사 · 178 / 청룡암 · 181	
내원사 · 182 / 적조암 · 183 / 정법사 · 184 / 석관동 도당 · 185	
□ 부 록	187
문화재 현황 · 189 / 성북구 문화재 안내도 · 197	

□ 문화재(文化財)란?

서울은 신석기시대 이래 5백년간 백제의 수도였으며, 고려 때는 남경(南京) 궁궐이 세워졌던 3경(京)의 하나였고, 조선왕조 건국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600년간 수도인 까닭에 문화유산이 집결된 민족문화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현재 경복궁 담에 새겨진 4군자 벽조화(壁彫畵)로부터 북한산성 주위에 흩어져 있는 석성(石城)의 조각돌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그간 많은 외침에 시달려 왔다. 최근에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전화(戰禍)를 크게 입은 데다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개발에 밀려 부지불식간에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훼손되거나 인멸(湮滅)된 사례가 없지 않았고, 문화재 또는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문화유산은 흔적이나 원형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조상들의 얼이 깃들인 이들 문화재는 단순한 문화재라기 보다 우리 서울을 지탱한 정신적인 지주(支柱)이므로 이의 보존관리에 알뜰한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은 미래의 서울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어 새 서울을 가꾸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하며 자연물에 대해서 인간의 기술적인 창조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상의 알뜰한 재보(財寶)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물질적 가치 외에 정신적인 가치를 존중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문화재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생활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각 민족의 문화적 창조물로서 그 민족의 전통으로 계승되어 오고, 또 이 전통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창조의 길을 발견하여 가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로 문화

재는 그 민족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 유형 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考古) 자료.
- 무형 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 기념물 - 패총, 고적, 성터, 궁터, 묘지, 유물 포함층 기타 사적지와 명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
-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이와 같이 문화재를 대별하여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높은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④민속자료의 4종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유형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특히 국보로, 중요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재를 구분해 보면 다음표와 같다.

유형별 지정권자별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지방유형 문화재		지방민속자료	지방기념물				지방유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문화재 자료							-

문화재는 자연물에 대조되는 것으로 국가로서 그 강토 내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 광물 등 학술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보존하는 것은 역시 세계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사적과 명승지는 그 나라가 내외에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한 나라의 문화재로서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세계의 각국은 국가적 시책으로 각자 자기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에 의한 문화적 소산은 우선 모두 문화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치 판단을 하여 중요한 것이 문화재가 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이외의 문화유산 중 귀중한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내리고 그 보존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 소재 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	국 가 지 정 문 화 재							시 지 정 문 화 재				
	소 계	국 보	보 물	사 적	천연 기념물	중요무형 문화재	중 요 민속자료	소 계	유 형 문화재	기념물	무 형 문화재	민속 자료
816	662	132	380	61	11	32	46	154	91	15	18	30

□ 성북구의 각종 문화재

서울 시내에 소재한 지정문화재는 상당히 많이 있으나 그 중 성북구에 소재한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국보 16, 보물 22, 사적 7점과 중요무형문화재 5점, 중요민속자료 2점 등 모두 52점이 있고, 서울시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11, 무형문화재 1점, 기념물 1점, 민속자료 4점 등 17점이 있어서 모두 69점이 된다. 이를 각각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국 보

유형문화재 중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보와 보물로 나뉘는데 보물 가운데서 가장 크거나 가장 오래되거나 그 유래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 즉 보물에 해당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 건지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크고, 제작연대가 가장 오래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 제작 의장이나 제작 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등이 대상이다. 국보 제1호는 승려문(납대문)이다.

- ▣ 청자기린뉴개향로
- ▣ 청자상감유죽연로원앙문정병
- ▣ 청자상감운학문매병
- ▣ 훈민정음 / ▣ 동국정운
- ▣ 금동계미명삼존불
- ▣ 금동삼존불감 / ▣ 청자압형수적
- ▣ 혜원풍속도 / ▣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 ▣ 분청사기인화문태호(내외호)
- ▣ 혼천시계 / ▣ 동궐도 / ▣ 청자모자원형 연적
- ▣ 용감수경 / ▣ 청화백자철사진사국화문병

□ 국보 제 65 호

청자기린뉴개향로

靑磁麒麟鈕蓋香爐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2. 12. 20.

12세기경의 고려 때의 청자향로이다.

이 청자향로는 높이 20cm로 턱이 넓고 3 개의 다리가 붙은 화사(火舍) 위에 뚜껑은 상상의 동물인 기린(麒麟)을 조각하여 놓았다. 화사를 받치는 다리는 짐승의 얼굴을 나타내었고, 노신(爐身)에는 구름의 무늬를 음각(陰刻)해 놓았다.

또한 턱받침 위에도 세 곳에 구름무늬가 배치되었고, 그 위에 뚜껑을 덮도록 되어있다. 뚜껑 부분은 기린이 대(臺) 위에 꿇어앉아 고개를 뒤로 하고 돌아다보는 모습인데, 대좌의 옆면에는 뇌문(雷文)과 영지운문(靈芝雲文)이 돌아가며 음각되어 있다.

기린의 머리에는 원래 뿔이 돌아 있었으나 부러져 있는 상태이고, 기린 목뒤의 갈기와 꼬리털 등은 곱슬곱슬하게 표현하였다. 기린의 눈은 철사(鐵砂)로 검게 점을 찍었다.

유색은 맑고 은은한 비취색을 띠며 약간의 빙렬(氷裂)이 보이고, 구조상 화사에서 지펴진 향 연기가 벌린 기린의 입을 통하여 뿜어 나오도록 만들어졌다.



이 청자향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청자사자뉴개향로(靑磁獅子鈕蓋香爐 : 국보 제60호)와 거의 같은 양식의 기린향로이다. 이러한 상형향로의 파편들은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요지(窯址) 등에서 채집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2, 1991.

□ 국보 제 66 호

청자상감유죽연로원앙문정병

靑磁象嵌柳竹蓮蘆鴛鴦文淨瓶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96. 12. 20.

높이 37cm, 밑지름 8.9cm의 고려 전기 청자정병(靑磁淨瓶)이다.

정병(淨瓶)은 원래 정수(淨水)를 담은 여러 형태의 모든 물병을 일컫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형태의 병만을 정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에서 주로 사용된 정수병이 이러한 형태를 갖추었던 것 같다. 정병은 원래 중국을 통하여 전해진 서래양식(西來樣式)이었으나 고려 때 와서 가장 세련을 보여, 청자는 물론 청동기로 제작된 많은 가작들이 전해오고 있다.

고려 때에는 귀인(貴人) 등이 이 정병을 사용하며 물을 담았다는 기록이 있다. 불교에서는 비구(比丘)가 지녀야 하는 18물 중에서 정



병을 손꼽고 있다. 해인사의 보물대장에 정병에 관한 설명이 있고, 실제로 은입사(銀入絲)된 아름다운 정병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정병은 고려시대부터 불사(佛事)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있는 이 정병은 목과 어깨의 선이 부드럽고 병입의 뚜껑은 결실된 상태이나 세련된 형태를 보이고, 문양(文樣)은 모두 백상감 기법을 사용하고 평화로운 연못가의 정경을 나타내었다. 이 정병은 청자상감 기법과 청동기의 은입사 기법의 관련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특히 단색으로 이루어진 상감의장은 청자상감 초기 특징의 하나로서 유태(釉胎)가 정선되고 유병렬이 거의 없는 점이 특색인데, 이 정병도 그러한 특징을 갖춘 초기 청자상감의 하나이다.

담녹회청색의 맑고 고른 유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굽 밑에는 규사(珪砂)를 받쳐 번조하였다. 전라남도 강진 요지(窯址)에서 이와 비슷한 파편이 수집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2, 1991.

□ 국보 제 68 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磁象嵌雲鶴文梅瓶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2. 12. 20.

12세기경 고려시대의 청자매병(靑磁梅瓶)이다.

높이 42.1cm, 입지름 6.2cm, 배지름 24.5cm, 밑지름 17cm의 이 청자매병은 고려 도자기의 우수함과 고려인의 창의력 넘치는 재기가 엿보인다. 아가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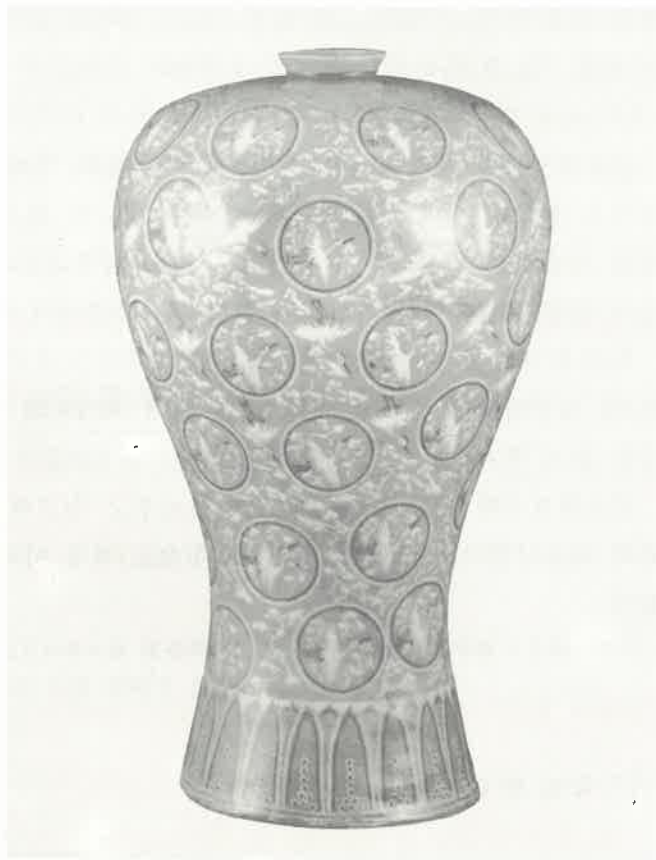
작고 낮게 밖으로 벌어져 있고, 어깨는 넓고 당당하게 발달되었으며 아래쪽으로 내려 가면서 미끈하게 줄어들었다가 바닥에 이르면 다시 밖으로 벌어져 안정감이 있다.

아가리 바로 아래에 두 겹의 원을 두르고 거기에 잇대어 여의두문을 그렸으며, 몸체 전면에는 운학문(雲鶴紋)을 새겨 넣었다. 운학문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어깨에서 굽까지 몸체 위에 6단으로 어긋나게 배치한 두 겹의 흑백상감한 원 안에 넣은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바깥쪽 빈 공간에 메워 넣은 경우가 있다.

원 안의 학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모습이고, 원 바깥의 학은 아래쪽을 향하여 내려가는 모습이다. 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공예 의장화된 구름 무늬로 장식하였다.

학의 진행하는 방향, 즉 시선을 아래위로 각각 다르게 표현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착상이다. 도자기의 표면이라는 일정한 제약을 넘어 사방으로 공간을 확산시켜 줌으로써 동감(動感)과 아울러 짜여진 구획에서부터의 자유로움을 추구한 듯하다. 이 같은 표현상의 변화추구와 함께 문양 처리의 능숙함 등에서 고려 청자매병 중에서 전형이라 할 만하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2, 1991.



□ 국보 제 70 호

훈민정음

訓民正音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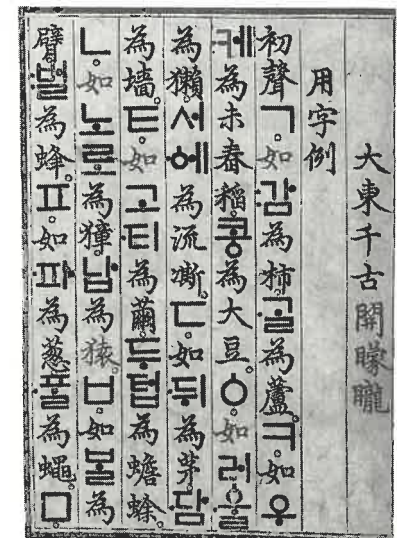
지정연월일 : 1962. 12. 20.

세종 28년(1446)에 정인지 등이 세종의 명으로 훈민정음을 설명한 한문 해설서이다. 훈민정음 해례(解例)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부른다.

이 내용은 서문과 새 글자의 음가(音價) 및 운용법을 밝힌 예의편(例義篇)이 본문처럼 되어있고, 이를 해설한 해례편이 수록되어 있다.

33장 1책으로 된 이 목판본은 국내의 유일 본으로 1940년경 경상북도 안동 어느 고옥에서 발견되었다. 이 해설서는 발견 당시에 완전한 것은 아니어서 처음 두 장이 빠져 있던 것을 나중에 붓글씨로 적어 넣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은 세종 어제(御製) 서문과 예의 편으로 되어 있는데 서문에서는 글자 표기를 할 수 없는 일반 백성들에게 표기 수단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세종이 친히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고 그 목적을 밝혀 놓았다. 이어서 중국 36 자모(字母) 표에 나오는 한자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외래어인 한자어의 전래자음(傳來字音)을 이용하여 새로 만든 글자의 소리값[音



價]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초성(初聲) 23 자모체계는 비록 전래자음을 가지고 음가를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중국 36 자모체계의 영향을 받은 체계였으며, 인위적인 개신(改新) 의도를 가지고 정리하였던 《동국정운》 23 자모체계와도 일치하여, 15세기 중세 국어의 초성체계와 부합되지 않는 면도 약간 있다.

해례편은 새로 만든 글자의 제자원리를 주로 밝히고, 그 음가·운용법 및 음운 체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자해에서는 《태극도》·《역학계몽》·《황극경세서》 등 송학(宋學)계통의 서적에서 이론을 받아들여 제자해의 첫머리부터 태극·음양·5행과 연관된 언어관을 제시하고, 훈민정음의 창제도 성음(聲音)에 따라 음양의 이치를 다한 것이라고 하였다.

정인지의 서문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 창제자, 훈민정음의 우수성, 편찬한 사람, 편찬한 연월일을 밝혀 놓았다.

세종 때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 것을 존중하고 밝혀 보려는 기운이 충만되어 있던 시대였으므로, 이러한 기운이 국어의 문자화(文字化)를 위한 훈민정음 창제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외국에서도 자국어의 위를 위한 새 글자를 제정한 일은 있지만 《훈민정음》과 같은 서적을 펴낸 일은 없다. 따라서 이 책은 문화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5, 1991.

□ 국보 제 71 호

동국정운

東國正韻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2. 12. 20.

조선 세종 때 신숙주·최항·박팽년 등이 왕명으로 1448년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운서(韻書:중국의 전통적인 발음표기 字典)이다.

6권 6책의 활자본인데 이곳 간송미술관 소장본은 권 1·권 6이고, 국보 제142호로 지정된 건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완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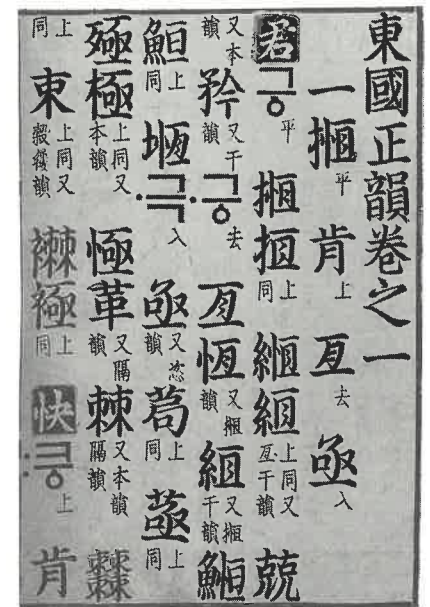
《동국정운》은 중국의 《홍무정운》에 대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당시 혼란상태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발간한 것이다. 세종은 1443년 12월에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원(元)나라의 옹충(熊忠)이 개찬한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를 훈민정음, 즉 한글로 번역하게 하였다. 《동국정운》의 내용으로 보아 《고금운회거요》의 번역본을 탈바꿈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금운회거요》의 반절음을 우리나라 음으로 번역하여 훈민정음으로 표음하고, 훈민정음의 초성(初聲) 차례에 따라 자류의 배열을 바꾸어 놓은 것이 《동국정운》이라는 것이다.

신숙주의 서문에 의하면 《동국정운》의 편찬은 세종이 지시한 4대 기본방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 속간(俗間)에 쓰이는 관습을 널리 채택할 것, 둘째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적(典籍)을 널리 상고할 것, 셋째 한 글자가 여러 개의 음으로 쓰일 때에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 넷째 옛날부터 전해 오는 협운(叶韻 : 어떤 음운의 글자가 때로는 다른 음운과 통용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려할 것 등이었다. 《동국정운》은 신숙주가 쓴 서문만이 전해 오다가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1권과 6권의 두 책이 발견되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1972년에 중종 때의 심언광의 수택본(手澤本)으로 대대로 전해오던 6권 6책의 전질이 강릉에서 발견되어 현재 건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편운체계는 91운 23자모로 되어 있다. 이 편운체계는 운서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는 동시에 당시의 국어 음운체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자음을 우리의 음으로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국어연구자료로서의 중요성도 《훈민정음》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한자음의 음운체계 연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의 제자(制字) 배경이나 음운체계, 그리고 각 자모의 음가(音價)연구에 있어서 기본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7, 1989.

□ 국보 제72호

금동계미명삼존불

金銅癸未銘三尊佛

시 대 : 삼국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2. 12. 20.

삼국시대 금동삼존불입상이다.

이 불상은 높이 17.5cm로 높다란 원통형 연화좌 위에 광배와 삼존불을 한 틀로 주조한 일광삼존식(一光三尊式)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커다란 무늬의 광배(光背)를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본존(本尊)불입상을 중앙에 배치하고, 그보다 더 작은 협시(脇侍)보살상을 좌우에 배열함으로써 몇 겹의 둥근 원광(圓光)과 소용돌이무늬의 배경 아래 지고한 부처의 위엄을 심분 과시하고 있다.

본존불은 소발(素髮)의 머리에 크고 높은 육계(肉髻), 타원형의 얼굴에 번져 있는 정신성이 강한 고졸한 미소, 약간 좁은 듯하지만 둥글고 강인하게 처리한

어깨와 가슴, 두꺼운 옷 속에 나타난 역강한 원통형의 체구, 좌우로 넓게 퍼진 새깃 같은 옷자락과 오른쪽으로 휘어져 내린 U자형의 옷주름 등 전형적인 고구려의 불상양식 또는 6세기 중엽경의 조각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좌우의 협시보살은 광배의 양쪽 끝에 매달린 것처럼 서 있는데 세가닥으로 올라간 보관(寶冠), 본존불과 비슷한 얼굴형태, 원통형의 체구, X자형의 옷주름 등 6세기 불상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삼존불의 양식은 고구려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국보 제19호)과 매우 비슷하다. 즉 앞으로 약간 숙인 얼굴에 번지는 청순하고 고졸한 미소, 강인한 원통형의 체구, 큼직하고 활력에 찬 시무외인(施無畏印)·여원인(與願印)의 손모양,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물결치는 옷주름, 향로를 뒤집은 듯한 연화대좌, 소용돌이치는 불꽃무늬의 광배 등은 서로의 관련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520년경~530년경의 불상, 즉 정광삼년명(定光三年銘)금동불입상이나 정광육년명삼존불입상과 같은 이른바 남북절충식의 불상들과 비견되므로, 20~30년 뒤에 이런 양식이 고구려에 유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새로운 기법을 묘사하고 있고, 기교면에서도 펴 세련되었으므로, 다소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인 조각가가 정성들여 만든 뛰어난 금동불상이라 하겠다.

이 불상은 출토지가 분명하지 않고 제작연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우선은 고구려의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 양식에 중국의 남북절충식 양식을 가미한 고구려식 불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배 뒤에 새겨진 '계미(癸未)'라는 기년 명으로 보아 563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구려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과 경사년명불상(景四年銘佛像) 사이에 제작된 세련된 작품으로서, 6세기 중엽경의 조각양식을 대변해 주는 기념비적 작품으로 높이 평가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4, 1988.

□ 국보 제 73 호

금동삼존불감

金銅三尊佛龕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2. 12. 20.

고려시대의 불감(佛龕)이다.

높이 18cm의 불각(佛閣)형식을 취한 감(龕) 내부에 금동의 삼존불을 봉안한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의 목조건축양식과 조각수법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이다. 불감의 형식은 난간을 둘러 기단 위에 따로 불당의 모형을 만들어 얹은 것으로 불당의 네 귀퉁이에 배 홀림(엔타시스)기둥을 세우고 정면과 양측 면을 개방하여 안이 잘 보이도록 하였다. 기둥 사이에도 공간포(空間包)가 하나 놓여 있다. 지붕은 우진각형식으로 기왓골이 표현되었으며, 용마루 양쪽에는 치미(鷗尾)가 있고 네 귀마루에도 봉두(捧頭) 같은 장식이 있다.

불감 내의 삼존불은 본존불좌상을 두 협시보살입상이 시립(侍立)한 것으로 수법은 서로 같다. 본존은 높은 방형 대좌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하였는데, 대좌 밑에 따로 연꽃잎을 끼워 놓았다. 머리는 나발(螺髮)로 얼굴을 약간 숙였는데, 이목구비의 표현수법이 치졸하다.

손 모양은 오른손이 시무외인(施無畏印)을 취하고 왼손은 무릎 위에 대고 있



다. 광배는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으로 되었는데, 투각(透刻)의 불꽃무늬로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다. 좌우 보살상은 형식이나 표현수법에서 같다. 머리에 는 삼면보관(三面寶冠)을 썼으며 구슬장식이 선각으로 표시되었는데, 그 양쪽에서 늘어진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다. 천의(天衣)와 상의(裳衣)는 두꺼우며 옷주름이 투박하고 형식적으로 묘사되었다. 본존 쪽으로 향한 손은 두 보살 모두 시무외인을 취하였고 다른 손은 아래로 내려뜨리고 있다. 발은 매우 작으며 연화대좌(蓮花臺座) 위에 서 있는데, 광배는 본존과 같은 형식이다.

불감 자체는 아직도 도금 색이 찬란하며, 지붕에는 녹청계의 색채가 남아 있는 등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이 불감이 보여주는 불당의 형식은 매우 고식으로서, 특히 지붕 부분은 신라말엽 또는 고려 초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기단부의 단순하고 고졸한 형태, 단칸의 주심포(柱心包) 집 모양이면서 가운데 공간포 하나씩을 배열한 다포계(多包系) 구조, 배홀림기둥이 있는 우진각 지붕, 용마루 양끝에 있는 중국 5대·북송풍(北宋風)의 치미, 그리고 네 귀마루의 봉두형 장식 등이 고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불감에 비하여 삼존불의 조각수법은 매우 치졸하고 서툰 편이다. 불감과 불상의 양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체로 11~12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4, 1988.

청자압형수적

靑磁鴨形水滴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2. 12. 20.



벼루 물을 담는 오리 모양의 고려시대 청자 연적(硯滴)이다. 이 연적은 물 위에 뜬 오리가 꼬인 연꽃 대를 입에 물고 있으며, 이 연 줄기에 달린 연잎과 봉오리를 오리의 등위에 자연스럽게 붙였다. 오리의 등 중앙에 붙어 있는 연잎에는 안으로 뚫린 구멍이 있어서 이

곳으로 물을 넣게 되어 있고, 연꽃봉오리 모양의 작은 마개를 꺾어서 덮고 있다. 물을 따르는 구멍은 오리 주둥이의 오른쪽에 붙어 있으나 그 부분이 파손되어 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다.

오리는 거의 정확한 사실 기법으로 깃털까지 세밀하게 음각으로 표현되었으며, 연한 녹색의 맑은 유약(釉藥)이 전면에 고르게 칠해져 있다. 알맞은 크기와 세련된 조각기법, 비색(翡色)의 은은한 색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귀족사회에서 향유한 문방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유색(釉色)·태토(胎土)의 질과 세련된 상형기법으로 보아 12세기 전반기에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2, 1991.

혜원 풍속도

蕙園風俗圖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70. 12. 30.

조선 후기의 화가 혜원 신윤복(申潤福)의 대표적인 풍속화첩이다.

세로 28.2cm, 가로 35.2cm 종이 바탕에 담채로 그려져 있는 이 풍속도는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것을 1930년에 간송 전형필(全鎣弼)이 대판(大阪)의 고미술상에 서 구입해 와 새로 표구하였다. 화첩에는 <月夜密會> 등 30점이 실려 있다.

대부분 기생과 한량을 중심으로 한 남녀간의 행락이나 정념(情念) 또는 양반 사회의 풍류를 소재로 그렸다. 공금횡령 등의 방법으로 치부하였던 경아전(京衙前)들에 의하여 조성되었던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의 서울 시정(市井)의 유흥적·향락적 분위기를 질게 반영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남녀 모두 대체로 가름한 얼굴에 눈초리가 치켜 올라간 선정적인 모습에 맵시와 멋이 넘치는 자태로 그려져 있어 도시적인 세련미와 함께 낭만적이고, 색정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각 인물들의 몸동작과 표정을 비롯한 각종 배경들을 뛰어난 소묘력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냈으며, 특히 가늘고 유연한 필선과 한복의 아름다운 색감 등을 최대한으로 살린 색채의 효과적인 사용 등을 통하여 당시의 풍속상과 풍류생활의 멋과 운치를 실감나게 전해 주고 있다.

18세기 후반 김홍도(金弘道) 풍속화의 성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소재의 선정이나 구성법, 인물들의 표현기법 등 전반에 걸쳐 신윤복의 독보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화풍은 조선 말기 유운홍(劉運弘)·유숙(劉淑) 등을 거쳐 1930년대 이용우(李用雨)의 인물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남녀간의春意(春意)나 색태(色態)를 자유롭게 부각시키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경향은 조선후기 풍속화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당시의 시대조류와 사회적 분위기를 짚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4, 1991.



□ 국보 제 149 호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東萊先生校正北史祥節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73.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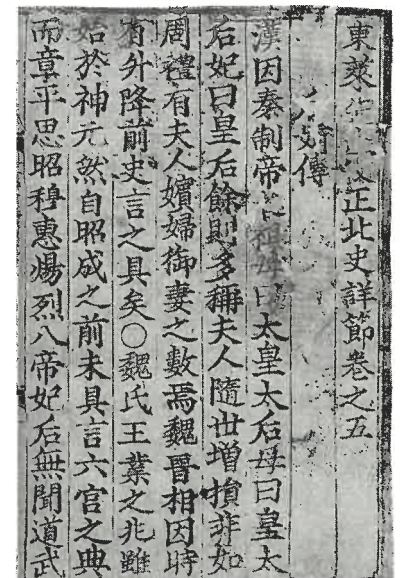
중국 송나라 여조겸(呂祖謙)의 교편(校編)으로 조선 초 태종 때 만들어진 활자인 계미자(癸未字)로 인쇄된 책이다.

국보로 지정된 것은 전성우(全晟雨) 소장본 권 4·5의 2책과 조병순(趙炳舜) 소장본 권 6의 1 책으로 모두 3 책이다. 계미자는 태종 3년(1403)에 조선 최초로 주조된 동활자인데 그 사용기간이 짧아 전해오는 책이 희귀하다.

간송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책의 권 4는 제2~제29장(제1장 결락), 권 5는 제1~제19장인데, 습기로 인하여 각 지엽이 퇴색되어 있으며, 권 6보다 훼손도 심하여 글자 획이 군데군데 보이지 않는다. 각 책장은 배접되고 책 앞뒤에 담황색후표지(淡黃色厚表紙)를 대어 담청사로 꿰맨 오침철장(五針綴裝)의 선장본(線裝本)이다.

그리고 조병순이 소장하고 있는 권 6은 32장(31장 결락)으로 역시 각 지엽의 대부분이 퇴색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도 있으나 간송미술관 소장본보다는 상태가 좋은 편이다. 닥종이로 배접하고 감색후표지를 사용하여 담황색나일론끈을 오침철장으로 고쳐 제본하였다.

국보로 지정된 《송조표전총류(宋朝表箋總類)》 ·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



古今通要》등의 계미자본보다 활인상태가 정교하고 선명하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7, 1989.

□ 국보 제 177 호

분청사기인화문태호(내외호)

粉靑沙器印花文胎壺(内外壺)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서울 성북구 안안동 5가 1-2

지정연월일 : 1974. 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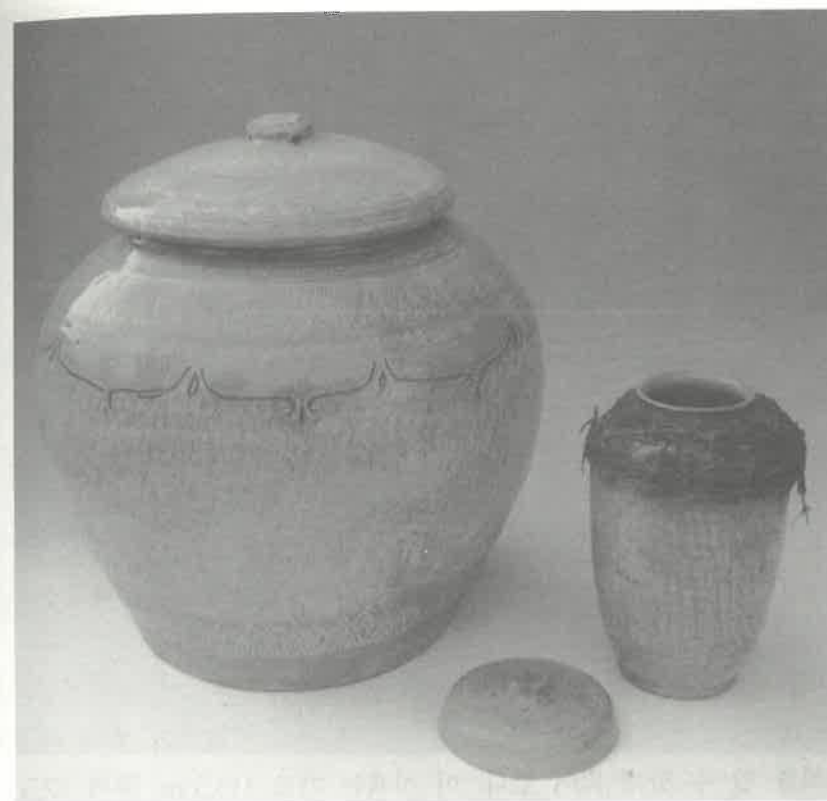
조선 전기 15세기의 내호(內壺)와 외호(外壺)로 된 분청사기 태항아리이다.

이 태호(胎壺)는 태(胎)를 담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내호(內壺)와 외호(外壺)로 되어 있다. 태지석(胎誌石)과 함께 나지막한 산봉우리에 안치되며 겉에 작은 태비(胎碑)가 세워진다. 이와 같이 태호는 지석과 태비를 동반하므로 도자사(陶器史)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태호(胎壺)는 1969년 9월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부근(아기능)에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내호는 짚망태기에 넣어져 외호에 담겨져 있었으며 고운 흙이 2/3쯤 차 있었고 태지석과 태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태호의 문양은 항아리 어깨에서부터 만자문대[卍字文帶]·중연판문양대(重蓮瓣文樣帶)를 상감으로 새겨넣고 그 다음 인화기법(印花技法)으로 국화문양대(菊花文樣帶)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몸체는 전면에 국화문을 가득 채우고, 위로는 흑백상감의 복사문(伏紗文) 안을 우점문(雨點文)으로 장식하였으며 밑에는 중연판문양대를 백상감하고 있다.

뚜껑의 모양은 꼭지를 중심으로 국화문양대·파도문양대·완자문양대가 차



레로 구연부(口緣部)까지 배치되어 있다.

인화문분청사기 중의 가장 세련된 이 태호는 유약은 연한청색을 띤 회백색의 분청유를 칠하였다.

1963년 광주직할시 동구 금곡동 묘지에서 이것과 비슷한 파편이 발굴, 조사된 바 있으므로 전라도 지방에서 구워져 왕실의 태호로 사용된 것 같다.

내호는 구부는 넓고 약간 벌어져 말린 구연에 통형(筒形)과 같은 몸체를 지닌 장신의 항아리로 외호에 비해 홀쭉하다. 뚜껑은 접시모양으로 중앙에 구멍이 없는 둥근꼭지가 붙어 있다. 굽다리는 안 바닥을 깎아 세우고 모래받침으로 받쳐 구워 냈다.

외호와 함께 내호에 있는 명주 조각과 망태기의 조각으로 태를 담는 습속을 알 수 있으며, 발견 당시 부식된 동전(상평통보) 1점이 들어 있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0, 1989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혼천시계

渾天時計

시 대 : 조선 현종 10년(1669)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서울 성북구 안안동 5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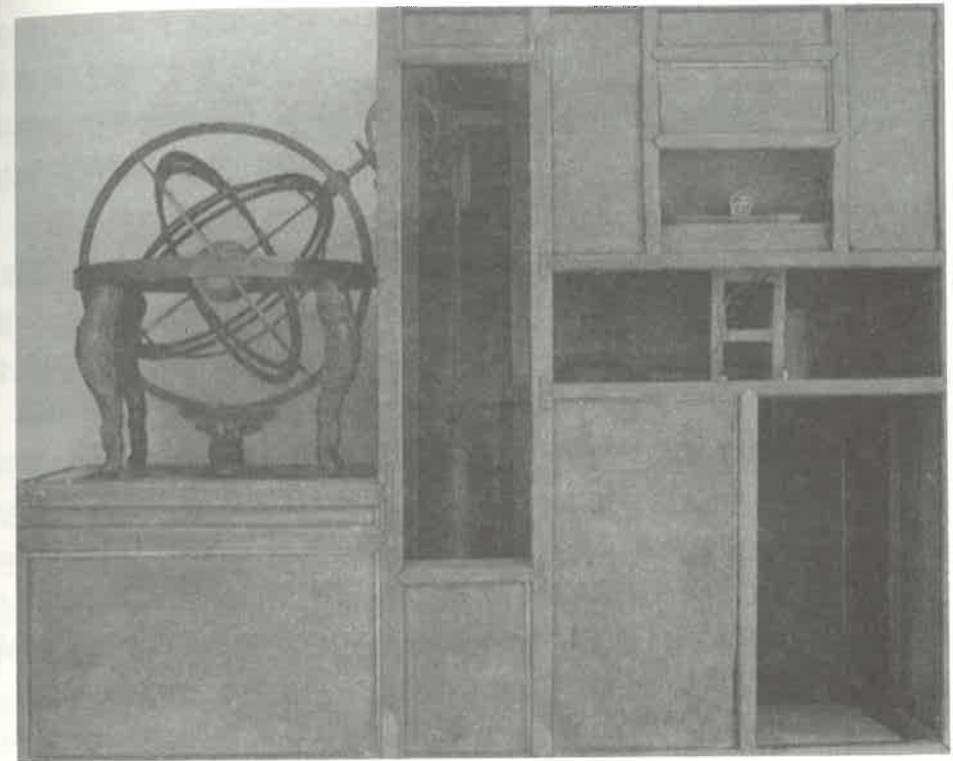
지정연월일 : 1985. 3. 3.

조선 중기 현종 10년(1669)에 천문학 교수 송이영(宋以穎)이 제작한 천문시계이다.

두 개의 추를 동력으로 하여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시계장치와 지구의(地球儀)가 설치된 혼천의(渾天儀)의 두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시간과 천체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시계는 가로 118.5cm, 두께 52.5cm, 높이 99cm의 나무상자 속에 오른 쪽 절반은 중력식 진자시계(振子時計)가 장치되어 있고, 왼 쪽에는 혼천의가 설치되어 있어서 종래의 물레바퀴를 돌려 동력으로 삼은 장치가 아니고, 서양식 자명종(自鳴鐘)의 원리를 이용한 천문시계이다.

혼천의의 지름은 약 40cm이며, 그 중심에 위치한 지구의 지름은 약 8.9cm이다. 시계장치는 두 개의 추(錘)의 강하운동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 하나는 시각을 알려주고 바퀴 테와 톱니바퀴들을 회전시키는데, 이것들은 탈진기(脫進機)가 연결된 진자에 의하여 속도를 조절하게 하였다. 그리고 바퀴 테가 수직축 주위를 수평면 내에서 회전함으로써 바퀴 테에 붙어 있는 12시패(時牌)가 시계의 창문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다른 하나의 추는 종 치는 장치를 위하여 만든 것으로 여러 개의 쇠공[金鈴]이 홈통 안을 굴러 내려감으로써 종치는 망치가 걸리면서 종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작동은 회전 바퀴 살에 붙은 주걱들에 의하여 쇠공들이 들어올려지게 됨으로써 반복하게 된다. 시계장치의 톱니바퀴들은 모두 낫쇠로 정교하게 깎았는데 주물로 부어 내서 물레와 줄칼을 써서 다듬었다. 물론 혼천의와



시계와의 사이에는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있는데 육합의(六合儀)·삼진의(三辰儀)·지구의(地球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혼천시계가 서양식 원리를 따랐다는 것은 동력을 물에서 추로 바꾸었다는 점과 탄성진자(彈性振子) 또는 추진자(錘振子)운동으로 주기를 정한 것이다. 관측을 주목적으로 삼았던 중국식 천문시계와 달리 실내에 두어서 정확한 시각을 측정하고 천체운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작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천문시계는 홍문관(弘文館)에 설치하여 시간 측정과 천문학 교습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혼천시계 중 남아 있는 유일한 유물이다. 이와 같은 서양식 자명종 원리를 이용한 추동식(錘動式) 시계장치가 남아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사상 특기할 만한 자료이고, 세계 시계 제작사상 훌륭한 기술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5, 1991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동 결 도

東 關 圖

시 대 : 조선 후기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서울 성북구 안안동 5가 1-2

지정연월일 : 1989. 8. 1.

창덕궁과 창경궁을 조감도(鳥瞰圖)식으로 그린 조선 후기의 궁궐 그림이다.

우리나라 궁궐도 중에서 규모, 내용의 복잡성, 작품의 수준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그림은 고려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세로 275cm, 가로 576cm의 이 그림은 16 첩 병풍으로 꾸며져 있으며, 작가는 미상이나 도화서(圖畫署)의 화원들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본궁인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동궐(東闕)이라고 부르는데, 제작연대는 궁궐 건물의 소실이나 재건연대 등으로 미루어 1826년~1831년 사이로 추정된다.

이 그림은 주변의 산과 언덕에 둘러싸인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 모습이 오른



쪽 위에서 비껴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포착되어 있다. 그리고 궁궐의 모습은 각 전각과 누정·교량·문·담은 물론 연못·괴석(怪石) 등의 조경 환경과 궁궐 외곽의 경관까지 실제 배치에 따라 계화적(界畵的)인 기법으로 선명하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궁궐 주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산과 언덕들은 남종화풍(南宗畵風)의 준법(皴法)으로 구사되어 있으나 건물표현과 원근처리 등에는 미약하게나마 서양화법의 영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 그림은 회화정보보다는 궁궐건물의 연구에 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이 궁궐의 평면도인 <궁궐도형>이나 《궁궐지》보다도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궁궐의 배치와 짜임새, 아름다움과 웅장함, 건축과 조경의 양태, 기타 시설물의 설치상태 등을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에 생생한 자료가 되어 준다. 또한 파괴되었거나 회진되어 없어진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19세기경의 원형대로 복원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해주는 등 건물배치나 양태 등의 연구와 고증에 사료적 가치가 더욱 크다.

가로 576cm, 세로 273cm의 큰 작품인 이 그림은 비단에 먹과 채색을 써서 산수를 배경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의 시설물들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화풍상의 특징을 보면 왼쪽에 창덕궁, 오른쪽에 창경궁을 배치하고, 그 주변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그렸는데 모든 것을 평행사선구도(平行斜線構圖)에 따라서 포치하였다. 가는 붓과 채색을 써서 매우 정교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였으며, 버드나무의 순이 돌아나고 봄꽃이 한창 피어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봄 경치를 배경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이름을 써 넣어 알아보기 쉽게 해 놓은 점도 괄목할 만 하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7, 1989 / 성북구청, 《성북구지》, 1993.

청자모자원형 연적

靑磁母子猿形 硯滴

시 대 : 고려시대(12세기 전반)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92. 4. 20.

고려시대의 청자로서는 유일한 원숭이 어미와 새끼 모양의 연적(硯滴)이다.

고려청자의 문양은 공예의장(工藝意匠)이면서 자연현상에서 소재를 찾아냈기 때문에 사실에 가깝고, 자연과 접하는 것 같다. 또한 문양 뿐만 아니라 형태 자체를 자연에서 찾아낸 것도 많다. 오리, 원앙, 공작 등의 각종 새라든지 사자, 원숭이, 개구리 등의 동물 및 각종 물고기가 있으며, 용, 봉황, 각종 과실 등이 청자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느 것이나 동물과 식물이 지니는 특징과 자연의 향기를 지니고 있으며 절묘하고, 때론 익살스럽게 나타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특징과 개성을 청자를 만든 이에 의해서 느끼게 된다.

이 원숭이 모양의 연적은 어미원숭이의 엉거주춤한 자세, 보채는 새끼의 모습을 통해서 원숭이 모자(母子)의 사랑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성긴 듯 섬세한 감정의 표현과 절묘한 듯 대범하고 아기자기한 감정이 보는 이의 마음을 혼연하고 때론 흥이나며 때론 사랑을 느끼게 한다. 이 원숭이 모자 연적은 보통 청자 연적이 아니고 고려인들의 사랑이며 익살이다.



원숭이 어미 머리 위에는 직경 1cm 정도의 물을 넣는 구멍이 나있고, 새끼의 머리 위에는 직경 0.3cm 크기의 물을 따르는 구멍이 각각 뚫려 있어서 연적임을 알 수 있다. 두 원숭이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사이를 파서 두드러지도록 표현하였으며, 어미원숭이의 눈·코와 새끼원숭이의 눈은 철사점(鐵砂點)을 찍어 표현하였다.

유약은 잘 녹아 투명하고 잔잔한 기포가 전면에 있어서 은은하며 빙렬(氷裂)은 없고, 표면 색조는 아름다운 비취색이다. 밑바닥의 유약은 닦아내었으며 양발과 엉덩이 세 곳에 내화토를 받쳐서 번조하였다.

고려청자연적 중 원숭이모양의 연적은 드물며 더욱이 모자형(母子形)은 유일한 것으로서 고려 귀족사회에 애완용으로 수입되었을 원숭이를 그 당시 사기장인(沙器匠人)이 훌륭한 솜씨로 표현한 명품 중의 하나로 청자압형연적(靑磁鴨形硯滴)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작품이다.

고려 인종 24년(1146)경의 제작된 인종의 장릉(長陵)에서 출토된 청자과형화병(靑瓷瓜形花瓶), 청자합(靑磁盒) 등과 유색(釉色)은 동일하여 12세기 전반경 강진 사당리요(沙堂里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자료 :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보고서》, 1995.

용감수경

龍龕水鏡

시 대 : 고려시대(11세기경)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서울 성북구 안안동 5가 1-2

지정연월일 : 1997. 1. 1.

서기 997년에 요(遼)나라의 승려 행균(行均)이 편찬한 한자 사전(字典)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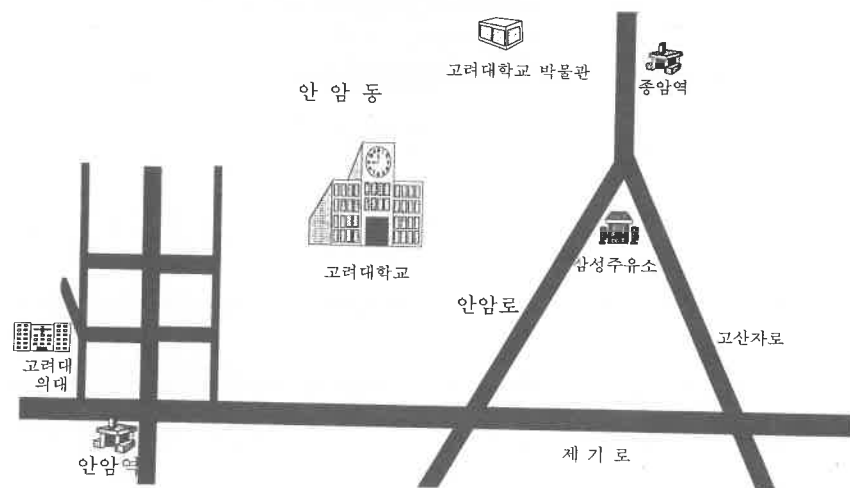
형으로 세계적으로 유일한 책이다.

목판본인 이 책은 11세기경에 복각한 것으로 원래 보물 제130로 지정되었던 것을 1997년 1월에 문화재 지정에 대한 재조정을 하면서 국보로 승격한 것이다. 이 책은 중국에서는 벌써 없어지고, 남송 때에 와서 《용감수감》이란 책 제목이 바뀌어 나왔으므로, 요나라 때의 원판본은 일찍부터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 유점사에서 발견된 《용감수경》권 1과 최남선의 장서 가운데에서 발견된 권 3 및 권 4가 있었는데, 이 책의 원본은 고려시대의 복각본(復刻本)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몽산화상법어약록》에 의하면 성종 3년(1472) 인수대비가 《용감수경》 50벌을 찍게 하였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그밖에 명종 18년(1563) 개판(開板)된 《용감수감》의 판목이 황해도 귀진사(歸眞寺)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판본은 8권으로 되어있는데 원판에는 훼손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 책을 복각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권 4의 끝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나주에서 권득령의 주관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몰년(生沒年)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연대를 밝힐 수는 없다. 다만 고려시대의 복각이 남송시대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과 요나라가 멸망한 것이 1125년 점으로 미루어 보아 11세기경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6, 1990.



□ 국보 제 294 호

청화백자철사진사국화문병

靑華白磁鐵砂辰砂菊花文瓶

시 대 : 18세기 초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97. 1. 1.

조선 중기에 제작된 청화·철사·진사를 사용한 높이 42.3cm, 입지름 4.1cm, 밑지름 13.3cm의 국화문병이다.

원래 보물 제241호로 지정되었던 이 국화문병은 1997년 1월에 문화재 지정에 대한 재조정 작업에 따라 국보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의 백자는 대체로 단순한 형태와 문양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의장면(意匠面)에서는 다채로운 색채의 사용을 절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양인각(陽印刻)으로 시문된 문양 위에 청화(靑華)·철사(鐵砂)·진사(辰砂)를 함께 곁들여 장식한 예는 조선 도자기에 있어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형태는 가늘고 긴목이 점차 넓어져서 어깨로 이어지며 몸체는 풍만하게 부풀었으며 약간 낮은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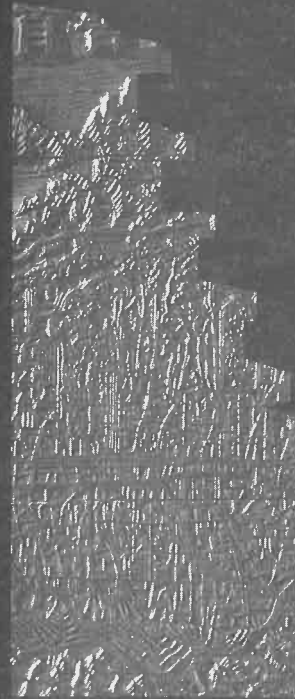


을 형성하였다. 굽은 선을 그은 듯이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구연은 그대로 끌어내어 날카로운 맛이 있다.

18세기 전반경의 백자병은 대체로 구연(口緣)의 끝이 둥글게 마무리한 것이 많은데 비해 이 병과 같은 구연부의 형태는 드물게 보이는 것이다. 병의 앞뒤 양면에는 국화와 난초가 회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벌과 나비들의 노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무늬는 돌을 무늬로 양인각한 뒤 난초는 청화, 국화는 진사, 국화 줄기와 잎은 철사, 벌과 나비는 철사, 또는 진사로 채색하였으며, 발색은 양호하다. 투명한 백자유가 약간 두껍게 시유(施釉)되어 있는데 유(釉)의 발색은 부드러우며 전면에 걸쳐 세밀한 망상(網狀)의 빙렬(氷裂)이 나타나 있다. 굽 밑에도 유약을 칠하고, 굽다리에는 내화토(耐火土)가 약간 묻어 있다. 이 병은 같은 종류의 조선 백자 중에서는 큰 편에 속하며 온전하게 보존된 전세품으로서 개성지방에서 온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유태의 질, 형태의 적절한 비례감, 세련된 문양표현 등으로 미루어 보아 18세기 전반경 경기도 광주 관요(官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2, 1991 / 성복구, 《성복구지》, 1993.



□ 보 물

국가에서 국보 다음으로 중요한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 자료·무구(武具) 등과 유형문화재 중에서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있고, 종류에 따라 금석학적·사료적·인쇄사적 가치 또는 제작이 우수하거나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流派)를 대표하는 것, 그리고 군사상 의의가 큰 것이 대상이다. 보물 제1호는 홍인지문(동대문)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유산은 아니라 해도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보물로 지정될 수 있다. 그 예로 손기정옹이 베를린 올림픽 우승 때 받았던 그리스의 고대 청동투구를 1987년에 보물 제 904호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 백자박산향로 / □ 금보 / □ 금동여래입상
- 금동보살입상 / □ 청자상감포도동자문매병
- 분청박지화문병 / □ 분청사기모란문반합
- 청자상감모자합 / □ 홍무정운역혼
- 안중근의사 유묵 / □ 괴산 외사리 석조부도
- 전 문경오충석탑 / □ 중흥주자혹문
- 동인지문 사록 / □ 경국사 목각탱
- 대동여지도 / □ 수선전도 목판
- 궤장 및 사궤장연회도첩
- 혜산 유숙필 매화도 / 묘법연화경 권 제7

백자박산향로

白磁博山香爐

시 대 : 12세기(추정)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3. 1. 21.

개성 부근의 고려시대 고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고려시대의 백자향로이다.

이 향로는 높이 8.5cm 지름 8.1cm로 몸체는 전체적으로 구형(球形)을 이루고 있다. 덮개 부분인 개부(蓋部)와 불을 담는 화사(火舍)로 분리 구성되어 있으며, 경쾌하게 외반(外反)된 다리 3개가 부착되어 화사를 받치고 있다. 중첩된 산악의 형상을 이룬 반구형(半球形) 뚜껑의 정상에는 다각형의 큰 공기 구멍인 기공(氣孔)이 있으며, 그 밑에 다시 돌아가면서 7개의 쌍엽형(雙葉形) 바람 구멍을 내어 이를 통하여 연기가 발산되도록 하였다.



유약(釉藥)은 청백색을 띠는 백자유가 두껍게 시유(施釉)되었고, 빙렬(氷裂)이 거의 없으며 투명하고 광택이 있는 깨끗한 유조(釉調)를 지니고 있다. 이 향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여 볼 때, 12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작한 나라와 가마터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형태는 중국 한(漢)나라 때의 박산향로를 단순화·양식화시킨 것으로서 서진(西晉) 때의 월주요청자향(越州窯青磁)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갖춘 예가 보이고 있는데, 월주요청자향

로의 경우에는 꼭대기에 새를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또한 이 향로와 같이 공 모양을 이룬 몸체에 뚜껑의 윗면을 투각(透刻)하는 양식은 중국 송(宋)나라 때의 청백자향로 중에 더러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의 경우 12세기 중엽 경에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고려적으로 세련된 양질의 백자가 많이 생산되었으며, 양은 적지만 전라도 강진의 가마(窯)에서도 양질의 백자가 제작되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이 향로는 12세기 고려백자와 남송 초엽 경의 청백자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9, 1989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보물 제 283 호

금 보

琴 譜

시 대 : 조선시대(15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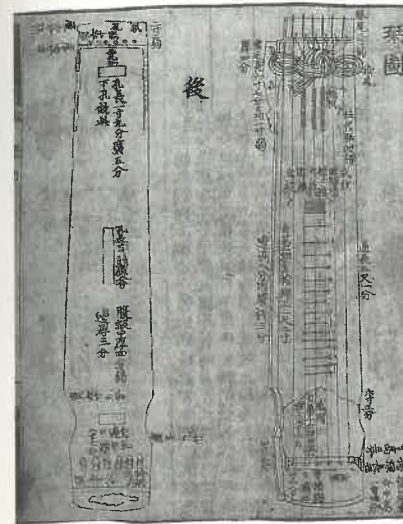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93. 1. 21.

임진왜란 이전인 선조 5년(1572)에 안상(安瑒)이 편찬한 거문고 악보이다. 《금합자보(琴合字譜)》 또는 《안상금보(安瑒琴譜)》로도 불리우는 이 악보는 1책 88장으로 표지는 '금보(琴譜)'로 되어 있는데 목판본으로 출간된 가장 오래된 거문고 악보이다.

편자의 서문에 의하면, 안상이 1561년 장악원의 첨정으로 일하게 된 뒤 악공을 시험하는 보책(譜冊)을 보니 예전의 합리적인 합자보를 버리고 상하괘의 차서(次序)만 있을 뿐 손가락 쓰는 법과 술대 쓰는 법이 없어 거문고를 처음 배우려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보충하여 완벽하게



기보(記譜)하기 위해 악사 홍선종(洪善終)에게 합자보를 개수하게 하고, 악공 허억봉(許億鳳)에게 적보(笛譜)를, 악공 이무금(李無金)에게 장구보를 만들게 하여 이 악보를 편찬하였다고 하였다.

거문고 악곡들은 합자보·오음약보(五音略譜)·육보(肉譜)의 세 가지 기보법으로 기보되었고, 적보는 오음약보로 기보하였으며, 장구 및 북의 악보는 그림으로 기보되어 총보 형식으로 기보되어 있으며, 노래의 가사는 거문고 합자보와 적보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악보는 1행 16정간(井間) 6대강(大綱)으로 되었는데 예외로 <여민락>과 <보허자>가 있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부분은 저자의 서문에 이어서 금도(琴圖)와 낙시조평조·우조평조·평조계면조·우조계면조·청풍채·최자조의 산형(散形) 및 집시도(執匙圖)·안현법(按絃法)·박보(拍譜)·장구보·고보(鼓譜)·안공법(按孔法)·금합자해(琴合字解)·조현법(調絃法 : 평조·평조계면조)의 그림과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부분은, <평조만대엽(平調鰻大葉)>·<정석가(鄭石歌)>·<한림별곡>·<감군은(感君恩)>·<평조북전(平調北殿)>·<우조북전(羽調北殿)>·<여민락(與民樂)>·<보허자(步虛子)>·<사모곡> 등 9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부분은 당비파도(唐琵琶圖)·평조산형·계면조산형·비파탄법·비파보합자해·지법(指法)·탄법(彈法)·조현법의 도설 및 <비파만대엽>의 악보로 구성되었다.

1945년 처음으로 햇빛을 보게 된 뒤 필사본으로 소수의 음악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오다가, 1974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연구회에 의하 《한국음악자료총서》제7집으로 영인, 출간됨으로써 음악학계에 널리 소개되었다. 이 거문고보는 임진왜란 이전 《시용향악보》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악보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당비파 음악의 옛모습을 악보로 전하는 유일의 악보라는 점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4, 1988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금동여래입상

金銅如來立像

시 대 : 7세기 말(추정)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3. 1. 21.

통일신라시대의 금동불상이다.

출토지는 알 수 없으나 높이 38.2cm로서 우리나라 금동불상으로는 비교적 큰 편이다. 일부 도금이 떨어진 부분도 있으나 육계(肉髻)부터 대좌(臺座)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불상은 팔각연화대좌(八角蓮花臺座) 위에 약간 배를 내밀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당당한 자세로 서있다.

머리는 나발(螺髮)인데 많이 마멸되었고, 그 위에 육계가 약간 뽕족하고 높게 솟아 있다. 얼굴은 통통한 편이나 이마가 유난히 좁다. 눈은 크고 옆으로 길게 찢어진 같은 모습이며, 코와 입은 작은 편이다.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를 띠었고, 얼굴 전체에서 매우 친근한 인상을 풍긴다. 목은 약간 굽고 짧은 편이어서 조금은 답답한 느낌을 주며, 삼도(三道)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상이 보여주는 특이한 양상은, 대의(大衣)를 오른쪽 어깨에서 약간 벗겨질 듯이 걸쳤고 주름을 허리 아래에서부터 표현하여 가슴과 배가 유난히 많이 드러나 보인다. 허리부분에 있는 띠 매듭 모양의 표시가 군의(裙衣)라기 보다는 대의 속에 대각선으로 입었던 내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밑에 U자형의 주름이 여러번 계단식으로 겹쳐져 늘어졌고, 그 밑에 군의 자락은 곧게 늘어진 여러 주름으로 드리워져 있는데, 발목이 많이 드러나 보일 만큼 위로 치켜올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옷의 연결부분이 명확하게 처리되지 못하여 형식이 모호하며, 주름도 대체로 굽고, 투박하여 예리한 맛이 덜하다.

한편, 불상의 자세는 몸의 전체를 정면에서 볼 때 얼굴부분, 목에서 허리, 그리고 허리 이하의 삼단으로 가볍게 꺾여 있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손의 모습[手印]은 일반적인 형식과 달리 오른손은 여원인(與願印)을 취하고, 왼손은 손가락을 앞쪽으로 내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있다. 대좌는 단판양련(單瓣仰蓮)과 복판복련(複瓣覆蓮)이 같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안상(眼象)이 각 면에 투각된 팔각의 받침이 있는데, 이러한 대좌형식은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것이다.

이 불상은 양식상으로 보아, 경주 구황동탑 출토 사리함에서 나온 두 불상과 비교될 수 있다. 중국 당(唐)나라 양식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통일신라 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황동탑 출토의 불상 가운데 706년의 좌상보다는 아직 풍만한 감이 덜한 불상의 모습으로 보아 그 보다는 시대적으로 약간 이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연화좌대 밑에 8각형 기단과 각면에 표현된 안상은 8세기에 들어와서야 유행하는 대좌형식으로 감산사석조아미타불입상의 대좌와 비교될 수 있는데, 혹시 금동불상의 경우 어떤 새로운 양식적 형태가 빨리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구황동탑 출토의 좌상에 비하여 두꺼운 옷, 굽고 약간 투박한 옷주름, 모호한 옷의 형식, 덜 유연한 자세,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전체 인상으로 보아 이 불상이 그 보다 조금 후기에 속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불상은 약 7세기말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4, 1988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금동보살입상

金銅菩薩立像

시 대 : 6세기 말 ~ 7세기 초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3. 1. 21.

경상남도 거창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이 불상은 광배(光背)는 결실되고 원형은 복판연화좌대 위에 똑바로 선 자세를 취하고 있다.

높이 18.8cm의 정면 위주의 이 불상은 뒷면이 납작한 편이며 머리 뒤에는 두광을 꽃았던 고리가 있다. 머리에는 인동문(忍冬紋)과 비슷한 장식이 있는 보관(寶冠)을 쓰고 있으며, 관 양끝에서 매어진 가는 술이 고사리모양으로 매듭을 지며 어깨 위로 내려지고 조그마한 원형의 긴 연주문(蓮珠文)이 관과 술을 장식하고 있다. 얼굴 표현은 매우 특징이 있어 가늘게 옆으로 찢어진 눈과 앞으로 내민 입 및 푹 튀어나온 광대뼈가 어울려서 한국적인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완만하게 처리된 둥근 어깨는 삼도(三道)의 표현이 없는 굵은 목과 연결



되어 있다. 목걸이는 두줄로 표현되어 밑으로 각이지게 드리워졌고, 가슴 위에 대각선은 등 뒤에도 보이고 있어, 얇은 내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천의(天衣)는 상의 양쪽에 대칭으로 뻗쳐서 4단의 지느러미처럼 표현되었는데 매우 인위적이고 도식화되어서 사실적인 감이 없다. 양팔 밑으로 내려뜨려진 천의는 무릎부분에서 엇갈려 교차되었고 상 뒤에서는 허리 밑에까지 늘어졌다. 또한, 양어깨에 걸쳐져서 내려오는 큼직한 구슬장식은 허리 밑부분의 둥근 원형장식을 중심으로 교차되었는데 상의 전체 비례로 보아 너무 밑으로 내려온 듯 싶다. 상의(裳衣)의 앞부분은 두 손에 가리워서 허리선이 잘 보이지 않으며, 양다리 위로 주름이 없이 밋밋하게 내려오고 몸 뒤의 허리부분에서는 두 줄의 선으로 뚜렷이 표시되어 있다.

원형의 큼직한 대좌(臺座)는 부식이 심하여 그 질감이 불신(佛身)과는 매우 다른 느낌을 주며 홀겁[單瓣]의 내림연꽃받침으로 되어 있다. 보주(寶珠)를 두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은 충청남도 서산의 마애삼존불상의 오른쪽, 협시(脇侍)보살, 부여 정림사지 출토 소조(塑造)보살상 조각을 비롯하여 몇몇의 금동보살상에서도 보이는데, 특히 옛 백제 땅에서 유행하였던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상과 비슷하게 봉주(捧珠)하고 있는 모습이나 천의가 양쪽으로 뻗친 모습은 일본의 호류사 몽전(夢殿)의 주존불인 구세관음과 일본의 초기 불상의 대표적인 사십팔체불(四十八體佛)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본 초기의 불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보살상은 부여의 군수리사지(軍守里寺地) 출토 금동보살입상이나 평양의 원오리사 터(元五里寺址)에서 나온 흙으로 빚은 이조(泥造) 보살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천의가 양쪽으로 뻗쳐있는 모습이나 조각의 표현이 간략화된 점 등에서 삼국시대 보살상의 초기양식을 이어주고 있으나 몸에 구슬양식이 보이고 있는 것이나, 보주를 두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은 보살양식의 발달에 있어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난 요소이다. 따라서 이 상은 양식상으로 미루어 보아 6세기말에서 7세기초에 조성되었다고 생각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4, 1988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청자상감포도동자문매병

靑磁象嵌葡萄童子文梅瓶

시 대 :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3. 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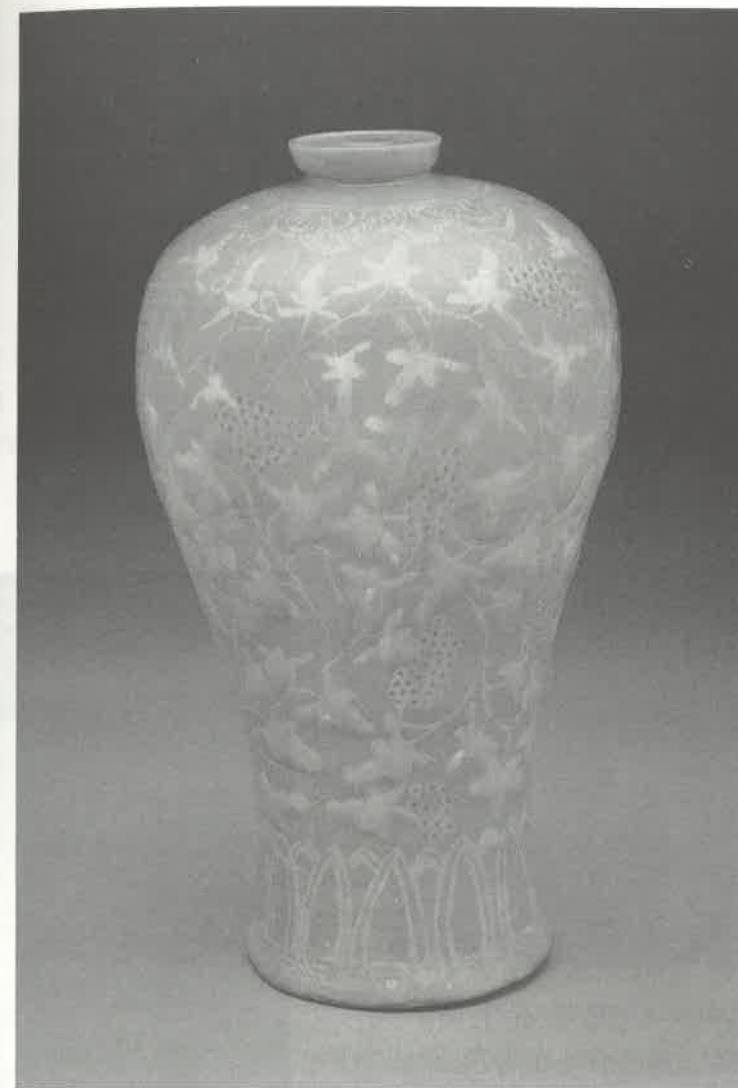
고려시대의 청자상감매병이다.

높이 41.5cm, 입지름 7.5cm, 밑지름 15.8cm의 이 매병은 중국에서 전래되어 온 것으로 고려 시대에 와서 세련을 보이며 매우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매병의 용도는 사온서(司醢署)·덕천(德泉)과 같은 관사명이 있는 14세기 청자매병의 예로 보아 술을 담는 주기(酒器)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의 경우도 문헌·회화·묘벽화 등 여러 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이 매병은 전성기의 청자 매병에 비하여 다리가 길어지고 광구형(廣口形) 구연부의 형태에 무딘 감이 있으나, 남아있는 완형의 청자상감 매병 중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큰 것이다. 문양은 병입 주위에 비교적 큰 여의두문대(如意頭文帶)를 상감하고, 동하부에는 뇌문대(雷文帶)와 중연판문대(重蓮瓣文帶)를 둘렀으며, 이들 종속문양을 제외한 넓은 몸체의 전면에 덩굴진 포도잎과 열매를 가득 시문(施紋)하였다.

이들 문양은 모두 백상감인데, 포도와 열매만은 동그란 문양 도장을 찍고, 백상감과 그 안에 검은 점을 하나씩 상감하여 포도알을 표현하였다. 포도덩굴 잎새의 백토상감 부분은 두껍게 두드러져 마치 백토화문(白堆花文)처럼 보이는 특이한 상감 효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동하부가 길어지고 어깨의 여의두문이 다소 커지며 그 주연이 접선으로 표현된 점등은 대체로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의 청자 상감 매병에서 보이는 양식적인 특징이 아닌가 한다.

정선되지 않은 태토의 질이나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굽다리 등을 보아



이 매병이 고려청자의 전성기에서 다소 벗어난 시기에 제작되었으리라는 추정 을 뒷받침해 준다. 옅은 녹색이 감도는 회청색의 유약이 약간 두껍게 시유(施釉)되었으며, 망상(網狀)의 빙렬(氷裂)이 있고, 유약이 충분히 용해되지 않아 투명도가 적으며 흘러내리거나 두껍게 물린 부분이 있는 등 유약의 분포가 고르지 않다. 굽 밑바닥에는 6개의 비집돌 받침을 고여 번조하였다. 이러한 유태와 문양을 지닌 파편은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요지에서 수집된 바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2, 1991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분청박지화문병

粉靑剝地花文瓶

시 대 : 조선초기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3. 1. 21.

조선시대 초기의 분청사기 병이다.

높이 20.4cm, 입지름 5.2cm, 밑지름 8cm의 이 병은 회색의 태토 위에 백토(白土)로 분장(粉粧)을 하여 무늬를 그리고, 그 이외의 배경을 긁어낸 뒤 이 부분에 다시 철채(鐵彩)를 입혀서 어두운 녹색의 배경과 흰 무늬와의 대조가 선명하게 잘 어울리고 있다. 무늬는 변형된 모란 무늬로 간주되며 격식에 매이지 않은 자유스럽고 활달한 감각을 나타내어 조선시대 화원(畵員)들이 재구성한 뛰어난 도안의 표현력을 엿볼 수 있다.

병의 목 주변에는 수직선으로 변형된 연판문양대(蓮瓣文樣帶)가 있고 병의 아래 부분에는 백토 분장이 시유되지 않고 태토가 그대로 보이고 있어 신선한 맛을 풍겨준다. 유약은 투명한 회청색이며 일부 연한 갈색을 띤 곳이 있다. 만듦새가 매끈하지 않아도 생김새와 도안 의장법에서 친근하고 구수한 멋을 나타내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0, 1989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분청사기모란문반합

粉靑沙器牡丹文飯盒

시 대 : 조선전기 15세기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3. 1. 21.

조선시대 전기의 분청사기 합(盒)이다.

높이 16cm 입지름 15.3cm 밑지름 7.8cm의 이 합은 회색 태토(胎土)와 백토(白土)로 면상감(面象嵌)을 한 뒤 연한 청색을 띤 회백색의 투명한 유약을 얇게 골고루 칠하였으며 광택이 있다. 무늬는 도식화되었으며, 주문양(主文樣)인 모란 무늬가 활달하게 전개되어 있는 사이로 큰 줄기를 울동감있게 두르고 있다.

합신(盒身)의 아가리[口緣部]에는 초화문양대(草花文樣帶)를 둘렀으며 그 아래 두줄의 선을 긋고 그 안에 한정시켜 모란 무늬를 상감하였다. 뚜껑 아가리 역시 초화문양대를 두고 위로 두줄의 선안에 모란을 배치한 뒤 다시 위로 가지를 뺀 모란 한송이를 윗면에 상감하고 있다. 뚜껑의 안쪽에는 무늬가 없다.

합으로서의 조선 초기의 풍만한 양감이 있는 형태를 잘 반영한 대표적인 기형이며 굽의 형태도 밑으로 벌어져 있어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 합과 비슷한 면상감 기법의 파편이 1963년에 광주직할시 동구 충효동 요지에서 발굴, 조사된 바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0, 1989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청자상감모자합

靑磁象嵌母子盒

시 대 : 고려시대 (12세기 경)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63. 1. 21.

고려시대(12세기경)의 청자 합(靑磁盒)이다.

금직한 원형의 모합 안에 국화형 자합 하나를 중심으로 4개의 송엽형 자합을 배치한 모자합이다. 모합높이는 8.4cm, 지름 18.8cm, 국형 자합(菊形子盒)은 높이 3.1cm, 지름 7.9cm, 송엽형 자합(松葉形子盒)은 높이 3.0cm, 길이 7.8cm이다.



고려시대 모자합 또는 합형의 그릇들이 다수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형은 금속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시대의 나전칠기(螺鈿漆器)에도 그 예가 보이고 있다. 당시 부인들의 화장품을 담는 용기로 제작,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모합 뚜껑의 윗면 중심에는 그 안에 국판(菊瓣)하나가 백상감된 사릉형문(四菱形文)을 두고 이를 원심으로 하여 국화·연화·모란당초문대를 흑백상감하였다.

이 뚜껑의 구연에는 백상감 뇌문대(雷文帶)를 둘렀고, 뚜껑을 엮으면 이와 맞대어지는 밑작의 외연에는 역시 역시 백상감된 당초문대를 포치하여 문양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자합은 뚜껑 윗면의 주연에 흑백 겹선으로 윤곽을 두고 이 안에 모란 절지(折枝)를 각기 하나씩 상감하였다.

정연한 구성 안에서 다양하고 변화 있는 문양표현이 모색되어 있으며, 부인 용기에 걸맞는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면모가 엿보인다. 유조(釉調)는 녹색을 띤 회청색으로 맑고 투명하며, 부분적으로 성긴 빙렬(氷裂)이 보인다. 모합 뚜껑의 안쪽과 밑작의 굽 밑에 규사(珪砂) 받침자국이 5개씩 있으며, 자합 굽에도 각기 세 곳에 규사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고분출토의 자합에 들어있던 청자상자 안에는 장방형의 동경(銅鏡)과 은제침통(銀製針筒)이 함께 들어있었다고 하므로 화장품 용기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2, 1991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홍무정운역훈

洪武正韻譯訓

시 대 : 세종 30년(1448년)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서울 성북구 안암동 1가 1번지

지정연월일 : 1965. 4. 1.

한자의 중국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편찬한 중국음에 대한 한글주음운서이다.

16권 8책, 낙질 1, 2권 1책, 현전 14권 7책으로 한글과 한자 큰글자는 목활자를 사용하고, 작은 글자는 갑인자(甲寅字)로 간행되었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이 남아있는 유일판본이다.

이 책은 그 서문 만이 신숙주(申叔舟)의 《보한재집 保閑齋集》 권 15와 《동문선》 등에 전하여 오다가 1959년에 《진단학보》 제20호에 발표된 이승녕(李崇寧)의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의 연구>에 의하여, 처음으로 그 전래가 세상



에 알려지게 되었다.

각권 표제(表題)·운목(韻目)·자모(字母)·역음(譯音)·자운(字韻) 등은 큰글자로 표시되어 있고, 반절(反切)·속음(俗音)·발음설명·석의(釋義) 등은 작은글자로 표시되어 있다. 편찬 목적은 첫째, 정확한 중국발음을 쉽게 습득하고, 둘째, 속음의 현실성을 불가부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표시하였으며, 셋째 《홍무정운》을 중국표준음으로 정하고자 한 것이며, 넷째 세종의 어문정책 전반에 관한 소망 성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여한 인물은 감장자(監掌者)로 수양대군(首陽大君)·계양군(桂陽君)이며, 편찬자는 신숙주·성삼문·조변안(曹變安)·김증(金曾)·손수산(孫壽山)이며, 수교자(讎校者)는 노삼(魯參)·권인(權引)·임원준(任元濬)이다. 간행한 시기는 신숙주의 서문에 '경태육년중춘기망(景泰六年仲春既望)'이라 하여 단종 3년(1455)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행 시기로 볼 수 있고, 서문 중간에 '범등십여고 신근반복 경팔재지구(凡騰十餘藁 辛勤反復 竟八載之久)'라 하였으므로 세종 30년(1448)경에 착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표준운서로서의 가치 보다는 오히려 자료로서의 큰 가치를 가진다. 한자음의 전통적인 표시방법은 반절이나 운도(韻圖) 등에 의지하는데, 이들은 한글 표기의 정확성에 미치지 못함으로 이 책의 한글 표기는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5, 1991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보물 제 569 호

안중근의사 유묵

安重根義士 遺墨

시 대 : 1910년 2월

소 유 자 : 강신종

소 재 지 : 성북구 정릉동 1-186

지정연월일 : 1972. 8. 16.

한말의 독립투사였던 안중근이 남긴 글씨이다.

안중근이 만주의 여순감옥(旅順監獄)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순국할 때까지 쓴 200여점의 글씨 가운데 20여점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일일불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의 작품과 개인 소장의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 그리고 숭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제일강산(第一江山)'을 들 수 있다.

이들 글씨에서 느껴지듯이 장렬한 최후를 앞둔 애국지사의 충혼과 강인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매우 힘있고 활달한 필치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그의 유묵에서는 서명(署名) 부분에 '대한국인 안중근(大韓國人 安重根)'이라 쓰고, 혈서로 인하여 한 손마디가 없는 장인(掌印)을 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독특한 서명 역시 그의 기개와 충정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4, 1990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괴산 외사리 석조부도

槐山 外沙里 石造浮屠

시 대 : 고려초기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74. 10. 2.

고려시대의 부도(浮屠)이다.

원래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삼성마을 절터 마을 산기슭에 있었던 이 부도는 높이가 3.5m로서 일제 때 일본인에 의해 해외로 반출되기 직전에 간송 전형필(全鑒弼)선생이 이를 매입, 수습하여 간송미술관에 옮겨 세운 것이다.

화강암 석재의 팔각원당형부도(八角圓堂形浮屠)로서 4장의 장방형 판석(板石)으로 짜여진 지대석 위에 하대석·중대석·상대석 그 위에 탑신(塔身)·옥개석(屋蓋石)·상륜(相輪)이 차례로 놓여있다. 하대는 상하 2석으로 8각인데, 하석 측면에는 1면 2구씩의 안상(眼象)을 새기고 그 안에 귀꽃모양의 조식(彫飾)이 있으며, 상석에는 복련(覆蓮)을 돌리고 8각마다 귀꽃을 새겼는데 그 수법이 주목된다. 상면에는 2단의 각형(角形) 받침과 1단의 몰딩(molding)이 있어 뿔을 삼고, 그 위에 높직한 또 하나의 뿔(높이 7cm)으로써 1석의 8각 중대석을 받치고 있다.

중대석 아래쪽에는 구름무늬를 새긴 한 단이 마련되었을 뿐 각면에는 아무 장식도 없이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더 넓은 배흘림의 형태로 나타남이 특이하다. 3단의 받침 위에 탑신이 있다. 상대석은 하부에 3단의 각형 받침이 있으며, 측면에는 앙련(仰蓮)을 돌렸는데 각 면 중앙에 1판을 조각하고 귀퉁이에



는 가늘고 길다란 연판(蓮瓣)을 한 쌍씩 배치했는데 그 수법이 매우 화려하며, 특히 중앙판 안에는 화판장식(花瓣裝飾)이 있어 주목된다.

상면에는 3단 뿔이 있어서 탑신을 받고 있는데 8각 탑신의 각 면은 다시 액(額 23.5×45cm)을 돌렸고, 남북 2면에는 문비(門扉)가 있으며, 중앙의 자물쇠가 돋을새김[陽刻]되어 있다. 탑신에도 중대석과 같이 배흘림을 나타내고 있다. 옥개석은 하면에 3단 받침이 있으며, 서까래의 구조는 없으나 추녀가 한층 높아졌고, 전각(轉角)의 반전(反轉)도 단아하여 각 귀퉁이마다 받쳐올린 귀꽃과 잘 어울려 웅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귀꽃의 모양과 조법은 흥법사진공대사탑(興法寺眞空大師塔)과 같은 양식이다. 낙수면에 기왓골은 없으나, 8각의 합각(合角)이 뚜렷하고 꼭대기 부분의 8면에 돌린 복련도 아름답고 화려하다.

맨 윗부분 상륜(相輪)은 현재 고복형(鼓腹形)의 복발(覆鉢)과 보주(寶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발의 상하는 평면원형이고 외주(外周)에 연판(蓮瓣)이 있으며, 중간 고부(鼓部)에는 두줄의 선을 돌리고 그 중간 네 군데에 네잎 화문을 배치하였다. 보주는 하부에 원대(높이 17cm)를 마련하였는데 상하에 연판과 중앙에 두줄의 선을 돌린 것이 복발과 흡사하다. 그 위 3면은 상단이 깎이고 손상되어 그 조식을 알 수 없으나, 각 면 2판씩의 연화문을 새긴 것은 확인하다.

이 부도는 비록 원래 위치는 아니더라도 원형이 잘 보전되었는데 한국전쟁 때 쓰러져 각 부재(部材)가 여기저기 흩어졌었다. 그러나 파손은 거의 없이 모든 부재가 온전하여 1963년 2월 3일 전형필의 대상일을 택하여 다시 세워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이 부도는 1964년에 복원된 것으로 본래의 완전한 모습에는 다소 미흡한 느낌이 들지만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나 안상(眼象) 및 연화문, 귀꽃의 조각 솜씨 그리고 탑진부와 옥개석 등의 수법과 각 부(部) 양식으로 보아 고려 중기 이전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석조 부도(浮屠)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3, 1988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전문경오층석탑

傳聞慶五層石塔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74. 10. 2.

고려시대의 석탑이다.

높이 3.92m의 이 탑은 원래 경상북도 문경군 문경면 관음리에 서 있던 것을 일제 때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것을 고 간송 전형필선생이 수습하여 이 곳에 세운 것이다.

중형의 규모로 정제(整齊)된 탑이며, 각 부(部)가 완전한 데 5층 옥개석만은 다른 탑의 것을 얹어 놓은 것 같다.

지대석(地臺石)은 2단인데 아래층 기단은 5매의 판석(板石), 상단은 4매의 판석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기단(基壇)은 2층이고, 하층기단 중석(中石) 하단에는 1단의 턱을 만들어 아마도 킴을 표시한 듯하며, 각 면에는 지선(地線)에서 안으로 솟아오르는 화형(花形)을 안상(眼象) 3구(區)씩 음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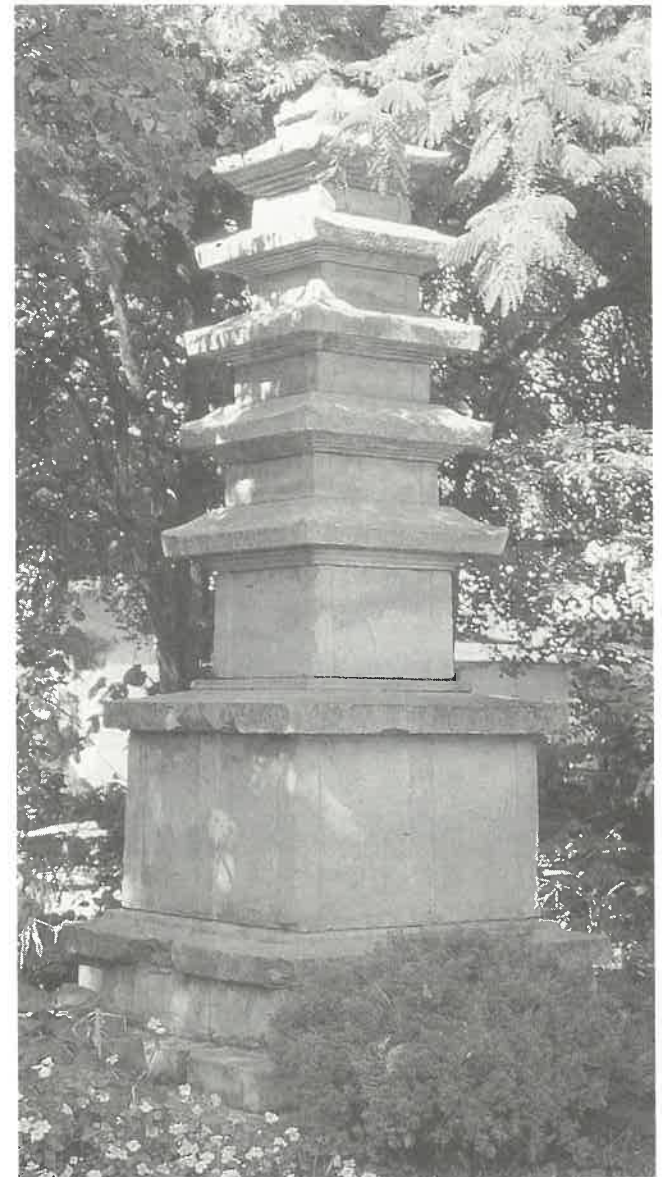
하층기단 갑석(甲石)은 2매의 판석으로 덮었고, 경사진 상면에는 우각(隅角)을 향하여 가늘게 우동형(隅棟形)이 조각되었으며, 중앙에는 3단의 킴이 있으나 매우 얇다. 상층기단 중석은 각 면 1매씩 4매의 판석을 세워서 구성하고, 각 면에는 우주(隅柱)와 탕주 1주씩을 모각(模刻)하였다. 상층기단 갑석은 1매의 판석이며, 밑에는 반원형의 낙수홈을 뚫고, 상면 중앙에는 탑신(塔身) 킴이 있으나 신라 석탑과는 양식상 차이가 있다.

탑신부는 옥신석(屋身石)과 옥개석(屋蓋石)이 각각 한 돌로 구성되어 있다. 옥신의 각 층에는 우주형이 모각되었고, 1층 옥신석 남면에는 작고 얇은 형식적인 자물쇠 모양을 모각하여 문비(門扉)를 나타내려는 의도를 보이거나 문비의

표시는 없어 약식이다. 옥개석 처마는 두꺼운 편이나 밑은 수평이고, 이면에는 낙수홈이 있으며, 받침은 4층까지 5단이고, 5층은 4단이다. 그러나 5층 옥개석은 4층까지의 옥개석에 비하여 처마가 얇고 밑이 반전(反轉)되는 등 양식상 큰 차이가 있다.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盤)과 복발(覆鉢)만 남았고 그 이상은 남아 있지 않다.

이 탑은 경상북도 문경군에서 옮겨왔다고 하나 정확한 원위치와 옮긴 연월일, 또는 그 경위 등은 전혀 알 수 없다. 드러나 상하의 비례가 매우 아름답고 작품(作風)이 착실하며, 하층기단 중석에 있는 안상의 수법은 고려시대 전반기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탑 앞에는 배례석(拜禮石)이 놓여져 있어서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9, 1990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중용주자혹문

中庸朱子或問

시 대 : 공민왕 20년(1371년)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서울 성북구 안암동 1가 1번지

지정연월일 : 1981. 3. 18.

이 책은 중국 송나라의 주희(朱熹)가 《중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설문 해답한 식으로 서술한 것인데 원나라로부터 수입되어 고려말기에 다시 인쇄한 것이다.

1371년(공민왕 20)에 원나라 예사의(倪士毅)가 집석(輯釋)하고, 주평중(朱平仲)이 교정한 《중용주자혹문》원판본을 번각(翻刻)하였다. 1책, 목판본 29.8cm×18.5cm 크기로 된 이 책의 권말에는 홍호(洪虎) 4년(1371) 7월, 진주목(晉州牧)에서 개판(開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홍호의 '호(虎)'는 제2대왕 혜종의 휘인 '무(武)'의 글자 사용을 피하여 글자의 뜻이 같지만 다른 글자로 바꾸어 쓴 것이다.

원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며, 새김이 비교적 정교하여 인쇄가 깨끗한 편이다. 현재 두 책이 전래되고 있는데, 하나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소장본으로 보물 제706호로 지정되었고, 다른 하나는 서울의 조병순(趙炳舜)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물 제707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지방관판본으로서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1, 1991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동인지문 사록

東人之文 四六

시 대 : 공민왕 10년(1361)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서울 성북구 안암동 1가 1번지

지정연월일 : 1981. 3. 18.

고려시대말 문신 최해(崔澐)가 신라와 고려 명현의 문집 중에서 사록병려문(四六駢儷文)만 모아서 간행한 시문선집(詩文選集)이다.

목판본 15권인 《동인지문사록》을 일설에는 《동인지문(東人之文)》이라고도 하나 그 관계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동인지문사록》의 완질본이 15권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동인지문사록》은 《동인지문》중에서 사록문(四六文·駢儷文)을 모아 증보한 별절본(別帙本)인 듯하다.

《동인지문》의 편찬연대와 수록 범위 및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로는, 최해의 문집인 《졸고천백(拙藁千百)》과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동인지문(東人之文序)> 및 이각(李穀)이 쓴 <최군묘지(崔君墓誌)> (가정집(稼亭集) 권 11) 등이 있다.

위 자료에 의하면 《동인지문》의 완성 시기는 충숙왕 복위 5년(1336)이며 전질 25권으로 신라 최치원(崔致遠)에서부터 충렬왕 때까지가 수록 범위로 여겨진다. <동인지문서>에 나타난 이 책의 편찬 동기는 최해가 충숙왕 8년(1321) 원나라 제과(制科)에 합격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시문에 대해서 물어왔으나 시



문선집이 없어 보여주지 못한 수치를 당하였으므로 이 때 우리나라 시문선집을 편찬할 뜻을 가졌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에 《동인지문사록》은 《동인지문》이 간행된 1336년에서 최해가 사망한 1340년 사이에 증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① 고려대학교 도서관, ② 국립중앙도서관, ③ 이겸로(李謙魯) 등 세 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각각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12권 4책이 보물 제710호(권1~6, 권10~15)로, 6권 2책은 보물 제711호(권1~6)로, 3권 1책은 보물 제714호(권7~9)로 각각 지정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3권 1책은 보물 제712호(권10~12)로, 이겸로 소장본 3권 1책은 보물 제 713호(권13~15)로 각각 지정되었다. 간행은 복주(福州)와 진주(晉州) 두 곳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시문의 선발 책자가 이루어진 것은 김태현(金台鉉)의 《동국문감》이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전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시문선집은 《동인지문사록》이라 하겠다.

동인지문사록 중의 권 1~6, 권 10~15의 12권 4책이 보물 제710호로 지정되었다.

크기는 34.5cm×21cm이며, 고려말 공민왕 4년(1355)에 새긴 목판에서 조선초기에 찍어낸 후쇄본(後刷本)으로 보인다.

이 책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계선(界線)이 없다. 권 제12와 권 제15 끝을 보면 지정(至正) 15년(1355)에 복주판에서 개판(開版)되었다는 간행 기록이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福州牧은 충렬왕 3년(1227)에 개칭되어 공민왕 10년(1361)에 안동대도호부로 다시 승격되기까지 사이에 사용된 안동부의 옛 명칭이다.

이 책의 개판(開版)은 당시 복주목사(福州牧使)인 최재(崔宰)가 주관하였고, 안렴부사 안송원(安宋源)·정광복(鄭光復)이 관여하였으며, 서사자(書寫者)는 진사 김성부(金成富)로 표시되어 있으나 권 6 이상은 서풍(書風)이 달라 같은 사람의 글씨로 볼 수 없다. 개판(開版) 시기는 권 12를 판각한 것이 공민왕 4년(1355) 정월이고, 권 15의 간기는 동년 8월로 되어 있다. 권 5의 마지막 한 장은 계선(界線)이 들어 있는 보판(補板)이다.

이 전래본은 글자에 완결(剋缺)이 있고 마손이 심하여 판독하기 어려운 것도 있음을 감안하면 판각이 이루어진 훨씬 뒤에 인출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간본에 고려 역대 왕의 휘(諱)인 건(建)·무(武)·부(賦)·흠(欽)·운(運)·요(堯) 등의 글자는 피하여 결획(缺劃) 또는 대자(代字)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고려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의 하나이다.

동인지문사록 중의 권 1~6, 6권 2책이 보물 제711호로 지정되었다.

크기는 32cm×19cm이며, 고려말 공민왕 4년(1355)에 새긴 목판에서 조선초기에 찍어낸 후쇄본(後刷本)으로 보인다.

앞의 보물 제710호와 같지만 그 보다는 책의 외형이 약간 작다. 권 1의 서문 및 목차, 제1~2장의 오른쪽 위 끝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동인지문사록 중의 권 7~9, 3권 1책이 보물 제714호로 지정되었다.

크기는 31.8cm×19.7cm이며, 고려말 공민왕 4년(1355)에 새긴 목판에서 조선초기에 찍어낸 후쇄본(後刷本)으로 보인다.

이 책의 내용은 보물 제710호와 같으나 다른 《동인지문》이 복주판(福州板)인데 비하여 이 책은 진주판(晉州板)으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복주판과는 판식(板式)이 다소 다르며, 권 7 마지막에 '진주목개판(晉州牧開板)'이라는 간행기록이 있어 간행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마지막 권에는 발문(跋文)이나 상세한 간행기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책 외에는 남아있지 않으므로 자세히 살필 수 없다. 다만 《동인지문》의 편자인 최해의 문집에는 「지정14년 갑오 8월 일 진주개판(至正十四年 甲午 八月 日 晉州開板)」이라 하였고, 읍호장(邑戶長)·각수(刻手) 및 관여한 사람의 관직과 이름이 써어져 있다.

또한 《줄고천백(拙藁千百)》과 이 책 《동인지문사록》의 판식(板式)이 같고, 또 이 책의 각수(刻手) 이름이 '정(正), 고(高) 라고 음각되어 있으니 《줄고천백(拙藁千百)》을 개판할 때 같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7, 1989 / 성복구, 《성복구지》, 1993.

경국사 목각탱

慶國寺 木刻幀

시 대 : 조선후기
소 유 자 : 경국사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58
지정연월일 : 1983. 5. 7.

경국사 극락전에 봉안된 조선시대의 목각탱화이다.

세로 177cm, 가로 176cm로서 너비 약 30cm 정도 되는 목판 5매를 잇대어,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모두 13구의 불·보살을 고부조(高浮彫)로 새겼다.

본존(本尊)은 커다란 광배(光背)를 배경으로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 하였고, 광배 위로 뻗은 광선 위에 모두 7구의 화불(化佛)이 조각되어 있는데, 아마도 과거7불(過去七佛)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사각형에 가까운 넓적한 얼굴에 가늘고 긴 눈, 넓적하고 평평한 코 등 양감이 결여된 본존의 얼굴 모습은 형식화가 정착된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얼굴에 비해 왜소하고 위축된 신체에는 통견(通肩)의 법의를 걸치고 있는데, 두꺼워서 신체의 윤각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옷자락이 상현좌(裳懸座)를 이루며 대좌 아래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광배는 주형(舟形)의 거신광(舉身光)으로, 윗부분에는 당초문(唐草紋)을 화려하게 조각하고, 아래는 중첩된 산 모습을 조각한 펴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광배 주위에는 도식화된 연꽃잎을 두르고, 주위에 화염문을 배열하였는데 역시 형식화되었다.

본존의 좌우에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협시하고, 그 주위를 6명의 보살과 아난(阿難)·가섭(迦葉)·증장천(增長天)·지국천(持國天) 등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위쪽의 좌우에는 연화좌 위에 북방비사문천왕(北方毘沙門天王)·서방광목천왕(西方廣目天王)이라고 쓴 표지판을 올려놓아 상(像)을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여덟보살을 배열한 아미타 팔대보살화의 구성을 이룬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천 용문사 목각탱과 동일한 형식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각수법이 둔중하고 양감이 결여되어 있어 형식화된 면이 많이 보이고 있으나, 고부조로 조각되어 원각상(圓刻像)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또 인물 구성에 있어서 횡적 혹은 종적으로 질서정연하고 단순하게 인물들을 배열한 다른 목각탱화들과 달리, 본존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둥글게 둘러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조각 수법이나 형식 등으로 보아 19세기말에 조성된 작품으로 생각되는데, 같은 극락전 안의 팔상도(八相圖) 및 감로왕도(甘露王圖)·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 등이 모두 1887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이 목각탱 또한 같은 해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몇 예에 불과한 조선 후기 목각 탱화의 하나로써, 당시의 아미타신앙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 1988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시 대 : 철종 12년(1861)

소 유 자 : 성신여자 대학교

소 재 지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지정연월일 : 1985. 8. 9.

철종 12년(1861)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 우리나라 전국지도이다.

목판본으로 축척은 약 1/16만 동서 남북 22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은 세로 30.2cm, 가로 20.1cm 크기의 8폭으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동여지도는 잘 보존되고 채색도 훌륭하다.

각 층을 책의 크기로 접은 판의 크기는 실제 거리가 동서 80리, 남북 120리가 되도록 만든 것이다. 이 22층을 순서대로 접합하면 세로 7m, 가로 3m에 달하는 커다란 한 장의 한국전도가 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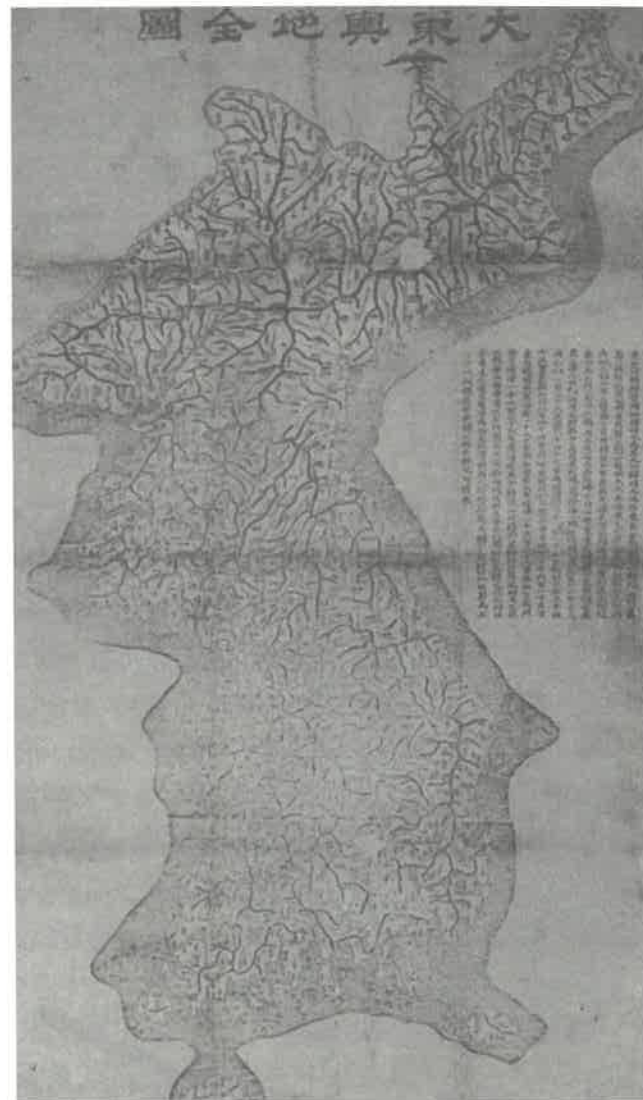
지도에 따로 축척 표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좌표에 방안(方眼)을 그리고 '매방 10리(每方十里)'라 표시하여 사실상 축척이 표시된 셈이며, 읍(邑)과 읍 사이의 도로에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여 거리의 축척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였다. 서문의 성격을 지닌 <지도유설>에는 지도제작의 경위와 지도의 중요성, 지도의 도법, 지도의 실용 가치에 대하여 서술하고, 끝으로 전국 해안선의 길이와 6대 간선도로의 총길이를 기록하였다.

제도(製圖)의 원리는 <지도유설>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지도와 지지(地誌)의 기원을 서술하고, 그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지도는 《청구도》에서와 같이 중국인 배수(裴秀)의 6개 원칙이 충실히 적용되었다. 그러나 제도 원리는 《청구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형식과 내용 등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용은 《청구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지형의 표시와 하천과 교통로 등이 자세하고 정밀하다. 특히, 산맥의 표시 방법은 이전의 지도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청구도》및 이전의 지도들은 산을 연속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산맥을 표현하였으나, 《대동여지도》에서는 산맥을 추상화하여 선과 섬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묘도(墓圖)에 널리 사용되었던 이 방법은 특히 선이 넓고 좁음과 형태로 산의 모양과 크기 및 분수령과 하천유역을 뚜렷히 파악할 수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 지형표시법은 약 45° 각도로 위에서 투영하여 얻을 수 있는 그림자의 모양으로 일종의 산악투영법(山岳投影法)이다. 《대동여지도》의 또다른 특징은 이전의 지도에서 즐겨 사용했던 설명식의 주기를 모두 없애고, 지도의 1층에 범례로서 지도표를 제시하여 지도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도식화하여 기호로 표시한 점이다.

또한 《청구도》에서는 지도의 여백을 이용하여 호구(戶口)와 전결(田結) 등을 기재하였으나 이 지도에서는 지지적(地誌的) 내용의 기재가 생략되어, 지금까지의 주기를 중시하던 지도의 전통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면모로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대동여지도》의 정확성을 현재의 지도와 비교하면, 서해안과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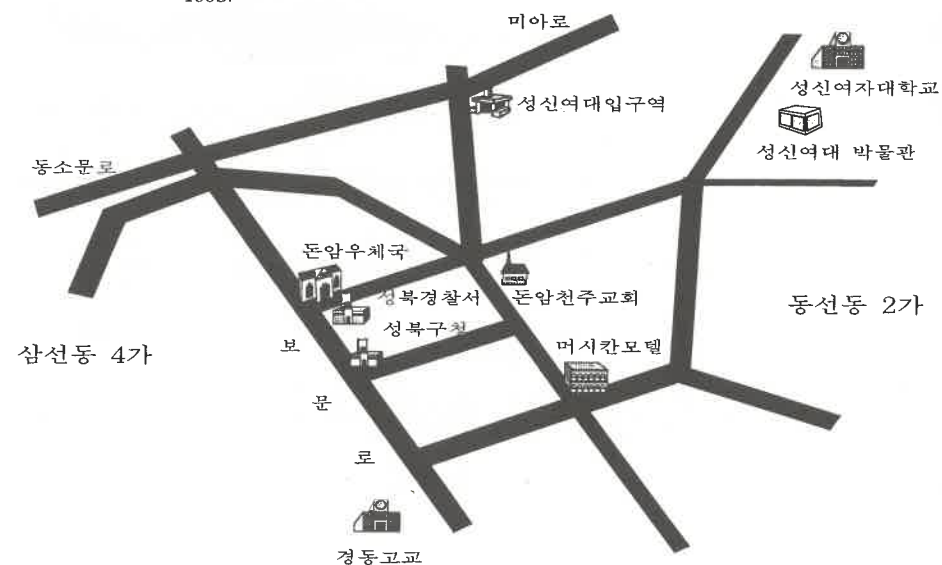
해안의 해안선은 별차이가 없다. 그러나 동북부 지방의 압록강 상류지방, 그리고 동해안의 울진 부근이 현재의 지도와 차이를 나타내며, 위도상 차이보다 경도상의 차이가 많다. 이것은 당시 정확한 천문시계가 없었고, 우리나라의 교통로가 남북 방향으로 발달되어 동서방향으로의 도로가 적었으며, 남북으로 발달된 산지 관계로 동서 거리의 측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지도 가운데 강장 정밀한 세밀도로써, 전체적으로는 이전의 지도보다 발전하여 현재의 지도와 근사할 정도로 정확하다. 또한 지도에 표기된 지명의 총수가 1만 2천개로 행적인 내용이나 자료도 풍부하며, 역참·진보·성지·고산성·관읍 등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긴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김정호는 《지구전후도 地球前後圖》(1834) 등의 판각 등을 통하여 서양의 경위도식 지도제작원리를 이해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방안(方眼)조직을 이용한 전통적인 동양의 지도제작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서양의 지도를 참고하고, 간이 측량 및 관측을 통하여 독창적인 지도를 완성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도학상으로는 물론 민족문화에 길이 빛날 걸작을 만든 것이다.

《대동여지도》의 판목(板木) 중 1매는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본 지도는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필사본은 규장각 도서관 등 여러 곳에 있다. 1936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영인본이 나왔고, 광복 후 2차에 걸쳐 영인되었다. 1980년 경희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에서 축소 영인 되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6, 1989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보물 제 853 호

수선전도 목판

首善全圖 木板

시 대 : 순조 24년(1824)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서울 성북구 안암동 1번지

지정연월일 : 1986. 3. 14.

조선 말 순조 25년(1825)경에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것으로 전하는 서울 시가지도이다.

목판 인쇄본으로 세로 25.4cm, 가로 22.2cm이며, 부분 채색한 한 장의 지도이다. 이 지도는 남쪽으로 한강을 한계로 하여, 북쪽으로 도봉산, 서쪽으로 마포·성산리, 동쪽으로 안암동·답십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수선(首善)은 서울의 별칭으로 《한서(漢書)》유림전에서 유래된 것이다. 실측에 의해서 제작된 것으로 선이 곱고 산세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으며, 다른 지도들보다 필법이 매우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성을 비롯하여 주요한 도로·절·시설, 그리고 성곽 주위의 동리 이름과 산까지 기록되어 있다. 시가지 구획은 물론, 골목길까지 그려 있는 상세한 시가지도이다.

제작자의 이름과 목판의 판각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도면 속에 1776년에 건립한 경모궁(景慕宮)이 기입되어 있고, 1824년에 세운 연우궁(延祐宮)이 기입되어 있지 않으며, 경복궁은 폐허된 것으로 미루어 1825년경의 제작임을 알 수 있는데, 그 필법으로 보아서 김정호의 제작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널리 전해진 서울의 정밀한 도성도(都城圖)로서 원본은 국립중



양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지도의 목각판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판각인쇄술을 고증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3, 1990 / 성복구, 《성복구지》, 1993.

□ 보물 제 930 호

궤장 및 사궤장연회도첩

几杖 - 賜几杖宴會圖帖

시 대 : 현종 9년(1668)
소 유 자 : 이완주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장위동 75-171
지정연월일 : 1987. 12. 26.

조선 후기에 현종이 이경석(李景奭)에게 지팡이와 안석(案席)을 내리고 축하 행사를 벌인 것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화첩 및 궤(几)와 장(杖)이다.

조선시대에는 나이 많은 대신들을 대우하고 공경하는 뜻에서 문관 2품 이상으로서 나이 70세가 되면 궤장(几杖)을 내리고 기로소(耆老所)에 들게 하였다. 궤장을 하사할 때에는 반드시 잔치를 해서 3공(三公)과 6경(六卿), 의정부의 동서반(東西班), 한성판윤, 예조의 참판 및 낭관들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궤장을 하사할 때의 교서(敎書)는 예문관에서 작



鳥頭杖



賜几杖 宴會圖帖

성하고, 주서(注書)가 낭독하였다.

궤장은 공조에서 제작하여 승지가 전달하였는데 궤장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날에 감사하다는 사은문(謝恩文)을 써서 올리도록 되어 있었다.

이 그림은 국왕이 하사하는 궤장을 맞아들이는 장면인 '지영궤장도(祗迎几杖圖)', 국왕이 내린 교서(敎書)를 낭독하는 장면인 '선독교서도(宣讀敎書圖)', 궁중에서 보낸 악사와 무희들이 연주하고 춤추는 장면이 묘사된 '내외선온도(內外宣醞圖)' 등을 세 부분으로 그려 놓았다. 세 장면은 모두 근경에는 산수를 그리고, 중경에는 연회하는 모습, 원경은 청록산수로 표현하였다.

인물들의 동작은 질서가 있고 고정되어 있으며, 건물은 계화(界畵)형식으로 그렸다. 색채는 호화로운 당채(唐彩)를 써서 거의 탈색하지 않았다. 그림의 양식으로 보아 당시의 수준있는 화원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4, 1988

□ 보물 제 1199 호

혜산 유숙필 매화도

蕙山 劉淑筆 梅花圖

시 대 : 고종 5년(1868)
소 유 자 : 노재항(盧在滉)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장위(1)동 230-6
지정연월일 : 1994. 5. 2.

조선말 고종 때 대표적인 화가 혜산 유숙(劉淑)의 매화 그림이다.

유숙(1827~1873)은 본관은 한양, 자는 선영(善永), 호는 혜산(蕙山)이다. 도화서 화원으로 사과(司果) 벼슬을 지냈으며, 철종·고종의 어진(御眞)제작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인물화, 풍속화, 산수화 등에 뛰어났으나 매화도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 매화도는 병풍에 홍매화를 그린 대작으로 화면 전체에 가지를 펼친 큰



매화나무를 능숙한 필치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좌측 하단에는 자신의 친필(親筆) 찬문(撰文)을 써놓았으므로 이 그림이 고종 5년(1868)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19세기에 유행한 매화도의 전형적인 대표작으로 유숙이 별로 다루지 않던 주제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제작연대도 확실할 뿐 아니라 작품의 품격도 높아 조선시대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참고자료 :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보고서》, 1996.

□ 보물 제 1225 호

묘법연화경 권 제7

妙法蓮華經 卷 第七

시 대 : 성종 3년(1472)

소 유 자 : 중앙승가대학

소 재 지 : 중앙승가대학 도서관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6

지정연월일 : 1995. 7. 19.

조선 전기에 간행된 불경(佛經)으로서 성종의 모후 인수대비(仁粹大妃)에 의해서 인쇄된 29종 불경 가운데 하나이다.

이 불경은 법화경(法華經)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천태종의 근본 경전이며, 화



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법화경은 제법(諸法)의 실상을 바로 깨치면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成佛)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승경전으로 후진(後秦)의 구마라십(鳩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경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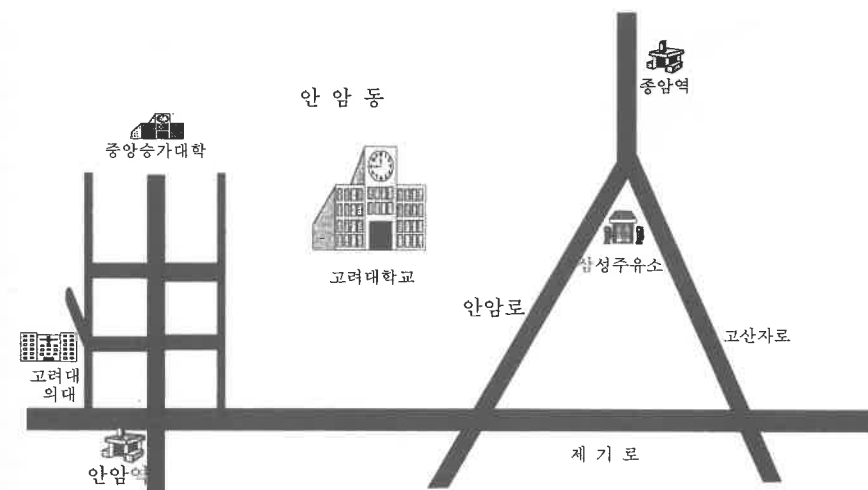
이 경전은 조선초 세조에 의해 불교경전의 번역과 간행사업을 위해 설치하였던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국역판으로 계환(戒環)

의 해제와 일여(一如)의 집주(集註)가 붙어 있다.

권말에 갑인소자(甲寅小字)로 된 김수온(金守溫)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이 판본은 세조 9년(1463)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목판 중에서 성종 3년(1472)에 인수대비가 세조·예종·의경왕·인성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쇄한 29종의 불경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인수대비가 인쇄한 불경 가운데 법화경이 간경도감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판본이다. 이때 인쇄한 법화경은 60부이며, 이 책은 그 중의 하나이다.

현재 간경도감본 법화경으로는 권 1과 권 4가 보물 제959호, 권 1·3·4·5·6이 보물 제1010호, 권 3이 보물 제1140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 참고자료 :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보고서》, 1996.





□ 사 적

사적은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유사(有史) 이전의 유적과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와 국방에 관한 유적, 산업과 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교육과 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분묘와 비 등이 대상이 된다. 사적 제1호는 경주 포석정지이다.

- 서울성곽
- 선잠단지
- 의릉
- 정릉
- 고려대학교 본관
- 고려대학교 구 도서관
- 성락원

서울성곽

서울城郭

시 대 : 태조 5년(1396)

소 유 자 : 국유

소 재 지 : 성북구, 중구, 용산구, 종로구 일원

지정연월일 : 1963. 1. 21.

서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석축 성곽이다.

이 성곽이야말로 조선 5백년동안 동대문, 숙청문, 서대문, 남대문 등의 4대문과 4소문에 이어져 서울 장안을 지키던 울타리이다.

높이 40척(약 12m)의 돌로 쌓은 이 성곽은 둘레가 5만 9,500척(약 18km)으로 서울의 4 산인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을 잇고 있는데 그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이 성곽은 현재 남대문·동대문 등의 성문과 암문(暗門)·수문(水門)·여장(女牆)·옹성(甕城) 등의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다.



태조 이성계는 한양천도 후 일차적으로 궁궐과 종묘를 지은 다음 태조 4년(1395) 9월 도성축조도감(都城築造都監)을 설치하고, 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에게 명하여 성터를 측정, 조사하게 하였다. 정도전은 서울의 4 산에 올라 실측하여 이를 연결하는 5만 9,500척의 성터를 결정하였다. 이듬해 정월부터 전국의 민정(民丁) 11만 8,000명을 동원하여 600척을 한 단위씩으로, 축성구역을 97개 구(區)로 나누어 정하고 49일의 말미를 주었다. 구역마다에는 천자문의 자호(字號)를 표시하여 북악산 동쪽에서부터 천자(天字)로 시작하여 낙산·남산·인왕산을 거쳐 북악산 서쪽에 이르러 조자(弔字)까지 구획하였다.

공사는 구간 600척을 6등분하여 각 공사 구간에 판사(判事)·부판사·사(使)·부사·판관(判官) 등 12명씩을 임명, 민정을 독려하여 견고하게 축성하도록 책임을 맡겼다. 성벽에는 관직과 군명(郡名)을 새겨넣어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는데 총 석축길이는 1만 9,200척이었다. 석재는 자연석을 약간씩 다듬어 쌓되 기초석은 길고 큰 돌을 수직으로 쌓아올렸다. 평지는 흙으로 쌓았는데 너비는 아랫부분이 25척, 윗부분이 18척, 높이 25척이었다. 그 단면은 사다리꼴을 이루는 성토판축(盛土版築)을 하였는데 토축의 둘레는 4만 3,000척이었다. 동대문 부근 청계천에 있는 수구(水口)에는 홍예[雲梯]를 쌓고 그 좌우에는 석성을 축조하였다. 홍예의 높이는 16척, 석성 등을 포함한 길이는 1,050척이었다.

그런데 49일동안 맡은 구역의 축성을 완료하기 위해 책임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자 동상자(凍傷者)와 부상자가 늘어났고, 전염병까지 돌아 병사하는 사람도 생겼다. 태조 이성계는 이를 염려하여

「야간 작업과 눈이 오는 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사망자 가족들은 따뜻하게 보살피 주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당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본 종림(宗林)스님은 윤안필과 함께 판교원(板橋院)을 구호소로 삼아 병을 치료하고 음식을 제공하자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이렇게 쌓은 서울성곽은 성문을 만들지 못해 성곽 구실을 할 수 없었는데다가 이 해 여름 장마가 지자 토성으로 쌓은 이곳 저곳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자 태조는 이 해 가을 8만명의 민정을 다시 동원하여 무너진 토성을 돌로 쌓게 하는 등 보수 하였다.

대략의 공사는 이렇게 끝났지만 남대문은 1396년에, 동대문의 웅성은 이듬해 4월에야 완성되었다. 세종 4년(1422)에는 전국에서 32만 2,000명의 민정이 동원되어 이 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여 토축 부분을 모두 석축으로 바꾸어 높이 쌓고, 석재를 약 2 : 1 길이 비율의 장방형으로 다듬어 쌓았다.

또한 여장(女牆)도 쌓았고 수문도 2 개 더 만들었다. 이 당시의 개축으로 도성은 둘레가 8만 9,610척, 높이 40척 2촌, 여장 4,664첩(堞), 치성(雉城) 6 군데로 되었으며, 곡성(曲城) 1 군데, 성랑(城廊) 15 군데가 만들어 졌다.

그 뒤 세종 8년(1426)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을 두어 성문과 성벽을 보호하게 하였고, 세종 29년(1447) 남대문을 다시 세웠으며, 성종 10년(1479)에 남대문을 중수하였다. 또한 문종 1년(1451) 1월부터 경기·충청의 수군(水軍) 3천명으로 성벽을 수축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한성이 함락되어 왜군에 의하여 왜루(倭壘)가 쌓여진 것을 이듬해에 수복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돌로 다시 수축하였다.

그뒤 광해군 8년(1616) 부분적인 수축을 하였고, 숙종 30년(1704) 3월부터 약 5년간에 걸쳐 오군영(五軍營)에 분담하여 둘레 9,975보, 성첩(城堞) 7,081개의 대대적인 수축을 하였다. 또한, 영조 19년(1743)에 부분 보수를 하였고 성첩도 회분(灰粉)으로 단장하였으며, 고종 6년(1869) 동대문의 개축을 마지막으로 도성의 수명은 다하였다.

이처럼 서울성곽은 태조 때 창축되어 세종 때 개축되고, 숙종 때의 수축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축조방법과 돌의 모양이 각기 달라 세 시기의 성벽은 쉽게 구분된다. 태조 때에 쌓은 것은 1척 정도의 다듬지 않은 네모꼴의 작은 돌을 불규칙하게 쌓았으나 벽면은 수직이다. 세종 때는 2×3척의 긴 네모꼴의 다듬은 돌을 아랫부분은 비교적 큰 돌로, 윗부분은 작은 돌로 쌓았으며 성벽의 중앙부가 밖으로 약간 튀어나왔다. 이때는 철과 석회를 사용하여 축성기술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숙종 때의 것은 가로·세로 2척의 정방형 돌을 정연하게 쌓아 간격도 일정하고 벽면도 수직이다. 이는 근대적 축성기술의 완성으로 견고한 축성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1915년 일제는 근대도시로의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경성지구역개수계획을 수립하여 성문과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 결과 현재 삼청동·성북동·남산·장충동 일대에만 성벽이 남아 있고, 성문도 남대문·동대문·숙정문·창의문·광

희문만 남아있게 되었다.

어언 6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울성곽은 때때로 개축·보수공사를 하여 관리하였지만, 성벽이 주로 산능선을 따라 쌓아졌음에도 불구하고 45 리(里)에 달하는 어느 한 곳의 기초부분이라도 내려 앉은 곳이 없는 것은 당시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정교한 기술로 튼튼하게 쌓았던 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초 태조 때 서울성곽의 쌓을 위치를 둘러싸고 성리학자 정도전과 불교계의 대표 무학대사와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것이다. 무학대사는 현재 종로구 무악동에 마치 중이 장삼을 입은 모습의 선바위(禪岩)가 도성 안에 들어 오도록 북악산~인왕산~안산~남산으로 연결해서 성곽을 쌓자고 한데 반하여, 정도전은 인왕산에서 곧바로 남산으로 연결해서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성곽은 1975년 이전까지는 종로구와 중구 지역을 둘러싸고 있었으므로 서대문구·성북구·용산구·동대문구·성동구와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다. 현재 서울성곽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전체의 2/3 정도인 11.424Km이고, 완전히 사라져 흔적조차 없는 곳은 6.703Km나 된다.

남아있는 서울성곽은 조선시대의 태조·세종·숙종으로 이어지는 축성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광복 후 1963년에 인왕산 방면과 북악산의 석축을 보수하였고, 1972년과 1976년에 부분 보수와 개축을 하였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1, 1989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사적 제 83 호

선잠단지

先蠶壇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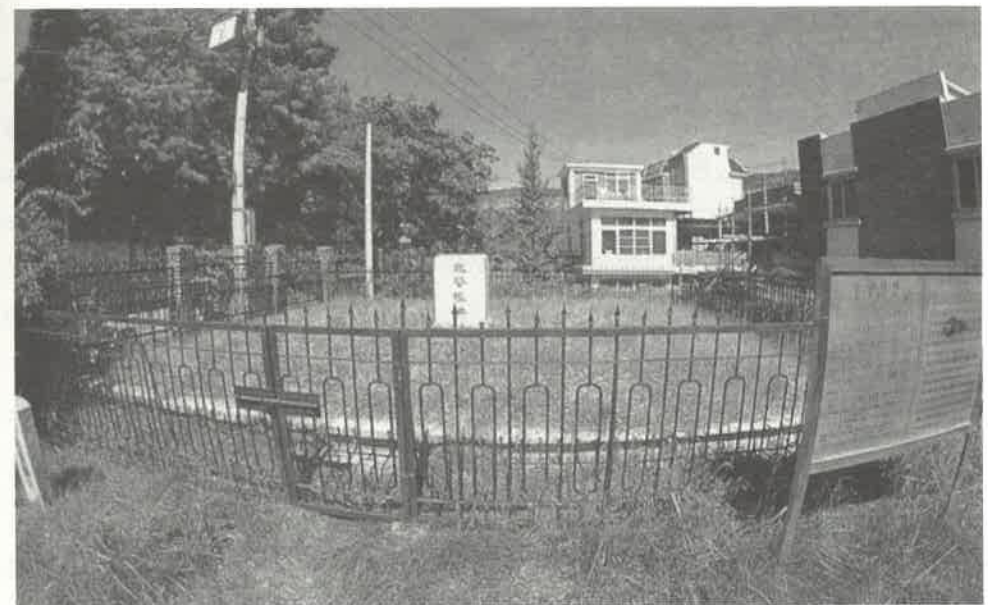
시 대 : 조선 시대
소 유 자 : 사유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64-1
지정연월일 : 1963. 1. 21.

선잠단은 국가에서 양잠을 위하여 잠신(蠶神)으로 알려진 중국의 3황5제 중의 한 사람인 황제(黃帝)의 황후 서릉씨(西陵氏)를 배향하는 단(壇)을 쌓고 제사지내던 곳이다.

이 단은 조선시대 성종 2년(1471)에 처음 쌓은 것으로 단을 쌓은 방법은 사직단(社稷壇)과 같게 하였으나 단의 남쪽에는 한 단(段) 낮은 댕들이 있고, 그 앞쪽 끝에 상징적인 뽕나무를 심고 궁중의 잠실에서 키우는 누에를 먹이게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매년 3월 첫 번째 뱀 날[初巳日]에 거행하다가 1908년 7월, 선잠단은 선농단(先農壇)의 신위와 함께 사직단으로 옮겨졌으므로 현재 그 터만 남아 있다.

조선시대 5백년간은 농업과 잠업을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농업을 주관하는 신을 동대문구 제기동의 선농단(先農壇)에서, 잠업을 주관하는 신은 선잠단에 모시고 국가에서 매년 제사를 지냈다.

우리 조상들은 부족국가시대부터 농사와 함께 누에치기, 즉 양잠을 매우 중시하였으므로 역대 왕실에서는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하기 위해 국왕은 친경(親耕)을 하였고, 왕비는 궁중 안에 단을 꾸며 내명부·외명부들을 거느리고 친잠례(親蠶禮)를 거행하였다. 또한 매년 늦은 봄(3월) 길(吉)한 뱀 날(巳日)에 혜화문 밖의 선잠단에 풍악을 울리고 제사를 지냈다고 『동국여지비고』에



소개하고 있다. 조정에서는 선잠제가 국가의식이므로 이 날에는 대신을 보내어 제사를 주관하였다.

선잠단지는 현재 1,765㎡(528평)에 지나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일대의 성북초등학교 자리도 포함했던 넓은 곳이었다. 선잠단은 일제 때 폐허화 하여 민유화(民有化)되었으나, 현재는 그 위치에 '선잠단지'라는 팻말이 세워지고 주변을 정리하여 보존하고 있다.

선잠단을 쌓은 것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친잠례(親蠶禮)가 왕비의 소임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세종은 양잠을 크게 장려하였다. 현재 서초구 잠원동은 조선시대에 잠실이 있었던 지역이었으므로 한말까지 수령(樹齡)이 3~400년 되는 뽕나무가 살아 있었는데 현재는 고사(枯死)되어 밑둥 부분만 남아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 1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2, 1990 / 박경룡, 《서울 문화유적》, 1997.

□ 사적 제 204 호

의 룡

懿 陵

시 대 : 경종 4년(1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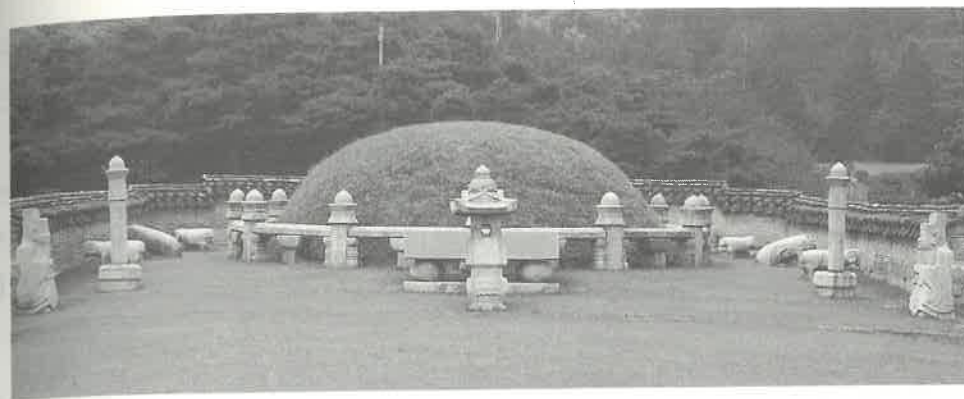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석관동 1-5

지정연월일 : 1970. 5. 26.

의룡은 조선 후기 경종(景宗)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 어씨(宣懿王后魚氏)의 능이다.

의룡이 위치한 곳은 천장산(天藏山) 밑으로서 옛 지명은 양주 중량포(中梁浦)이다.



경종은 숙종의 장남으로 장희빈으로 더 잘 알려진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 장씨(張氏)의 소생으로 이름은 균(均), 자는 휘서(輝瑞)이다. 숙종 14년(1688)에 태어나서 세 살 때 왕세자에 책봉되어 숙종 43년(1717) 8월에 청정(聽政)을 대리하다가 3년 후에 숙종이 승하하자 경희궁에서 즉위하였다.

경종의 첫 번째 왕비는 단의왕후(端懿王后) 심씨인데 세자빈으로 있을 때 세상을 떠났으므로 동구릉의 혜릉(惠陵)에 안장하였다. 이어서 경종의 계비 선의왕후 어씨는 함원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구(魚有龜)의 딸로 15세 때 세자빈이 되었다. 경종의 즉위와 더불어 왕비로 진봉(進封)되었는데, 온유한 성품을 지니고 매사에 익숙하였으나 영조 6년(1730)에 26세로 소생 없이 승하하였다.

경종은 병약하여 재위 4년만에 승하하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모후 장희빈이 사사된 후부터 질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종은 성격이 온유하였으며 자녀가 없고 병이 많아 이복 동생 연잉군(延昞君 : 후일 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하였다. 4년 동안의 경종 재위 기간 중에는 집권세력이었던 소론(少論)이 연잉군의 대리청정을 추진하던 노론(老論) 세력을 숙청한 경종 원년(1720)의 신축옥사(辛丑獄事)와 경종 2년(1722)에 임인옥사(壬寅獄事) 등의 두 번의 옥사(이른바 신임사화)가 일어났다.

경종은 재위 기간동안 서양의 수총기(手銃器 : 소화기)를 모방하여 이를 제작하게 하고, 3남지방 양전(量田)의 민원을 시정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쌍릉(雙陵)은 좌우로 조성하나 의룡은 앞뒤로 놓아 능역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전후능설제도(前後陵設制度)는 영릉(寧陵: 효종과 인선왕후 장씨의 능)에서 처음 나타난 형식인데 이는 풍수지리적으로 생기가 왕성한 정혈(正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두 개의 봉분을 앞뒤로 놓아 능을 조성하였다. 영릉과 다른 점은 영릉은 왕과 왕비의 두 봉분이 약간 엇비슷듬하게 배치하였다면 의릉은 두 봉분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왕릉과 왕비릉은 각각 단릉(單陵)의 상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뒤에 있는 왕릉에만 곡장(曲牆)을 둘러 쌍릉임을 나타내었다. 석물(石物)은 능 앞에 척수를 줄여 실물 크기로 조각된 문관석·무관석이 세워져 있고 봉분은 병풍석이 없이 난간석(欄干石)만 두르고 있다. 그밖에 혼유석(魂遊石)·장명등(長明燈)·망주석(望柱石)·문무석(文武石)과 말·양·호랑이가 있다.

능석물의 배치와 양식은 명릉(明陵: 숙종과 제 1계비 인현왕후, 제 2계비 인원왕후의 능)과 같이 규모가 작고 간소한 후릉제도(厚陵制度)를 택하였는데 이는 《속오례의(續五禮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릉의 능역은 114,658평이다.

추존된 순조의 아들 익종(翼宗)의 능도 순조 31년(1831) 8월 4일에 이곳 의릉 좌강(左岡)에 자리 잡아 연경묘(延慶墓)라 하다가 헌종 즉위년에 추존하여 수릉(綏陵)으로 높였는데 철종 6년(1855)에 동구릉으로 이장하였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7, 1990.

□ 사적 제 208 호

정릉

貞陵

시 대 : 태조 5년 (1396)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87-16

지정연월일 : 1970. 5. 26.

조선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康氏)의 능이다.

처음 능지를 정한 곳은 안암동이었으나 산역(山役)을 시작할 때 물이 솟아나와 현재 중구 정동의 덕수궁 북서쪽에 능을 조성하였다.



신덕왕후는 황해도 곡산부 강윤성(康允成, 判三司事贈象山府院君)의 딸로 이성계와 만나 2남 1녀를 낳았고 태조 원년(1392)에 헌비로 책봉되었으며, 태조 7년(1398) 8월 13일 판내시부사 이득분(李得芬)의 집에서 승하하였다.

사랑하던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태조는 너무 상심하여 슬퍼하다가 능터[陵地]를 친히 찾았다. 태조는 공신들의 주장대로 국모를 높이는 뜻에서 공신수릉제(功臣守陵制)를 채용하고 능역을 황화방 북원(皇華坊 北原, 현 정동)에 조영하였다. 그 동편에는 정릉의 원찰(願刹)로서 170여간의 흥천사(興天寺)를 세운 다음 자주 행행(行幸)하였고 경복궁에서 정릉의 아침 재 올리는 흥천사의 종소리를 듣고서야 수라를 들었다. 이 흥천사 종은 후일 종루(鐘樓)에 걸려 서울 장안의 시각을 알리기도 하였다가 현재는 덕수궁에 옮겨져 있다.

그러나 정릉은 태종이 즉위하면서 푸대접 받게 되었다. 이는 조선 건국 후 이방원(태종)이 건국공신으로 왕위를 계승하고자 하던 차에 신덕왕후가 그의 소생 방식을 세자로 삼았으므로 증오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덕왕후가 승하한 지 2년 뒤에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은 이복 동생

방변과 방석을 죽이고, 그의 형 방간과 싸워 이겨 왕위에 오르자 정릉을 눈에 가시로 여겼다. 이윽고 태조가 승하하자 이로부터 9개월 만인 태종 9년(1409) 2월에, 의정부에서 정릉이 유독 성 안에 있어서 미편(未便)하고, 중국 사신이 머무는 태평관이 가까우니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상소를 올렸으므로 동소문 밖 사을한리(沙乙閑里 : 현 정릉)로 이장하였다.

태종은 능을 옮긴 지 한달이 지난 후에는 봉분을 깎아 버리고 정자각(丁字閣)을 헐어냈으며 석물(石物)들을 모두 땅에 묻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해 여름, 흙으로 만든 광교(廣橋)가 무너지자 병풍석 12 신상(十二神像) 등의 석물을 실어다 돌다리를 만들게 하고, 그 밖의 석재나 목재들은 태평관을 건립할 때 부속재로 사용하였다.

이로부터 정릉은 돌보는 이가 없었으므로 능침이 황폐하여 아무도 신덕왕후의 능으로 보지 않았는데, 170년이 지난 선조 때 신덕왕후의 후손인 강순일(康純一)이 군역 면제의 혜택을 받고자 조정에 소청하자 이를 계기로 정릉 위치를 찾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아차산 일대 등을 모두 뒤졌으나 흔적이 없었는데, 조선 초 태종 때 변계량(卞季良)이 하늘에 제사 지낸 제문(祭文) 속에서 정릉에 관한 구절을 찾아내어 정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릉 능침을 수봉(修封)하고 한식에 제사하는 것만으로 그쳤다.

그 후 현종 10년(1669)에 송시열(宋時烈)의 계청(啓請)으로 신덕왕후는 200년 만에 비로소 종묘에 배향되고 능묘로 봉심(奉審)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경석(李景奭) 등의 계청으로 능을 수리하고, 재실(齋室)을 증건하여 수호군을 정해 주기에 이르렀다. 이 능의 관리를 위하여 영(令) 1원과 참봉 1원을 두었다. 이때에 현종은 10월 2일 교서를 발포하고 과거(科擧)를 특별히 설정하여 성대하게 경축하였다. 봉릉(封陵) 설재(設齋)하던 날에는 비가 정릉동 일대에만 많이 쏟아졌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은 이 큰 비를 가리켜 억울한 원을 씻는 비라 해서 '세원지우(洗冤之雨)'라 하였다고 전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9, 1990 / 한국문원, 《문화유산 왕릉》, 1995.

□ 사적 제 285 호

고려대학교 본관

高麗大學校 本館

시 대 : 19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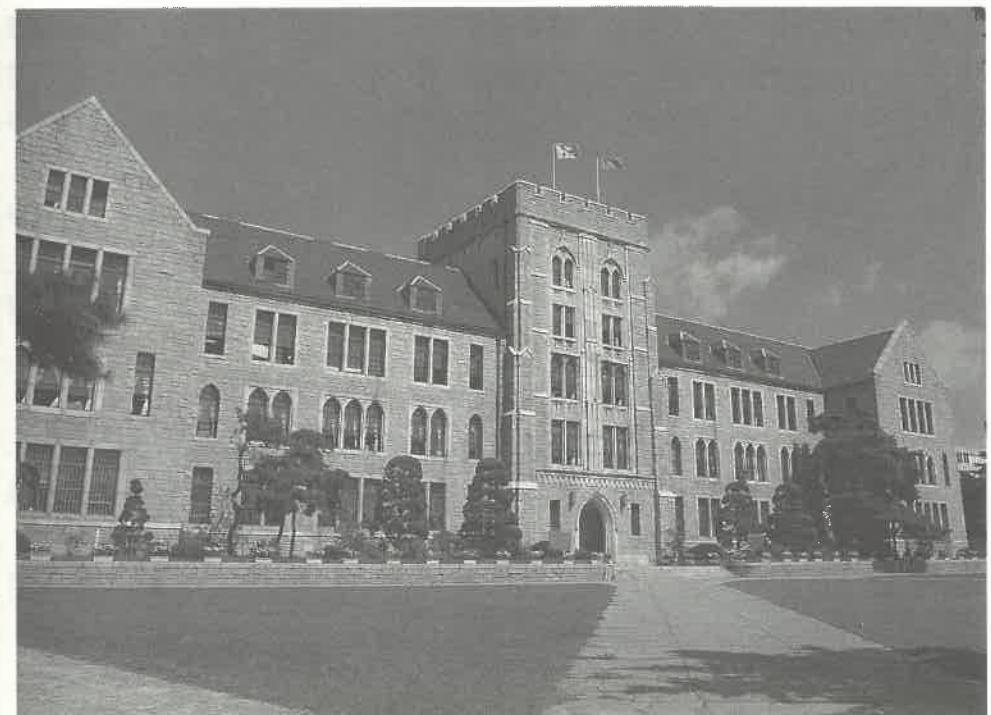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고려대학교내)

지정연월일 : 1981. 9. 25.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근대식 학교 건축물이다.

이 건물의 규모는 연건평 3,263㎡(975평), 지상 3층(중앙탑 6층)이며 화강암을 주 재료로 한 좌우대칭의 고딕양식으로 되어있다. 현재는 이 학교의 행정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의 본관이다. 1932년 당시 경성부 교외인 안암리에 터를 잡아 1933년 9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하였는데 당시 금액으로 19만원이 들었다. 본래 보성전문학교는 1905년 4월 당시 내장원경(內臟院卿)이었던 이용익(李容翊)이 지금의 수송동에 있던 노어학교(露語學校) 자리에 법률과 실업교육을 목적으로 개교하였으나, 그후 1910년에 천도교에서 인수하여, 안국동에서 두 채의 목조 2층 교사로 법과와 상과 전문과정을 교육하였다.

그 후 1932년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주(校主)였던 김성수(金性洙)선생이 인수, 현 안암동의 교지를 사들여 본관과 중앙도서관을 새로 짓고 오늘의 고려대학교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건물의 설계자는 일제 때 창의적인 작품을 많이 발표한 바 있는 한국인 건축계의 개척자의 한 사람인 박동진(1899~1981)이었고, 시공자는 일본인 후지타(藤田幸二郎)가 맡았다.

평면은 대체로 H자(| — | — |)형으로 중앙에는 넓은 홀이 있다. 중앙부에는 5층으로 보이는 고딕(Gothic) 성관(城館)과 같은 모습의 탑부(塔部)를 두고 1층을 현관과 현관홀로 하였다. 이 탑의 전후에는 주 출입구와 후면 출입구를 두었다. 김성수의 착안으로 본관 현관 좌우 문설주에 호랑이의 머리상을, 그 후 문 입구 좌우에는 무궁화를 새겨서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기상을 은연 중에 나타내었다. 북측에 편복도를 두고, 복도의 남측에 큰 방들을 배치하였으며 평면의 좌우 돌출된 곳에는 큰 방을 두었다. 복도의 동서 양 끝단에서는 계단과 화장실이 뒷쪽으로 붙어있다.

중앙 출입구와 중앙탑 최상층의 창문들은 첨두 아취(Pointed arch)로 고딕양식을 취하고, 또 이 건물 2층의 창호를 대부분은 첨두 아취로 처리하였으나, 나머지 창문들은 수평 아취(Flat arch)로 마무리하여 변화를 얻고 있다. 중앙탑 네 모서리는 후렛 버트레스(Flat buttress)를 붙여 고딕적인 성격을 더하였고, 탑 꼭대기는 중세 성관(中世城館)의 여장(女牆)과 같이 마무리 하였다.

지붕은 박공지붕이고 삼각형 도머(Dormer)를 두었고, 스테이트로 마감하였으나 최근의 보수공사 때 동판마감으로 하였다. 내부시설로 증기난방과 수세식화장실을 두어 당시로서는 최신식 건물이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자본에 의하여, 또한 한국의 기술자에 의하여 세워진 최초의 교육기관으로서도 의의가 깊은 건물이다.

* 참고자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 1988.

고려대학교 구 도서관

高麗大學校 舊 圖書館

시 대 : 1937. 9.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고려대학교내)

지정연월일 : 1981. 9. 25.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근대식 학교 건축물이다.

연건평 4,089㎡(1,236평), 지상 5층 규모의 석조(石造)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이 건물은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가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도서관 건물이다. 본관 건축을 끝낸 이듬해인 1935년 6월에 착공하여



1937년 9월에 준공되었다. 설계자는 본관을 설계한 한국인 건축가 박동진(朴東鎭)이었으며, 시공자는 미상인데 당시 금액으로 22만원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한다. 건축의 양식과 구조는 학교 경영주인 김성수와 상의하여 당시 교수로 있던 오천석(吳天錫)의 모교인 미국의 듀크 대학의 도서관을 참고하였다고 하며, 화강암 석조 고딕양식으로 되어있다.

평면은 L자형으로 남서 모서리에 고딕 성관 모양의 탑부(塔部)를 두고 이 곳에 주 출입구를 두었으며, 준공 당시 1층에는 교수연구실 32개, 2층에는 250석의 대열람실을 배치하고 각 좌석마다 전기스탠드와 가죽을 씌운 회전의자들을 마련하였다. 3층에는 20만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게 하였으며, 3층 이상은 민속자료, 미술품 진열실로 꾸몄다. 출입구와 탑부의 창호들과 그리고 남측의 창호들은 첨두 아취(Pointed arch)를 쌓았고, 나머지 서측 창호들은 수평 아취(Flat arch)를 쓴 창문들이다. 특히 동남측 끝단에는 남측과 북측으로 돌출된 네 모서리에 고딕식 튜렛(Turret)들을 세웠고, 남측 창들 사이에는 후렛 버트레스(Flat buttress)를 세워 고딕 성관풍의 탑과 더불어 기품있는 고딕양식의 풍취를 더해주고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는 중앙도서관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은 대학원동과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다.

* 참고자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 1988.

□ 사적 제 378 호

성 락 원

城樂園

시 대 : 현종 15년(1849)~철종 14년(1863)

소 유 자 : (주)제남기업 심철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

지정연월일 : 1992. 12. 28.



원래 조선말 순조 때 황지사의 별장으로 조성된 별서(別墅)정원이었다.

이 저택은 서울시 유형문화재였던 것을 최근에 4,358평을 사적으로 지정하였는데, 조선 말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沈相應)의 별장이던 것을 의친왕 이강(李坰)공이 별궁으로 사용하다가 그 아들 이 건(李鍵)공이 살았다고 한다.

성락원은 거의 자연적인 지형 그대로를 살려 건물을 배치하였으므로 도심 속의 청류(淸流)를 즐길 수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북한산 구준봉(狗蹲峰)에서

내려오는 두 갈래 개울물이 암벽 사이에서 합쳐지는 쌍룡동천(雙龍洞天)이 나타나고 다리를 건너면 깊숙한 내원(內園)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인조 동산인 용두가산(龍頭假山)을 조성해 놓았다. 이 저택은 진입공간·본원공간·심원(深園)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형에 따라 성격이 뚜렷하다.

먼저 쌍룡동천(雙龍洞天)·용두가산(龍頭假山)으로 이루어진 진입공간은 자연스레 구성된 수풀과 Y자형의 개울 그리고 인공적인 석가산이 교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다음에 본재누각(本齋樓閣)·영벽지(影碧池)로 이루어진 본원공간은 생활·수학·수양의 기능을 수용한 공간으로 여러 채의 건축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본재누각만이 남아있다. 영벽지는 인공이 가해진 자연 연못의 진수(眞髓)를 보여 여기에 비치는 그림자는 공간의 깊이를 더해 준다.

이어서 수각정·연지(水閣亭·蓮池)·약수터로 이루어진 심원은 건물군 뒤의 후원과 같은 곳으로 암반을 막아 만든 연못이 있다. 이 연못에는 잉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그 연못가에는 정자각 형태의 11칸 짜리 건물인 송석정(松石亭)이 높다랗게 세워져 있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데 이 정자 안에는 노송이 지붕을 뚫고 서 있어, 지붕 위에 나무 그늘이 지는 것을 피해왔던 오랜 관습을 타파하고 있다. 이 송석정은 옛날에는 선비들의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일제 말기에 불탄 것을 1953년에 복원하였다. 이곳에서는 전일 여성 관광안내원과 주한 외국여성들을 교육하는 예지원(禮智院)이 사용하였다.

약 6만평이 되는 이 저택의 동쪽에는 약초를 기르는 약전(藥田)·약포(藥圃)와 과수원이 있었다.

이곳에는 소나무·참나무·다래나무·등나무 등 우리 고유의 조경수가 연못가 및 산비탈에 우거져 암벽과 폭포, 수석과 더불어 조화의 극치를 이루는데 이곳은 일본식이나 서구식의 정원수가 전혀 없는 것이 특색이다.

성락원 서쪽에는 「평의 바다마을」이 언덕 위에 형성되어 있다. 원래 이 일대는 북한산 줄기로서 수목이 울창하고 바위가 늘어서 있던 곳이어서 산새, 까치, 비둘기, 꿩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시인 김광섭(金光燮)은 이 곳 풍경을 주제로 '성북동 비둘기'라는 아름다운 시를 지었다.

*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 1996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 기술 등 무형적 문화적 소산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우리민족은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항상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때마다 전통적인 기능·예능을 더욱 세련, 발전시켜 오면서 대대로 전하여 왔다. 그러한 와중에서 어느 부분의 기능과 예능은 스스로 소멸되기도 하였고, 또는 전란으로 그 명맥마저 끊어져 버린 예도 없지 않다. 실로 오늘날까지 우리 생활 속에 전승·보존되고 있는 기능 및 예능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무형문화재란 그러한 중요한 기능·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솜씨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한 지방무형문화재로 나누어 진다. 기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개인 보유자와 보유단체로 인정을 한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는 종묘 제례악이다.

□ 판소리 / □ 조각장 / □ 대금산조

□ 소목장 / □ 태평무



판소리

기능보유자 : 한갑주(韓甲珠)

소재지 : 성북구 정릉(2)동 520

지정연월일 : 1964. 12. 24.

판소리 중 적벽가의 기능보유자인 한갑주가 살고 있다.

판소리의 기능보유자는 한갑주 외에도 김순옥(金順玉)·정용훈(鄭榕薰)·박봉술(朴奉述)·박동진(朴東鎭)이 있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창자(唱者)가 한 고수(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소리(唱, 노래)와 아니리(白, 말)로 엮어 발림(몸짓)을 곁들이며 구연(口演)하는 창악적 구비서사시(口碑敍事詩)이다. 판소리는 전통적으로 광대(廣大)라고 불려진 하층계급의 예능인들에 의하여 가창·전승되어왔다.

판소리가 언제부터 불려왔는지를 아는데는 최고(最古)의 문헌이 조선 영조 30년(1754) 유진한(柳振漢)의 『만화집(晩華集)』의 <춘향가>를 넘지 못하지만, 판소리가 재인 광대들이 벌이는 판놀음에서 여러 놀음 틈에 끼여 한 놀이로 구실을 하던 것은 훨씬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짐작된다. 어쩌면 조선 전기 문헌에 보이는 <광대소학지희(廣大笑謔之戲)>가 판소리의 모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아서 조선 전기에 원초 판소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며, 판소리를 부르던 창우(倡優)들이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신라의 선악(仙樂)이나 창악(倡樂)이 판소리의 근원이라고도 하나 분명히 밝혀진 바는 없다.

판소리는 마을굿에 딸린 판놀음에서 생겨나 여러 놀이 틈에 끼여 놀이구실을 하다가 판놀음이 마을굿과 떨어져 따로 벌이는 놀음으로 발전하면서 순조 때 송만재의 《관우회》에 보이듯이 열두마당이 되어 다른 놀음보다 가장 인기 있는 놀이로 자란 것으로 생각된다.

판소리가 사대부들로부터도 인기를 얻게되자 민중의 판놀음 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방안놀음으로도 끼이게 되었다. 또 여러가지 판소리 가운데 <강릉매화



가>·<변강쇠타령>과 같은 서민적인 재담으로 된 것은 도태되고 <적벽가>·<심청가>·<춘향가>와 같이 사대부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것은 계속 발달하여 오늘날과 같이 방대한 모습으로 된 것이라 하겠다.

판소리 최고(最古) 명창으로 이름이 전하여지는 이는 영조~정조 때 원초(原初) 판소리를 부른 것으로 보이는 우춘대(禹春大) 및 하은담(河殷譚)·최선달(崔先達)인데 이들의 음악사 자료는 전해지는 것이 없다. 순조 때에는 권삼득(權三得)·송흥록(宋興錄)·모흥갑(牟興甲)·염계달(廉季達)·박유전(朴裕全)과 같은 명창들이 나와서 판소리 조(調)와 장단(長短)을 오늘날 판소리와 같은 모습으로 구성하여 판소리의 음악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철종 때에는 박만순(朴萬順)·이규치(李揆致)·김세종(金世宗)·정창업(丁昌業)·송우룡(宋雨龍)과 같은 명창들에 의하여 판소리는 크게 확장되었으며, 고종 때 김창환(金昌煥)·이동백(李東伯)·송만갑(宋萬甲)·정정렬(丁貞烈)과 같은 많은 명창들이 나와서 판소리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니 그들의 판소리는 오

늘날과 같은 밀도있는 음악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말에 나라가 기울어지면서 판소리 또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말과 일제 때 판소리를 이어놓은 명창들로는 장판개(張判介)·박중근(朴重根)·박봉래(朴奉來)·김정문(金正文)·공창식(孔昌植)·김봉학(金奉鶴)·정웅민 등이 있었으며 임방울(林芳蔚)·김연수(金演洙)·강장완(姜章浣)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복 뒤에는 한때 여성창극이 성행하여 판소리는 더욱 쇠미하게 되고 1960년대에는 창극도 기울어졌다. 1960년대에는 판소리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박동진(朴東鎭)이 판소리 다섯마당의 전판 공연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박초월·오정숙(吳貞淑)·성우향(成又香) 등이 판소리 전판 공연을 가진 바 있으며, 1960년대 판소리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뒤 정광수(丁光秀)·박초월·정권진(鄭權鎭)·박봉술(朴奉述)·한승호(韓承鎬) 등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사라져가는 판소리 전수에 진력을 기울이고 있다.

판소리가 발생할 당시에는 한마당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서 한 가객(歌客)이 많은 종류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판소리의 종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춘향가(春香歌)·심청가(沈淸歌)·수궁가(水宮歌)·홍보가(興甫歌)·적벽가(赤壁歌)·배비장타령(裨裨將打令)·변강쇠타령·장기타령·옹고집·무숙이타령·강릉매화타령(江陵梅花打令)·신선타령 등 열두가지를 「판소리 열두마당」이라 일렀으나 판소리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면서 한 가객(歌客)이 많은 소리를 부르기에 벅차게 되어 나머지는 모두 없어지고 「판소리 다섯마당」이라 하여 춘향가·심청가·수궁가·홍보가·적벽가만이 전승되고 있다.

판소리는 고수(鼓手) 한 사람이 북장단을 치면서 반주하는데 느린 진양, 중모리, 보통 빠른 중중모리, 빠른 잣은모리, 휘모리, 그밖에 엇중모리, 엇모리가 있어서 판소리의 극적내용의 긴박(緊迫)과 이완(弛緩)에 따라 느리고 빠른 장단을 가려 짜며, 슬픈 계면조(界面調), 화평스러운 평조(平調), 웅장한 우조(羽調), 그 밖에 씩씩한 설령제(드령조), 경쾌한 경드름(京調) 등이 있어서 판소리의 극적내용의 희노애락(喜怒哀樂)에 따라 슬프고 기쁜 조(調)를 가려 짜서 음악이 사설(辭說)의 극적내용과 융합되는 훌륭한 극음악으로 되어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3, 1991/ 성북구, 《성북구지》, 1993.

조 각 장

彫 刻 匠

기능보유자 : 김철주(金喆周)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52-26

지정연월일 : 1970. 7. 22.

금속세공을 담당하던 장인(匠人)의 일종으로 조각의 기능보유자 김철주(金喆周)가 살고 있다.

조각장은 금속기의 표면에 평각(平刻)·투각(透刻)·고각(高刻)·육각(肉刻)·상감(象嵌) 등의 기법으로 문양을 새기는 장인으로 조이장(彫伊匠 또는 쪼이장)으로 불리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조각 일은 입사(入絲)와 더불어 청동기시대 이후 우리나라 금속공예 의장 기술의 중심을 이루어 온 대표적인 기술로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칼자루에 조각과 입사기법이 병용된 청동기시대의 환두태도(環頭太刀)를 비롯하여 삼국과 통일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된 각종 금속장신구들은 조각기술의 전통과 우수성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예이다. 조각은 주로 고급기물에 쓰였기 때문에 그 수요층 또한 왕실·귀족 등 특수한 신분을 지닌 계층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조각장은 관아에 소속되어 제작활동을 전개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은을 다룬다 하여 은장(銀匠)의 명칭으로, 백동장(白銅匠)·적동장(赤銅匠)·생철장(生鐵匠) 등 재료별로 분류된 다른 장인들과 함께 장야서(掌冶所)에 소속되었으며, 조선시대 이후에는 기술의 성격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조각장의 명칭으로 공조(工曹)와 선공감(繕工監) 등에 분속되었다. 조선후기의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따르면 경공장(京工匠) 가운데 공조(工曹)에 소속되어 있던 장인수는 55종(種)에 255명인데, 그중 금속공예 관계는 12종 80명으로써 약 3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공장(京工匠) 체제가 붕괴되고, 개화의 추진과정에서 조각기술의 전통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1900년대 초에 경공장의 체제를 일부 계승한 미술품제작소(美術品製作所)가 이왕직(李王職)의 직영으로 설립되면서 기술 전통을 앞시기의 수준으로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각장 분양의 첫 기능보유자였던 김정섭(金鼎燮)도 이곳에서 기술을 배양하였으며, 현재는 그의 아들



김철주(金喆周)가 새로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재료는 백금·금·은·철·연(鉛)·석(錫)·아연·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한 가지나 또는 합금한 것을 소재로 한다. 만들어진 물건의 금속면에 조각을 하는 데는 강쇠로 만들어진 5cm 내외의 자그마한 정(釘)을 쓴다. 정에는 촛정·공군정·다질정·평다질정·비늘정·누갈정·웁꼭정·운풍정·갈기정이 있고 이 밖에 광을 낼 때 쓰이는 광치기와 콤퍼스의 구실을 하는 거름쇠와 소도리, 조이틀 등 갖추어져야 하는 도구만도 수백점에 이른다.

조이질을 하는 무늬에는 수복문(壽福紋)·초룡문(草龍紋)·편문(鰻紋)·당초문(唐草紋)·난간문(欄杆紋)·사군자문(四君子紋)·십장생문(十長生紋)·산수문(山水紋)·화조문(花鳥紋) 등이 있는데 조선 말기 이후에는 특히 길상적 상징의미를 지닌 문양이 주류를 이룬다. 개화기 이후에는 서울 종로 광교천변(廣橋川邊)에 은방도가(銀防都家)가 집중해 있어서 금은세공(金銀細工)의 중심이 되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991 / 성북구, 《성북구지》 20, 1993.

대금산조

大琴散調

기능보유자 : 이생강(李生剛)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1가 11-71

지정연월일 : 1965년.

대금산조는 대금(大琴)으로 연주되도록 만든 산조(散調)이며 기능보유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이생강(李生剛)이 거주한다.

대금(大琴)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횡(橫)으로 부는 피리의 하나로써 그 기원이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고유의 대표적인 악기의 하나이다. 대금은 옛부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황죽(黃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쌍골죽(雙骨竹)으로 만들어진 것을 최고로 친다. 즉 대나무의 양쪽 옆 위에서 밑에까지 도랑이 패어있는 대나무로, 속이 비어 있지 않고 살이 두터운데다가 거의 속이 차 있어 그 살을 패어내 뚫지 않으면 안된다.

피리의 좌상(左上)에 취공(吹孔)이 있고 밑에 청공(淸孔)이 있는데 여기에 갈대 속에 있는 얇은 막(膜)을 붙여 진동시킴에 따라 대금의 맑은 음색을 조장(助長)시킬 수가 있다. 그 밑에는 지공(指孔)이 6개, 그 밑에는 고음(高音)과는 관계가 없는 허공(虛孔)이 5개 있다. 대금을 부는 법에는 저취(低吹)·평취(平吹)·역취(力吹) 3종류가 있는데 저취법(低吹法)은 부드러우며, 평취법(平吹法)은 곧고 굳게, 그리고 가장 높은 음을 내는 역취법(力吹法)은 청월한 음색을 낸다.



산조(散調)란 전라도지방에 무속음악(巫俗音樂)과 관련이 있는 시나위(일명 心方曲 또는 神房曲)를 기조로 해서 여기에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정립한 민속악의 기악독주곡(器樂獨奏曲)이다. 19세기경 가야금의 명인 김창조(金昌祖, 1865~1920)에 의해 처음 창조된 가야금산조가 그 시작인데, 그 후 가야금산조 뿐만 아니라 현금산조(玄琴散調), 대금산조(大琴散調)의 순서로 차례차례로 각 악기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법이나 특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산조음악(散調音樂)을 파생시키는데 기본이 되었다.

대금산조는 대금으로 연주되도록 만들어진 산조를 말한다. 보통 판소리에 사용되는 장단과 선율로 되어 있으나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4~6개의 악장(樂章)으로 구성되는 음악형이다. 대금산조에는 반드시 산조대금(散調大琴)이 쓰여지지만 산조대금은 정악대금(正樂大琴)보다 그 기장이 조금 짧고 취공(吹孔)이 크고 음이 약 2율(律長) 가량 높다. 산조 외에도 민속악을 연주하는데는 지극히 편리하게 되어있다.

대금산조는 20세기 초에 박종기(朴鍾基)에 의하여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며, 그의 가락을 한주환(韓周煥)이 이어받아 이생강에게로 전승시켰다. 대금산조는 크게 두가지로 음악적 특징을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대금산조의 창시자인 박종기(朴鍾基, 1879~1939) 류(類)의 “소리더듬 대금산조”이며, 또 하나는 강백천(姜白川, 1898~1982) 류(類)의 “시나위더듬 대금산조”이다. “소리더듬 대금산조”란 소리 즉 판소리의 가락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을 “시나위더듬 대금산조”란 시나위 가락을 써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대금산조의 특징은 음의 장식적인 농음(弄音, 비브라토와 같은 것)과 즉흥성 등을 들 수가 있다. 산조에서 보여주고 있는 조(調)는 유파(流派)에 의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진양조는 우조(羽調)·평조(平調)·계면조(界面調)로 구성하며, 중모리에서는 경조(京調)와 계면조(界面調)가 주류를 이룬다. 중중모리에서는 계면조가(界面調)가 일반적이고, 자진모리에서도 계면조(界面調)가 중심을 이룬다. 산조의 장단에는 보통 진양·중모리·자진모리가 큰 주(柱)로 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중중모리와 엇모리가 들어가는 일도 있다. 빠르게 연주하는 일이 가능한 현악기(絃樂器)의 경우에는 휘모리가 들어가는 일도 있다.

가락의 붙임새(선율과 선율의 사이에 들여보내는 장식음)에는 붙임·엇붙임·완자걸이·잉여걸이·괴쪽뛰기 등이 있는데, 이들 용어는 가락의 장식적 방법을

꾸미는 일종의 리듬기교를 이르는 것이다.

대금산조의 명인으로는 이생강 외에도 편재준(片在俊)·김광식(金光植)·김동식(金東植)·김동렬(金東烈)·김영동(金永東) 등이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6,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중요무형문화재 제 55 호

소 목 장

小 木 匠

기능보유자 : 강대규(姜大圭)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3동 396-19

지정연월일 : 1988. 4. 1.

목제의 세간들을 만드는 기능자로서 송추만(宋樞萬)·천상원(千相源) 등과 함께 강대규(姜大圭)도 지정되었다.

장롱과 궤함 등을 비롯하여 문방구 등의 세간들과 때로는 각종 목물(木物), 즉 가마·수레·농기구·기타 도구류를 포함하며, 건축상으로는 대목(大木)에 대칭되는 용어로 쓰인다.

건축상 소목의 구실은 창호와 난간·닫집 등 건물에 부착되는 작은 시설물의 제작을 말한다. 고대에는 목수를 재인(梓人)·재장(梓匠)·운여(輪輿)라 했으며, 이는 수레에서 생긴 중국식 명칭이다. 신라에서는 재장이 속해 있는 관서를 마전(磨典)이라 했고, 대목에 해당하는 목척(木尺)은 별도의 전읍서(典畝署)에 속하였다.

소목장이라는 명칭은 고려 때부터 나타나며 조각장·나전장과 더불어 중상서(中尙署)에 예속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서는 일괄하여 목장(木匠)이라 하였는데, 대신 세분화한 수레장(車匠)·선장(船匠)·통장(桶匠)·표통장(表筒匠)·마조장(磨造匠)·풍물장(風物匠)·안자장(鞍子匠)·목소장(木梳匠)·

목영장(木櫻匠)을 두었다. 목장 중 소목에 대해서는 《고려사》와 조선 초 세조 때의 기록에도 보이므로 대목과는 구분하였던 것 같다.

소목장의 기능은 목가구의 제작과 건축상의 소목 일을 포괄하고 있



다. 조선 초기까지는 목가구가 주로 왕실과 상류계층의 소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 널리 보급되고 종류도 잡다해져 지역적인 특성이 현저해졌다. 더구나 지방에서는 목수를 초치해서 필요한 기물을 제작하는 자급자족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목가구는 일정한 규격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반면 건축의 소목 일이 급격히 줄어든 최근세 이후에는 수레나 가구의 제작에까지 자연히 확대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이나 상류계층의 가구는 옷칠과 밀다회(密陀繪)·자개·대모 등 좋은 치레방법이 구사되었지만 서민사회는 제약이 많았고, 특히 선비들이 문방구의 과다한 걸치레를 기피하는 풍조로 말미암아 나무 자체의 재질을 살리려는 생각이 뚜렷하게 격조를 이루어 내었다. 남도(南道)가구가 문목(紋木)을 귀하게 여기는 점이라든가, 문목판의 가장자리에다 회장(回裝)기법으로 뇌문을 돌리는 섬세한 솜씨 등은 모두 그에 연유한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2, 1990/ 성북구, 《성북구지》, 1993.

태 평 무

太 平 舞

기능보유자 : 강선영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10-112 한주빌라 302

지정연월일 : 1988. 12. 1.

태평무는 풍년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뜻에서 북의 명수이자 춤을 잘 추었던 한성준(韓成俊)이 추어 온 방안 춤의 하나이다.

이 춤은 100여년 전부터 추어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주음악이 경기도 무속음악인 진쇠가락을 비롯하여 낙궁, 터벌림, 도살풀이 등의 가락으로 되어있고, 춤 또한 경기지방의 무속춤의 동작이 나온 것으로 보아 경기도 도당(都堂) 곳에서 행해진 무악(巫樂)과 무무(巫舞)를 한성준이 방안춤으로 재구성한 예술적인 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춤은 다른 민속무용에 비하여 특이하고 개성적이며, 예술성이 높다. 또한 동작이 섬세하고 웅아하며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있고, 특히 발딛음이 다양하며 발을 구르는 동작은 이 춤만이 가진 멋이다. 태평무는 한국 춤 중에서 가장 기교적인 발짓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방안 춤으로써 승무(僧舞), 살풀이 춤과 더불어 정중동(靜中動)의 미적형식을 가진 완벽한 춤이라고 할 수 있다.

태평무는 장단이 복잡하므로 가락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춤을 출 수 없다. 생전에 한성준은 손녀 한영숙(韓英淑)과 강선영에게 태평무를 영구히 전승되도록 부탁하고, 작고할 때는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수의를 입히지 말고 태평무 의상을 입혀달라」고 하였을 정도로 태평무를 아꼈다.

한성준의 태평무를 이어온 유일한 고전무용가는 강선영(지정 당시 65세)이므로 이 춤의 전승을 위해서나 국가적 보존의 필요성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 참고자료 :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81호, 1988.





□ 중요민속자료

한국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민속자료이다. 민속자료는 사회가 변하면서 사라진 생활도구, 즉 의식주, 생산·생업, 교통·운수·통신, 교역, 사회생활, 신앙, 민속지식,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대상 중에서 역사적 변천이나 시대적·지역적 특색,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중요한 것을 국가에서 지정하고, 1950년 이전에 축조된 전통 건조물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방 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으로 소재할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집단 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 사영 김병기 일가 옷

▣ 홍진종 의복

사영 김병기 일가 옷

思穎 金炳冀 一家 옷

시 대 : 조선시대 말기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지정연월일 : 1962. 12. 20.

조선말의 문신 김병기(金炳冀)와 그 일가가 입던 옷이다.

김병기는 현종 13년(1847)에 문과에 급제하여 참판 등을 역임하고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밑에서 판돈녕부사까지 지낸 관료이다.

유물에는 김병기의 조복(朝服)의 일부인 적초의·후수·훈상 각 1점과 구군복 2착·전복 2착·제복 1착이 있으며, 부인 송씨의 원삼 1착, 아들 김용규(金龍圭)의 관복 1착, 장손 김승진(金升鎭)의 관복 1착이 있다.

적초의는 홍색무문 숙수로 지었는데 폐슬이 부착되어 있다. 후수는 홍단(紅緞)에 청·황·청·백의 순으로 4쌍의 학과 구름, 작은 꽃이 수놓여 있으며 금환 1쌍이 부착되어 있다. 대와 소수는 백색, 영자(纓子)는 청색으로 되어 있다. 구군복 중 동다리 2점은 길은 주황색, 소매는 홍색, 안은 남색 양태문갑사로 된 겹옷이다. 전복은 4점인데 흑색과 남색의 겹전복 2점, 옥색 홑전복 2점이다. 자색운문사 관복 1점은 소매가 좁은 소례복이며, 흑색빙사의 제복 일습 중에 중단을 제외한 흑단령(黑團領) 훈상·후수 등이 있는데 후수에는 청·황·백 3쌍의 학이 수놓여 있다.



이밖에 무명아청색 배자 1점이 있다. 현록색 운문사 관복은 김승진의 것으로 단학홍배가 부착된 대례복이다. 김병기 부인 송씨의 원삼은 정부인 가자(加資)를 받으면서 하사받은 대례복이라고 하는데 녹색 한단(漢緞)으로 홍·황색의 색동과 한삼이 달려 있다.

이 유물들은 착용자의 신분과 연대가 확실하며 대례복·소례복·평상복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한 시대의 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다.

* 참고자료 : 성복구, 《성복구지》, 1993.

□ 중요민속자료 제 113 호

홍진종 의복

洪鎭宗 衣服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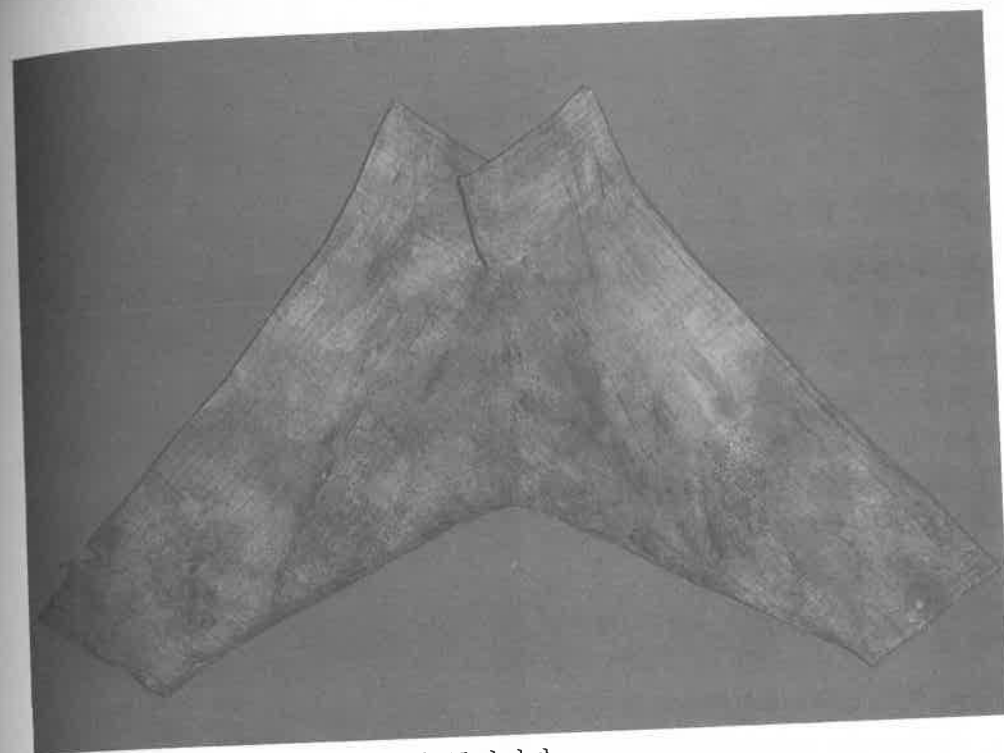
지정연월일 : 1962. 12. 20.

조선 후기 숙종 때의 문신 홍진종(洪鎭宗)의 의복이다.

이 옷은 1968년 경기도 오산읍에서 이장(移葬)할 때 출토된 것으로서 남자바지 3점, 창의(幘衣) 9점, 중치막(中致莫) 1점, 심의(深衣) 1점, 답호(搭護)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남자바지 3점 중 1점은 마루폭을 이중으로 붙여서 만든 무명의 누비바지이고, 2점은 겉과 속이 모두 고운 명주로 만든 바지로 얇게 솜을 두고, 1.5cm 너비로 누벼서 만든 것과 솜을 두껍게 두고 6cm 너비로 누빈 동절용 바지이다.

창의 9점 중에 2점은 소창의이고 나머지 7점은 모두 대창의이다. 소창의들은 소매통이 좁은 착수(窄袖)의 창의로, 모두 누볐으며 소매통은 광수(廣袖)에 비하여 좁으나 진동은 큰 차이가 없다. 대창의는 모두 고운 명주에 솜을 얇게 두고 전체를 곱게 누빈 것들로, 깃의 모양은 반달깃이며 소매는 두리소매이고 옷



자락의 끝이 모두 당코형인 것이 특징이다.

중치막은 단 하나 뿐인데 솜을 두껍게 두고 누빈 것으로, 착수(窄袖)에 뒤가 터져 있으며 양 옆은 막혀 있다. 보통 중치막이라고 하면 소매가 넓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중치막은 좁은 소매이다. 심의는 흰색 저포(苧布)로 되어 있으며 금(襟)·거(裾)·수구(手口)에 전부 흑선(黑襷)이 둘러져 있다. 답호는 앞이 뒤보다 30cm 정도 긴 누비답호인 점이 독특하다.

이들 의복은 숙종 때의 것으로 당시의 복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 참고자료 : 성복구, 《성복구지》, 1993.

□ 서울시 유형문화재

형태가 없는 기술이나 예술을 제외하더라도 모두 유형문화재라고는 할 수 없다. 보통 문화유산을 구분할 때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지정된 문화재 중 '유형문화재'라고 하였을 때는 전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식물이나 광물·경승지 등 자연유산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성터나 고분 등도 분명히 형태가 있지만 '기념물'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와 보물, 그리고 중요민속자료 가운데에서 가옥에 관한 사항을 유형문화재로 구분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서적·고문서, 회화·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기(武具) 등으로 크게 구별되는데 지방유형문화재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향토문화상 가치가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지정한다. 물론 외국에서 전래된 작품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은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호는 장충단비이다.

□ 삼층석탑 / □ 석조 팔각부도

□ 석조 미륵불입상 / □ 석조 비로좌나불좌상

□ 삼군부 총무당 / □ 홍천사 극락보전

□ 홍천사 명부전 / □ 보타사 마애불

□ 보문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 보문사 대웅전 신중도

□ 보문사 지장보살도



삼층석탑

三層石塔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74. 5. 12.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2.2m의 화강석 3층석탑이다.

근래에 만든 기단 위에 올려져 있
는 이 탑은 조각한 장식이 매우 부
드럽고 아름다우며 탑신부(塔身部)의
짜임새가 간결하고도 바르고 아담하
다. 이 탑의 하대석(下臺石)에는 연
꽃을 덮어 놓은 복련(覆蓮)을 새겼
고, 상대 갑석(上臺甲石)에는 봉오리
가 위로 향한 연꽃인 양련문(仰蓮文)
이 양각되어 있다. 상대 중석(上臺
中石)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다만
귀기둥인 우주(隅柱)만이 표현되어
있다.



상대의 중석과 마찬가지로 우주가 새겨져 있는 탑신(塔身)은 2층과 3층 탑신
이 1층 탑신에 비해서 체감률이 심하여 비례가 원만치 못하고, 탑의 지붕돌을
받치는 옥개석(屋蓋石)은 탑신에 비해 둔중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옥개석 부
분의 네 귀퉁이는 모두 약간씩 반전(反轉)되어 있고, 3층 옥개석 위의 상륜부

(相輪部)는 노반(露盤)과 복발(覆鉢)만이 남아 있다.

이 탑은 아담하고 보기도문 작은 탑으로서 고려시대 탑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1, 1989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29 호

석조 팔각부도

石造 八刻浮屠

시 대 : 신라시대(추정)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74. 5. 12.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신라시대의 팔각 원당형(圓堂形)의 승탑이다.

높이 1.6m인 이 부도는 하대석(下臺石)·중대석(中臺石)·탑신(塔身)과 옥개석(屋蓋石)으로 이루어 졌다. 하대석에는 복련(覆蓮)이 양각되고 귀꽃이 돌출되어 있으나 많이 떨어져 나가고 없다. 중대석은 탑신(塔身)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무늬가 없어 단조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육중한 추녀가 약간 반전(反轉)되어 있는 옥개석(屋蓋石)은 옥개 받침이 2단으로 되어 있고, 커다란 귀꽃이 달려 있으며 낙



수면(落水面)은 배가 불러서 마치 우산을 펼쳐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옥개석 정상에는 마치 사발을 얹어 놓은 것 같은 둥근 복발(覆鉢)이 얹혀 있으며, 중간 부분에는 두 줄의 선이 둘러진 다음 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아주 간결하고 바르고 아름다우며 육중한 기품을 풍기고 있는 이 석조 팔각부도는 탑파(塔婆)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 참고자료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30 호

석조 미륵불입상

石造 彌勒佛立像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74. 5. 12.

높이 2.1m의 이 불상은 돌기둥 같은 체구의 장대한 화강석 미륵불이다.

조각 수법으로 보아 고려 중기 이후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얼굴은 신체에 비해서 큼직하고 상체는 짧고, 하체는 긴 편이다. 이 불상은 머리에 큰 상투 같은 육계(肉髻)가 있고 귀는 길게 늘어져 있으며, 눈과 입이 마멸되어 희미하지만 코가 우뚝하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다.

육계는 큼직하며 머리칼은 소발(素髮)의 민머리칼이고, 얼굴은 사각형으로 넓직한 편이다. 이마는 유난히 좁고, 눈·코·입이 큼직하며 뺨이나 턱 등은 완강하면서도 요철(凹凸)있게 표현하여 질박하면서도 박력있게 나타내었는데 이런 모습은 고려 석불에 나타나는 특유한 특징이다.

상체는 사각형이고, 어깨까지 직각으로 처리하여 기하학적 구조를 보여주는 데 가슴 전체 또한 평판적이어서 더욱 돋보이고 있다. 하체 역시 역시 사각형



의 돌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나타내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소 굽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슴에 모아진 두 손과 팔목은 신체에 비해서 눈에 띄게 큼직하며, 그 대신 팔뚝 위는 유난히 가늘어 전반적으로 불균형하게 표현되었다.

법의를(法衣)는 우견편단(右肩偏袒)으로 의문(衣文)은 왼쪽 어깨에서 발목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한 사선으로 되어 있어 투박하면서도 기하학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두 손은 가슴에 올려 모으고 있으며 몸이 긴 석주형(石柱形)으로 되어 있어 몸의 굴곡이 없는 편이다.

이처럼 이 불상은 세련된 형태나 구도의 아름다움은 없지만, 얼굴의 표현이라든지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유연하게 서 있는 모습은 마음속에

간직한 내적 성정(性情)이 아무 과장없이 나타나 있고, 조각 수법이 예스러운 점이 있어 토속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불상이 서있는 간송미술관에는 국보·보물로 지정된 전적(典籍), 공예, 회화 등이 있으며, 이들 유물은 매년 5월과 10월에 기획 전시하고 있다.

* 참고자료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31 호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石造 毘盧遮那佛坐像

시 대 : 고려시대(추정)

소 유 자 : 전성우

소 재 지 : 간송미술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97-1

지정연월일 : 1974. 5. 12.

높이 1.5m의 화강석으로 된 이 불상은 고려시대 중기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북도 어느 절 터에서 간송미술관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불상은 나발(螺髮)의 머리에 육계가 있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다. 사각형 대좌(臺座)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 있으므로 구수한 토속미를 느끼게 하면서도 박력있는 고려 불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육계는 얇고 작아서 거의 무시되고 있으며 나발의 머리칼은 촘촘한 편이다.

얼굴은 네모가 졌으면서도 투실하고 원만한 중에 두 귀는 크게 늘어졌으며 이마는 좁고 코 위의 눈썹은 반월형이다. 눈시울은 통통한데 눈은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고, 코는 길지만 작고 다문 작은 입술이 도톰하여 오도(悟道)의 미소를 머금은 듯한 인상을 풍긴다. 뺨이나 턱도 양감이 풍부하여 박력 넘치게 보이는데 이런 모습은 순박하고 질박한 한국적인 모습으로 이를 불안(佛顔)으로 잘 승화시키고 있다. 현재 코 끝은 파손되어 있다.



상체는 무릎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편인데 어깨는 좁고 움츠린 듯하며 신체
의 양감도 거의 없다. 따라서 가슴에 붙인 손과 팔은 신체에 비해서 월등히 큼
직하게 표현되었다. 결가부좌한 하체 역시 상당히 크며 무릎이 넓고 높직한 편
이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다소 두꺼워진 편인데 옷주름이 촘촘하게 주름
져 있어 의문(衣文)은 형식적이며 얼굴과 함께 투박하면서도 박력있게 보인다.

또한 대좌(臺座)를 갖추고 있는데 사각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으며, 상단의
맨 위에 불상이 안치되고 그 아래로 뚜렷한 복판양련(複瓣仰蓮)이 조각되어 있
다. 이처럼 사각형의 투박한 대좌와 형식적이면서도 친근감 넘치는 불상이 조
화되어 박력있고 정감있는 고려시대의 불상미(佛像味)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
한 특징은 고려 중기 전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며 훌륭한 작품으
로 평가되고 있다.

* 참고자료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37 호

삼군부 총무당

三軍府 總武堂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소 재 지 : 삼선공원 /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512-160

지정연월일 : 1978. 12. 18.

총무당은 조선말 군사업무를 총괄하던 정1품 아문인 삼군부(三軍府) 청사 중
의 중심 건물이다.

현재 정부종합청사 건물(세종로 50번지)에 위치하던 이 관아 건물은 1930년대
에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현재 서울에는 조선시대 관아 건물은 거의 훼손되

어 사라지고 이 건물 외에 육군사
관학교 내의 삼군부 청헌당과 우
정충국, 정독독서관으로 이전된 종
친부 건물 정도만 남아있다.

조선 말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
외척세력을 배제하고 왕권을 강화
하기 위하여 고종 2년(1865)에 310
년 동안 군국사무를 담당하던 국
가의 최고기관인 비변사(備邊司)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정치는 의정부에서 맡도록 하는 한편 삼군부를 설치하여
치안과 국방관계를 담당하게 하였다.

삼군부는 조선 초의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계승한 것으로 훈련도감의 신
영(新營) · 남영(南營) · 마병소(馬兵所)로서, 국가의 중추적인 관아로 삼았다.
그리하여 청사 자리를 광화문 앞의 예조(禮曹: 현재 정부종합청사 자리)가 위치한
곳으로 정한 뒤 고종 5년(1868)에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 때 총무당을 정당(正堂), 즉 중심 건물로 삼고 그 좌우에 청헌당(淸憲堂)
과 덕의당(德義堂)이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덕의당은 흔적조차 없어졌고,
청헌당은 1967년에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로 이전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그 후 삼군부는 훈련도감 · 어영청 · 총융청 · 금위영 · 용호영 등 5개 군문(軍
門)을 비롯하여 전국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에 위세를 떨쳤
다가 개항 이후인 고종 17년(1880)에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건물은 일제 때 이곳으로 이전한 후 1942년부터 경기도 공무원 연수장으
로 사용하다가 서울시 직업훈련원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건물이 낡고
퇴락하였으므로 서울시에서 1979년 8월에 복원공사를 착수하여 이 해 12월 20
일에 완공한 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총무당은 조선조 말기의 전형적인 관아 건물로, 장대석(長臺石)으로 기단을
둘렀다. 평면은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중앙 정면 3칸, 측면 2칸을 대청으로
하고, 좌우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을 두고 그 옆에 정면 1칸, 측면 2칸
의 광을 두었다. 중앙 어간(御間) 창방에는 '총무당(總武堂)'이라는 현판이 있



고, 앞면의 여덟 개 기둥에도 각각 주련(柱聯)이 붙어 있다.

*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66 호

흥천사 극락보전

興天寺 極樂寶殿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흥천사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돈암(2)동 595

지정연월일 : 1985. 12. 5.

흥천사(일명 신흥사)는 조선 초 태조 6년(1397)에 신덕왕후 강씨를 모신 정릉(貞陵)의 조포사(造庖寺)로서 현재 중구 정동에 창건하였던 절이었다.

당시 이 절은 궁중의 원찰(願刹)로서 42수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였으며, 조계종의 본사(本寺)로 삼았던 170여간의 큰 절이었다.

그러나 태종 9년(1409)에 정릉을 현재 자리로 천릉(遷陵)하면서 능 옆에 작은 암자를 만들고 이를 신흥사로 칭하였다. 한편 정동 자리에 있던 흥천사는 연산군 때 불이 나서 폐허로 방치되었고, 중종 5년(1510) 3월에는 유생들에 의하여 사리각 마저 불에 타버려 완전히 폐사(廢寺)되었다.

극락보전이란 십겁(十劫) 이전에 성불(成佛)하고 서방 극락세계에서 대중을 위하여 설법(說法)하고 있는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이다. 이 부처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중생이 염불을 하고 일념(一念)이라도 지심회향(至心廻向)하면 곧 왕생할 수 있게 해주며, 그 때 서방에서 성중(成衆)이 와서 그 사람을 맞이해 간다고 한다. 그 세계에 살게 되면 다시는 전생(轉生)하지 않으므로 생



사의 윤회(輪廻)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락보전에는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살기좋은 극락의 정토세계(淨土世界)로 이끌어 주는 아미타불상과 그 뒷면벽에 아미타불화가 배치된다.

흥천사 내의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八作) 목조 와가(瓦家)로, 철종 4년(1853) 계장(啓壯)스님에 의해 중수된 것이다. 돌층계를 정면에 두고 기둥은 창방(昌防)과 평방(平防)으로 결구(結構)하고 기둥 사이에도 전, 후면에서는 각 2구, 측면에서는 각 1구의 공간포(空間包)를 둔 다포식(多包式) 건물이다.

정면 3칸에는 꽃살 창호(窓戶)를 달고 좌우 뒷면은 판벽(板壁)이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정은 빗천정 가운데 우물천정을 두었다. 이러한 구조와 형태는 조선 말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 시대 건축의 모범이 될만하다.

이 건물은 19세기 사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화려한 목조 건축으로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 주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희귀한 사찰 건축이므로 매우 귀중하게 평가받고 있다.

* 참고자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총람》 제1집, 1995.

흥천사 명부전

興天寺 冥府殿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흥천사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돈암(2)동 595
지정연월일 : 1985. 12. 5.

흥천사 주불전(主佛殿) 앞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은 철종 6년(1855)에 순기(舜麒)스님이 건립하였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목조의 맞배기와집으로 좌우에 풍판(風板)을 달았다.

명부전이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 주는 지장보살을 명부(冥府), 즉 저승의 주존(主尊)으로 모신 것이다. 이곳에는 십왕(十王)을 거느린 지장보살상이 배치되고 그 뒷면 벽에 지장보살 후불탱화(地藏菩薩後佛幀畵)를 중심으로 좌우에 십왕도(十王圖)가 봉안되어 있다. 명부전에 모신 지장보살은 안락한 정토세계로 이끌어 주는 아미타부처를 가까이 모시는 협시보살(脇侍菩薩)이기도 하다. 지장신앙은 신라 때 성행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아미타신앙과 함께 유행하여 널리 믿어진 민간신앙이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의 사찰에는 명부전을 건립하였다.

옛 목조 건물의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도 단순 소박하게 꾸미고 있는 명부전은 조선 말기인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의 불사(佛寺)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참고자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보타사 마애불

普陀寺 磨崖佛

시 대 : 고려 시대
소 유 자 : 승가학원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7
지정연월일 : 1993. 4. 3.

조계종 개운사의 암자(칠성암)인 보타사 대웅전 뒤쪽 화강암 암벽에 조각된 고려시대의 마애불상이다.

이 불상은 1992년 6월 28일에 서울문화사학회가 정기 답사 때 발굴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와 문화재관리국에 각각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공식으로 요청하자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높이 5m, 폭 4.3m되는 거대한 이 보살상은 머리에는 좌우 옆으로 뿔이 있는 관을 쓰고 뿔 끝에는 복잡하게 장식된 타원형 느리개(垂飾)가 늘어져 있다. 얼굴 생김새가 토실토실하며 어깨가 넓고 장대(壯大)한 형상은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광배(光背)와 대좌(臺座)는 없고 비교적 자연스럽고 미감(美感)이 풍부한 표정에 옷은 통견(通肩)으로 표현되어 있다. 최근에 온몸을 흰색으로 도색하여 백불(白佛)의 인상을 풍기는 중에 입술은 붉은색, 눈과 눈썹, 윤곽은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다.

마애불 어깨쪽의 좌우에 홈이 패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전일에는 전각이 꾸며졌던 듯하다. 또 마애불 오른쪽 아래에는 제작 당시에 새겨진 문구가 있다.

이 마애불은 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홍제천변의 보도각 백불(유형문화재 제17호)과 형태와 조각 솜씨가 유사하다.

* 참고자료 : 서울문화사학회, 《서울문화》 창간호, 1994.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98 호

보문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普門寺 大雄殿 靈山會上圖

시 대 : 고종 4년(1867)
소 유 자 : 보문사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지정연월일 : 1996. 9. 30.

보문사 대웅전 내에 그려진 후불탱화로 석가여래가 법화경(法華經)을 설파한 영산회상(靈山會上)의 장면을 묘사하였다.

140cm×180cm 크기의 이 불화(佛畵)는 비단에 채색을 하여 그렸는데 중앙의 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시는 협시(脇侍)보살인 문수·보현보살을 본존(本尊) 아래쪽 좌우에 배열하였으며, 그 위쪽에는 관음·지장보살과 10대 제자상(弟子像), 그리고 화불(化佛) 2위를 본존 두광(頭光) 좌우에 배열하고 화면 사방에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배열하였다.

조선말 고종 때 그려진 것으로 4대 보살과 사천왕상은 모두 두광을 표현하였고, 붉은 색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 시대 불화의 특징이며, 표현 기법이 정교하고 구도에서도 좌우대칭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보문사의 대웅전이 1865



년에 중건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로부터 2년 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④ 서울》, 1994.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99 호

보문사 대웅전 신중도

普門寺 大雄殿 神衆圖

시 대 : 고종 4년(1867)
소 유 자 : 보문사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지정연월일 : 1996. 9. 30.

보문사 대웅전 내의 신중탱화로 서 인도의 재래적인 토속신(土俗神)인 신중(神衆)을 그린 불화(佛畵)이다.

신중은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수용된 불교의 호법신(護法神)들인데 별도로 그림을 그려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140×200cm의 크기의 이 불화는 비단에 채색을 하여 그렸는데 하단에는 위태천신을 중심으로 신장(神將) 그림을 도설하고, 상단에는 제석(帝釋)을 중심으로 하늘의 천인상(天人像) 등을 도설하였다.

색상의 사용법과 표현기법, 제작연대 등은 앞의 대웅전 영산회상도와 같다.

* 참고자료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④ 서울》, 1994.



보문사 묘승전 지장보살도

普門寺 妙勝殿 地藏菩薩圖

시 대 : 고종 4년(1867)
소 유 자 : 보문사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지정연월일 : 1996. 9. 30.

보문사 묘승전 내에 지장보살을 그린 불화(佛畵)이다.

지장보살은 윤회(輪廻)에서 영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이 죽은 후의 명부(冥府)세계의 주관자인데 신앙의 대상이 되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지장보살도이다.



145cm×200cm 크기의 이 불화는 비단에 채색을 하여 그렸는데 중앙에는 지장보살과 그 좌우에 가까이 모시는 무독귀왕(무독귀왕)과 도명존자(道明尊者)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 삼존상(三尊像)의 뒷면에는 금색의 빛을 발하는 원형광배(圓形光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또한 이 삼존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는 명부시왕[冥府十王]과 명부 권속(眷屬)들을 그렸다.

이 불화는 응석(應釋)스님이 그렸는데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당시의 보문사 사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색상의 사용법과 표현기법, 제작연대 등은 앞의 대웅전 영산회상도와 같다.

* 참고자료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④ 서울》, 1994.

□ 서울시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 기술 등 무형적 문화적 소산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우리민족은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항상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때마다 전통적인 기능·예능을 더욱 세련 발전시켜 오면서 대대로 전하여 왔다. 그러한 와중에서 어느 부분의 기능과 예능은 스스로 소멸되기도 하였고, 또는 전란으로 그 명맥마저 끊어져 버린 예도 없지 않다. 실로 오늘날까지 우리 생활 속에 전승·보존되고 있는 기능 및 예능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무형문화재란 그러한 중요한 기능·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솜씨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한 지방무형문화재로 나누어 진다. 기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개인 보유자와 보유단체로 인정을 한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호는 칠장(漆匠)으로 송파구 석촌동 19번지의 신중현이다.

□ 매듭장

매듭장

매듭匠

소재지 : 성북구 성북동 81-2

기능보유자 : 김은영(金銀映)

지정연월일 : 1996. 12. 31.

매듭장은 명주실 을을 꼬아 합사하고 염색하여 끈목[多繪]을 친 다음 이를 갖가지 모양으로 맺거나 술을 다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복식이나 의식용구의 장식으로 사용하는 매듭은 일명 격탑(格搭)·결자(結子)라고 부른다. 외형상으로는 굵은 끈목을 치는 일, 두 가닥의 끈으로 잇대어 맺어가는 일, 그리고 적절한 술을 만들어 치렁하게 늘어뜨리는 일 등 몇 가지 세분된 공정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매듭은 삼국시대 고분벽화에 그려진 허리띠·깃발·말장식·방장 장식 등을 통하여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경공장(京工匠)으로는 상의원(尙衣院)에 다회장(多繪匠)과 매듭장(每緝匠)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다회는 끈목인데 동다회(圓多繪)와 납다회(廣多繪)로 구분한다. 동다회는 동글게 친 끈목으로서 그 자체가 도포끈과 같은 띠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매듭 맺는 끈으로 이용된다. 실띠로 이용되는 경우는 조대라고 기록하기도 한다.

납다회는 날줄에다 씨줄로 무늬놓아 납작하게 직조하는 까닭에 끈의 구실보다는 띠로서 이용한다. 옛부터 여성은 실띠를 띠기 때문에, 위요(圍腰)라 하면 여성의 허리띠를 지칭하며, 또는 편조대·색대자(色帶子)라고 적은 예도 있다.

매듭은 처음 장엄구로 늘이는 유소(流蘇)에 큰 구실이 있었으나 노리개와 같은 장신구로 소품화된 경향이 있다. 즉 기초적인 단추매듭을 비롯하여 맺는 모양에 따라 도래매듭·연봉매듭·동심결매듭·나비매듭·벌매듭·잠자리매듭·



생쪽매듭 · 방석매듭 · 전복술매듭 등 다양하다. 그리고 끈이나 매듭의 하단에 다는 술에 있어서도 봉술 · 딸기술 · 실술 · 방울술 · 낙지발술 · 전복술 · 금전지술 등이 있다.

매듭은 다양한 결구(結構)에서 표현되는 독자적인 조형감과 미묘한 색채호상(色彩好尙)의 조화에서 얻어지는 특성으로 생활미화 전반에 폭넓게 이용되었으나 개화기 이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기능보유자들도 대(代)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으므로 정부는 1968년 12월 매듭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하고, 최은순 · 김희진을 기능보유자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김희진에게서 기능을 전수 받은 김은영이 각종 전시회에서 수상하고 한국전통매듭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외에 전통매듭의 역사와 작품세계를 소개한 저서를 발간하였으므로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 참고자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7, 1988.



□ 서울시 기념물

영리한 진돗개,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인 홍도, 공룡 발자국 화석지, 왜가리 도래지, 동굴, 성터와 고분 등 '기념물'로 분류되는 문화재는 여러 가지이다.

기념물은 국가에서 지정한 사적이나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인데,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등을 지방에서 지정하면 그냥 기념물이라고 칭한다.

만약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명승으로서 저명한 건물이 있는 명승지, 또는 원지(苑址) · 꽃이나 나무 · 어충류 서식지 · 협곡 · 곳[串] · 급류 · 심연 · 폭포 · 호소 · 해안 · 하안 · 도서(島嶼) · 전망이 좋은 곳 · 특이한 산 · 구릉 · 고원 · 평원 · 하천 · 화산 · 온천지 등과 그 밖에 진귀한 동물 · 식물 · 광물 · 관상할 만한 천연풍경을 구성하는 수륙의 여러 사물, 향토의 과거 역사를 회상시키는 천연물 등을 그 지방에서 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 기념물 제1호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잠실리 뽕나무이다.

▶만해 한용운 심우장

만해 한용운 심우장

萬海 韓龍雲 尋牛莊

시 대 : 1933년

소 유 자 : 한영숙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1, 2

지정연월일 : 1984. 7. 5.

심우장은 3·1운동 때 33인 중 불교계의 대표인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 1879~1944)이 1933년에 짓고 만년을 보낸 곳이다.

한용운 선생은 한일합방이 체결되자 중국에 망명하여 방랑하다가 1913년에 귀국하여 불교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불교대전』·『조선불교유신론』을 펴냈으며 1916년 월간 『유심』을 발간하는 등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3·1운동으로 피체되어 복역한 후 1926년에 시집 『님의 침묵』을 펴낸 뒤 신간회에 가담하였다. 1931년 조선불교청년동맹을 결성하고 월간 『불교』를 인수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항일사상 고취에 진력하였다. 1937년에는 항일단체인 만당사건(萬黨事件)의 배후 조종자로 체포되었다.

심우장을 짓게 된 경위는 3·1운동으로 3년 동안의 옥고 끝에 출옥한 한용운 선생이 성북동 골짜기 셋방에서 빈한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때 金碧山 스님이 자기가 초당을 지으려고 송림 속에 사둔 52평을 드리겠으니 몇 간 집을



지어 보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집 지을 1,000원 정도의 돈이 없어 주저하였는데 부인 유씨(兪氏)의 소지금 약간에다 조선일보사 방응모(方應謨)사장과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외에 금융조합에서 대부를 받아 대지 112.99평, 건평 17.8평 규모의 집을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한용운선생은 남향의 집터를 마다하고 그 반대편 산비탈 북향한 곳에 집을 앉힌 것은 일제의 총독부와 등진 곳에 자리를 정한 것이다. 한용운선생은 집을 짓고 그 이름을 '尋牛莊'이라 하였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팔작 기와지붕을 이룬 민도리 소로수장 집에서 한용운선생은 광복 1년 전인 1944년에 중풍으로 운명할 때까지 살았다. 현재 한용운선생이 서재로 쓰던 방에는 위창 오세창(吳世昌)이 쓴 '심우장(尋牛莊)'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심우장이라는 이름은 한용운선생의 아호 중에 만해, 오세인(五歲人), 성북학인(城北學人), 목부(牧夫), 실우(失牛) 등이 있는데 그 중의 목부는 소를 키운다는 뜻인 바 마음 속의 소를 키움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왕생(往生)의 그 길을 멈출 수 없음을 나타내는 의미 심장한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심우장이란 불교의 무상대도(無常大道)를 깨우치기 위해 공부하는 집, 공부하는 인생을 의미한 것으로 그의 수양의 경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집을 지을 당시 소나무숲에 지어진 이 집은 매우 한적하였다. 한용운선생은 청빈한 가운데 정원에 많은 화초를 가꾸는 것을 즐기었는데 지금도 당시에 손수 심은 향나무 한 그루가 높이 자라고 있어 옛 주인의 깨끗한 절의를 말해주는 듯 하다. 이 집을 통하여 온 국민이 3·1독립정신을 고취하고, 아울러 한국 근대사의 일맥을 주지시키기 위한 귀감(龜鑑)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1965년에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심우장의 건너편 대교단지(大敎團地)에는 일본대사관저가 자리잡음으로써 이 집을 지키던 한용운선생의 외동딸 한영숙씨가 이 집을 떠나 이사하자 한 때 만해사상연구소가 사용하였다.

*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동명연혁고》 성북구편, 1983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박경룡, 《서울문화유적》, 1997.



□ 서울시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시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것 중 중요한 것을 민속자료로 지정한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의복이나 관혼상제 용구, 주방용품 등은 사회가 변하면서 많이 사라져 버렸다. 한번 없어진 것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주, 생산·생업, 교통·운수·통신, 교역(화폐·간찰·계산용구 등), 사회생활(형벌용구·경방용구), 신앙, 민속지식(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에서 한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전형적인 것을 국가에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나, 1950년 이전에 축조된 전통 건조물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서울시 지방민속자료로 지정하였다. 서울시 민속자료 제1호는 종로구 명륜동 3가의 관성묘(關聖廟)이다.

▣ 장교동 한규설대감가

▣ 성북동 이재준가

▣ 성북동 이태현가

▣ 장위동 김진홍가

장교동 한규설대감가

長橋洞 韓圭謨大監家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국민대학교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정릉동 855-2 (국민대학교내)

지정연월일 : 1977. 3. 17.

조선 말 한성판윤을 지낸 한규설 대감이 살던 저택이다.

건평 61.58평, 대지 412평의 이 집은 원래 위치인 중구 장교동에서 국민대학교로 옮겨와 1980년 12월 20일 완공하였다. 이 가옥은 189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장교동에 있을 때에는 솟을대문, 사랑채, 안채, 사당, 광채가 넓은 대지 위에 있었다. 현 위치로 옮겨 오면서 없어졌던 솟을대문, 좌우 행랑채를 복원하였고, 본래는 있었으나 철거된 중문간(間) 행랑채와 사잇담도 복원하였다.

한규설은 대한제국 때 의정부 참정(參政)으로 내각을 조직한 인물로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 극구 반대하다가 파직되어 고향에 은거하였다. 후일 중추원 고문 공내부 특진관을 역임하였는데 한일합방 때 일제가 남작(男爵)을 수여하려 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이 가옥은 서울에서 흔히 나타나는 안채의 평면에서는 부엌이 안방의 정면인 남쪽에 붙어 동—서로 면하는데에 비하여 이 안채는 안방 뒤쪽으로 배치되어 안방이 남쪽으로 배치되게 한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대지 모양에 맞추기 위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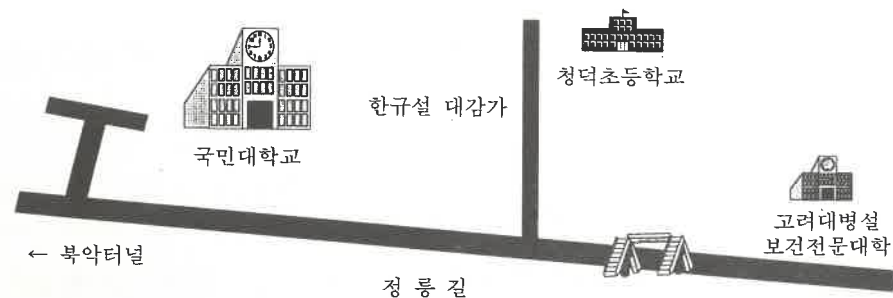
건물은 화강석 기단과 6각 초석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안채, 사랑채, 뒷채의 마루는 모두 우물마루이며 대부분의 창호(窓戶)는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사당(祠堂)이 위치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모두 겹처마이며 전면은 굴도리이나 후면은 납도리이고, 전후면 모두 소로받침을 하



고 있다. 안채 서북쪽에는 'ㄱ'형의 평면을 가진 또다른 별채가 있다. 이 별채는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구성된 서울의 'ㄱ'형 평면에 광채가 연속된 것이다.

이 가옥은 국민대학교 내의 새로 조성된 1,359평 대지 위에 원형 그대로 이 건하여 이 학교의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 참고자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성북동 이재준가

城北洞 李載濬家

시 대 : 1900년경

소 유 자 : 이재준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43-4

지정연월일 : 1977. 3. 17.

성북동 서쪽 골짜기, 장방형의 집터에 지어진 이 집은 서북쪽은 낮은 동산이고 집터 앞은 이 집으로 드나드는 좁은 길이다. 우물이 있는 바깥마당의 동북쪽에는 안채가 있고, 북쪽에는 행랑채가 자리 잡고 있다. 1900년대에 지어진 이 집은 건평이 29.8평에 이른다. 이 집은 사랑채 비슷한 별채의 안채와 이에 부속된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북쪽에는 안채와 북쪽에는 행랑채가 있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3칸인 'ㄱ'자 모양의 평면으로 남향집이다.



대청 옆 누마루에 '일관정(一觀亭)'이라고 쓴 편액을 걸고, 추녀에는 풍경을 달았으며 회색벽돌로 영롱담을 쌓아 집터 주위를 둘러 막았다. 특히 안채로 드나드는 일각대문과 그 바깥마당의 우물가 등은 집터 주위의 수목과 마당의 소나무 등과 어울려 예스런 맛을 주고 있다. 이 집은 살림집이라기 보다 별장 건축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집이라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성북동 이태현가

城北洞 李太賢家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조래혁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48
지정연월일 : 1977. 3. 17.

이 집은 앞에 내를 두고 뒤에 동산을 낀 터에 서남향으로 자리 잡았으며 막돌로 쌓은 화장담에 일각대문(一角大門)이 세워져 있다. 집터 안에는 북동쪽에 몸채 하나만 배치되고, 행랑채 등의 별채는 없다.



1900년대에 지어진 건평 23.2평의 이 건물은 서남향한 '공자(工字)'형의 집으로 평면의 간살이는 보통 'ㄱ'자형 집과 비슷한 데 다만 부엌이 뒤쪽으로 붙어 있어 앞쪽에 누마루를 설치한 것이 다르다. 즉 중앙 2칸을 대청으로 하고 대청의 남쪽에는 한 칸 크기의 안방을 만들고, 안방 앞에는 작은 한 칸 크기의 누마루가 놓였으며, 뒤에는 칸 반 크기의 부엌이 있다.

대청의 북쪽에는 한 칸 크기의 건너방이 배치되고 대청과 건너방 앞에는 툇마루가 길게 놓였으며, 건너방 뒤에는 한 칸 크기의 뒷방이 있다.

기단(基壇)은 다듬돌로 줄을 맞춰 쌓은 네벌대이고, 초석은 긴 육면체로서 위가 약간 좁은 네모뿔대 모양인데 면을 접었다. 기둥은 약간 홀림을 가진 각주(角柱)로 면을 접었으며 도리는 납도리로서 역시 면을 접었다.

정면 4칸, 측면 4칸의 이 집은 별장형 주택의 작은 집이면서도 모든 것이 알

차고 예쁘장하게 의장이 되어 있으며, 특히 감나무, 사철나무를 주류를 한 이 집의 정원은 민가 정원(民家庭園)의 맛을 듬뿍 느끼게 한다. 뒤쪽을 약간 텃밭아서 개축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한옥은 사랑채와 안채로 구분되는데 이 집은 규모는 작지만 사랑채와 안채를 집약시킨 집으로 1900년대의 개량 한옥이 갖는 요소들을 잘 지니고 있다.

* 참고자료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장위동 김진흥가

長位洞 金鎮興家

시 대 : 1925년 추정
소 유 자 : 김진흥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장위동 76-56
지정연월일 : 1977. 9. 5.

건평 107평의 이 집은 조선 말 순조의 둘째 부마 남령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과 복온공주(福溫公主)가 살던 집으로 사랑채 중앙에 '남령재(南寧齋)'란 현판이 걸려 있고, 안방 뒤에는 정자가 있어 공주 집이라는 사실과 연관이 되어 흥미롭다.

이에 따라 남령궁이라고 칭하는



이 집은 사랑채 대청에 따로 보관하고 있는 상량문(上樑文)에 의하면 을축년(乙丑年)에 건축하였다고 써어 있는데 이는 1865년과 1925년에 해당된다. 민속자료로 지정할 당시의 조사자는 이를 1925년에 건립한 것으로 보았다.

건평 107평, 대지 759평의 이 주택의 건물 평면은 처음에 안채를 '口자'로 앉히고 거기에 사랑채를 안채의 대청과 나란히 '一자형'으로 배치하는 '9자형(九字型)'을 기초로 했으나 지금은 '口자'를 두 개 겹친 '쌍구자(雙口字)' 모양으로 되어 있다. '쌍구자'의 서쪽은 큰 집을 배치하고 동쪽은 뒤쪽으로 작은 집을, 앞쪽으로는 사랑채를 앉히고 있다. 사랑채 뒤에는 다시 안채 모양의 집이 있는데 건너방쪽으로 행랑방들을 덧붙여서 사랑 뒷마당을 '口자형'으로 만들고 있다.

안채의 안방 서쪽에는 큰 3칸 크기의 정자가 있는데 「산호벽루(珊瑚碧樓)」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안채 뒤에는 뒤뜰이 시설되고 문간채 앞에는 바깥마당이 있다.

안채는 굽은 형이고 사랑채는 '一자형'으로 방을 배열하였다. 안방은 'ㄱ자'로 꺾고 마당 내부 구석의 각 방들을 들쭉날쭉 처리하여 큰 공간의 변화를 주고 있으며, 시선의 방향에 따른 공간의 분위기를 안정감있게 하였다. 특히 사랑채 앞의 장대석 2단 석축과 후원의 석축은 우리 고유의 멋을 간직하고 있다.

이 집은 윤의선에 입양한 석촌(石村) 윤용구(尹容求 : 1853~1939)가 (大臣)을 내놓고 은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윤용구는 아호를 석촌, 해관(海觀)이라 하고, 장위산인(獐位山人)이라 했으므로 장위동을 장위(獐位)라고 썼다. 이것은 윤판서가 모든 벼슬을 거절하고 은거했다는 뜻이다.

윤용구는 고종 8년(1871)에 정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다음 예조, 병조 판서를 거쳐 을미개혁(1895) 이후 법무, 탁지부, 내부의 대신으로 10여 회나 임명되었으나 모두 거절하고 장위산 밑에 은거하였다. 글씨와 그림에 모두 뛰어났는데 특히 해서와 행서 그리고 금석문(金石文)을 많이 썼으며, 대나무와 난초를 잘 그렸다. 한일합방 후에 일제가 남작을 수여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윤용구가 남령재에 은거해 있을 때 현 장위동 91번지에 동구다리와 현 76번지에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이 다리는 당시 관직의 고하에 따라 하마(下馬)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또 장위동 사람을 잡으러 왔을 경우나 죄인이 장위동으로 잠입했을 경우에도 윤판서의 허락없이는 체포할 수 없었다 한다.

* 참고자료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유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비지정 문화재 및 유적

- ▣ 동활인서 터·돈암장 / ▣ 성저5리 정계비
- ▣ 영성단 / ▣ 숙정문 / ▣ 해화문
- ▣ 동망산신각 / ▣ 개운사 / ▣ 경국사
- ▣ 대원암 / ▣ 돈암동 산신당 / ▣ 미타사
- ▣ 보문사 / ▣ 봉갑리 지석묘 / ▣ 봉국사
- ▣ 안암동 삼층석탑(예산군)
- ▣ 안암동 삼층석탑(봉화군)
- ▣ 안암동 오층석탑 / ▣ 오봉리 지석묘
- ▣ 완왕묘지 / ▣ 인명원지 / ▣ 흥천사
- ▣ 청룡암 / ▣ 석관동 도당 / ▣ 내원사
- ▣ 적조암 / ▣ 정법사

□ 비지정

동·활인서 터 · 돈암장

東 活人署址 · 敦岩莊

시 대 : 조선시대 · 일제강점기

소 유 자 : 사유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

삼선중학교 아래쪽의 청기와집은 전일에 敦岩洞에 있었다 하여 '돈암장'이라 하는데 광복 직후 미국에서 귀환한 이승만(李承晩)박사가 2년간 머물렀던 곳이다.

현재 돈암장 자리에는 조선시대에 빈민환자, 주로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국립의료기관인 동활인서(東活人署)가 있었다. 이 곳에서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원 외에 무당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역귀(疫鬼)를 퇴치한다고 믿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세금과 부역을 면제하였다.

활인서는 기근이 심할 때 역(驛) · 원(院) 등과 함께 구호사업도 병행하는 사회복지기관이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인조 24년(1646)에는 전염병이 만연하여 활인서에 수용된 환자가 699명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으므로, 시설이 부족할 때는 활인서 주변에 막사를 만들어 치료한 것이 확실하다. 이 곳에는 땀을 내고 찜질하고 목욕하는 시설도 갖추고 있었으므로 당시로서는 상당한 의료시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으로 추정된다.

활인서는 만일 환자의 집이 가난하여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국고(國庫)에서 미곡을 공급해 주었다. 하루에 주는 쌀은 1되(升) 정도였으며, 매년 환자의 수를 기록하여 감사에 보고해서 회계를 밝히게 하였다.

활인서는 고려 때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의 후신이었다. 조선 초 태종 때는 활인원(活人院)으로 고치고, 세조 12년(1466)에 활인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후 활인서는 임진왜란 때 폐지되었다가 광해군 4년(1662)에 다시 설치되었으



동활인서 터



돈암장

며, 고종 19년(1882)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 사업은 혜민서와 통합되어 이어졌고 다시 제중원, 대한적십자병원에 계승되었다.

동 활인서는 조선 전기에 동소문 밖 연희방, 현재 이 곳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조선 말 순조 때 저술한 『한경지략』에는 동활인서는 쇠퇴해서 폐지하였다고 하였고, 김정호의 「수선전도(首善全圖)」에는 중구 신당동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조선 후기 정조 때에 중구 신당동 236번지, 304번지 일대로 이전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동 활인서 터는 일제강점기 때 평산(平山)목장이 자리잡아 젓소 등을 길렀는데, 이송래가 이 곳에 청기와로 기와집을 짓고 이를 소유하였다.

광복이 되자, 1945년 10월 16일 33년 만에 고국 땅에 내린 이승만박사는 조선폰텔에 여장을 풀었다. 그러자 설산 장덕수선생은 돈암장이 정원도 넓고 언덕이 있어서 전망이 좋으므로 이 곳을 숙소로 정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이승만박사는 시중들 사람이 없다고 주저하다가 입주하게 되었다. 이승만박사가 돈암장으로 옮기자 수많은 정치인들이 매일 이 집에 운집하여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었다.

이승만박사가 2년간 돈암장에 머문 동안은 미군정기의 혼란한 시기여서 각종 사건이 일어났다. 그 중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자 이 집에 모인 우익 정치인들은 좌익계열의 찬탁(贊託)에 맞서 반탁(反託)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승만박사는 2년간 돈암장에 머물다가 마포장으로 이전하였다. 이어서 다시 종로구 이화동의 이화장(梨花莊)으로 옮긴 후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경무대(景武臺: 현재 청와대)로 입주하였다.

현재 돈암장 남쪽 정원의 대부분은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한 관계로 대지가 축소되어 옛모습을 찾을 수 없다.

* 참고문헌 : 손성우 편저, 《한국지명사전》, 1977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박경룡, 《서울문화유적》, 1997.

□ 비지정

성저5리 정계비

城底五里 定界碑

시 대 : 조선시대 태종 10년(1410)
소 유 자 : 국유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정릉동 403-6

조선 초 한양 천도 후 한성부 관할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이다.

한성부는 도성 밖의 5리~10리까지 관할구역으로 삼고 이를 나타내는 표석을 도성 주위 사방에 세워 놓았으나 오늘날에는 이 비석만 남아있다. 조선시대에 도성 밖의 한성부 관할구역은 성저5리(城底五里) 또는 성저10리(城底十里)라고 칭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성저10리는 동쪽으로는 양주의 송계원(松溪院)과 대현(大峴)까지 였고, 서쪽으로는 양화도 및 고양(高陽)의 덕수원(德水院)까지 였다. 남쪽으로는 한강과 노도(露渡)까지 였다.

태조 이성계는 도성 안과 성저10리 전역을 5부(五部) 52방(坊)로 나누어서 행정을 집행하게 하고, 태조 5년(1396)에는 한성부에 명하여 방명표(坊名標)를 세우게 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에 성저5리정계비나 성저10리정계비를 세워 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76cm, 너비 42cm, 두께 24cm 크기의 이 비석은 그 정면에 '성저5리 정계입표 경인 3월 일(城底五里 定界立標 庚寅三月 日)'이라 새겨 있으므로 경인(庚寅)은 태종 10년(1410)으로 추측된다. 이 비는 1970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경복궁 근정전 회랑(廻廊)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시멘트로 된 표석을 세워 놓았는데, 현재는 그 표석마저 없어져 성저5리 정계비가 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참고문헌: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비지정

영성단

靈星壇

시 대 : 조선시대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75

별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일명 성단(星壇)이라고도 부르고, 기우제를 지낼 때에는 용단(龍壇)이라고 불렀다.

농사가 잘 되도록 곡식과 농사를 맡은 별에 제사를 지냈는데 풍운뇌우(風雲雷雨)와 우사(雩祀) 등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이 서울 남쪽에 단을 만들었다. 이 단은 그 후 혜화문 밖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들어섰으므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영성제는 3국시대부터 해마다 지내온 것으로 나타나고, 영성단은 고려 때 처음 설치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그 유제(遺制)에 따라 한양 천도 후에 설치하고 입추 후에 진일(辰日)을 택하여 제사를 지냈다.

영성단의 신좌(神座)는 북쪽에 있어 남향하고 있었는데, 단의 규모는 정사각형으로 한변의 길이가 6.3m, 높이는 0.75m 정도이며 사면으로 담을 쌓아 출입을 통제하였다. 섬돌이 있고, 담장 안은 사방이 25보(步)였으며 단의 남쪽에는 출입문이 있었다. 너비는 0.6m 정도 되며 위로 열고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단의 남쪽에는 요단(燎壇)이 있었는데 한 변의 길이는 1.5m 정도 되었다.

단 위에는 영성의 신좌(神座)와 용의 왼쪽 뿔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안치되어 있었다. 용의 왼쪽 뿔은 하늘의 농토와 곡식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지상에 서도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는 뜻에서 모셔 놓은 것이다.

* 참고문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비지정

숙 정 문

肅 靖 門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국유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삼청터널 위의 자리한 숙정문은 남대문·동대문·서대문과 함께 서울성곽 4대문의 하나로 속칭 북문(北門)이었다.

서울의 정북에 위치한 이 문은 처음에는 숙청문(肅淸門)이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숙정문(肅靖門)으로 개칭되어 중종(中宗) 이후의 실록에는 모두 숙정문으로 기록되고 있다.

4 소문의 하나인 창의문(彰義門)과 함께 양주(楊州)와 고양(高陽)으로 왕래하는 통로로 이용되기도 한 이 문은 서울성곽의 다른 문과 같이 태조 5년(1396)



에 창건되었다. 이 문은 연산군 10년(1504)에 원래의 위치에서 약간 동쪽인 지금 자리로 이전하였는데 이때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로 된 석문(石門)만 세우고 문루(門樓)는 세우지 않은 듯하다. 1975년 서울특별시에서 무너진 문루를 복원하려고 할 때 석문만 있었느냐 아니면 문루도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차례 토론을 거쳐, 태조 때 문루가 건축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복원한 뒤 숙정문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조선 초의 기록을 보면 풍수설과 음양설에 따라 숙정문을 닫아 두었거나 열어 놓기도 하였다. 그 예로 태종 13년(1413) 6월에 풍수학자 최양선(崔揚善)이 풍수지리학상 경복궁의 양팔이 되는 창의문과 숙정문을 통행하는 것은 지맥(地脈)을 손상시킨다는 상서(上書)가 있자, 마침내 이 문을 폐쇄하고 길에 소나무를 심어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였다.

그 후 태종 16년(1416)에는 기우절목(祈雨節目)을 만들어 가뭄이 심하면 숙정문을 열고 남대문을 닫았으며, 비가 많이 내리면 숙정문을 닫고 남대문을 열게 하였다. 즉 가뭄이 심하면 먼저 종묘·사직과 명산(名山)·대천(大川)에 기우제를 지내고,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남대문을 닫고 숙정문을 열어 놓는다. 그리고 시장(市場)을 옮기고 보신각의 종을 치는 대신 쟁(鐙)을 치게 하였다. 이는 북은 음(陰)이요, 남은 양(陽)인 까닭에 가뭄이면 양을 억제하고 음을 부양하는 음양오행설에서 나온 것이다. 예종 때의 기록에도 몹시 가뭄이면 종로의 시장을 구리개(현 을지로 입구)로 옮기고, 남대문을 닫은 다음 북문, 즉 숙정문을 열게한 뒤에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이규경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숙정문을 열어 놓으면 서울 장안의 여자가 음란해 지므로 항상 문을 닫아 두게 되었다고 소개 하였다. 이것도 숙정문이 음방(陰方)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상원(上元 : 음력 정월 대보름) 전에 민가의 부녀자들이 세번 숙정문에 가서 놀면 그 해의 재액을 면할수 있다는 말이 전해온다고 하였다. 이는 숙정문 부근의 자연풍경이 아름다워 도성의 사녀(士女)들이 자주 이곳을 찾아와 놀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오래도록 비가 오면 승례, 흥인, 돈의, 숙정문에 나가서 비 개이기를 비는 제사인 영제(榮祭)를 지냈다.

조선시대 선조 때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峰類說)》을 보면 숙정문 밖 한 바위 틈에서 액체가 흘러 나오는데 맑을 때는 마치 막걸리빛 같고 진할 때는 맥과 같아서 사람들이 다투어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숙정문 밖의 쌀바위[米岩]전설이 남아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옛날 하루 세차례씩 1되 가량의 쌀이 나왔는데 나뭇군노인이 욕심이 생겨 이 바위에 지키고 앉아 쌀이 나오는 대로 자루에 담아 가득 채우기를 한 달 가량 계속 했더니 쌀대신 끈적끈적한 물이 나왔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비지정

혜 화 문

惠 化 門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가 1-1

속칭 동소문으로 불리우는 이 문은 서울성곽 4소문 중의 하나이다.

혜화동로타리에서 동소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턱에 자리한 이 문은 동대문과 숙정문 사이에 위치하였다.

이 문은 4 소문 중의 하나이지만 4 대문과 같



은 역할을 하였다. 북쪽의 숙정문이 항상 닫혀 있으므로 함경도 등 북방으로 통하는 경원가도(京元街道)의 관문 역할을 하였다. 조선왕조가 한양에 천도한 후 태조 5년(1396)에 서울성곽을 축조하고 성문을 낼 때에 혜화문은 홍화문(弘化門)이란 명칭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도성 동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동소문으로 불렸는데 조선 초 성종 14년(1483)에 창경궁을 새로 건립하면서 동문(東門)을 홍화문이라고 명명하자 동소문과 혼동되므로 중종 6년(1511)에 동소문을 혜화문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한편 조선 초에는 북방의 여진족 사신의 숙소가 동대문 옆(지금의 이화여대 부속병원 자리)에 북평관(北平館)이 있었다. 이들 사신이 서울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이 문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규모가 큰 문루가 있어 위용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여진족이 세운 청(淸)나라 사신이 명나라 사신이 출입하던 서대문으로 바뀌면서부터 혜화문의 관리는 소홀해져 문루(門樓)가 무너지고 홍예(虹霓)로 된 석문(石門)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 후 영조는 왕 20년(1744)에 어영청(御營廳)에 명하여 무너진 문루를 복원하게 하고, 당시의 명필인 조강이(趙江履)로 하여금 '혜화문'이라고 쓴 현판을 새로 달게 하였다. 그런데 이 문의 문루의 천정에는 봉황(鳳凰)을 채색으로 그린 것이 특색이었다. 그 이유는 문 밖, 그러니까 지금의 동소문동, 삼선동, 동선동 일대에 참새 등이 많아 농사에 피해가 컸으므로 새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새의 왕인 봉황을 그렸다는 것이다.

이 문은 순조 16년(1816)과 고종 6년(1869)에 보수하였는데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에는 일체 보수하지 않았으므로 퇴색하게 되었다. 이에 일제는 도시계획이라는 핑계와 건축물이 퇴색하였다는 구실을 붙여 1928년에 문루를 헐어 내었고, 1939년에는 을지로 4가~돈암동간의 전차(電車)를 부설하면서 도로를 아치 성문마저 헐어 버려 조선왕조 5백년간 의연히 서 있던 혜화문은 자취를 잃고 혜화동, 동소문동이라는 동명(洞名)만 전해 왔다.

혜화문이 훼손된 지 55년만에 본래 그 자리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1994년 10월 18일, 혜화동고개에 혜화문을 옛 모습대로 복원하여 세워 놓았다.

* 참고문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동망산신각

東望山神閣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동유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209-92

조선 초 단종비(端宗妃) 정순왕후 송씨가 매일 조석으로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단종의 명복(冥福)을 빌었던 곳에 산신을 제사하기 위하여 지은 사당이다.

청룡사 동쪽 앞에 우뚝 솟은 바위산을 동망봉이라 하는데, 이 곳에는 송인공원(일명 동망산공원)이 있다. 송인동과 보문동의 경계가 되는 동망산 서쪽 부분은 일제 때부터 광복 후까지 채석장으로 쓰였으므로 산의 반쪽은 사라져 절벽이 되었다.

단종비(端宗妃) 정순왕후 송씨는 현재 청룡사 자리인 정업원(淨業院)에서 시녀와 같이 지내면서 매일 조석으로 이 산에 올라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단종의 명복(冥福)을 빌었기 때문에 동망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 당시 동대문 밖에서 노산군으로 격하된 단종과 눈물의 이별을 한 송씨는 영월쪽을 바라볼 수 있는 동망봉 부근에서 머리를 쥐고 희안(希安)·지심(智心)·계지(戒智) 세 시녀를 데리고 정업원 암자에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지냈



다. 이에 조정에서는 근방에 집을 지어주고, 이 곳을 영빈정동(英嬪貞洞)이라 부르게 하였으나 송씨는 끝내 그 집에 들지 않고 정업원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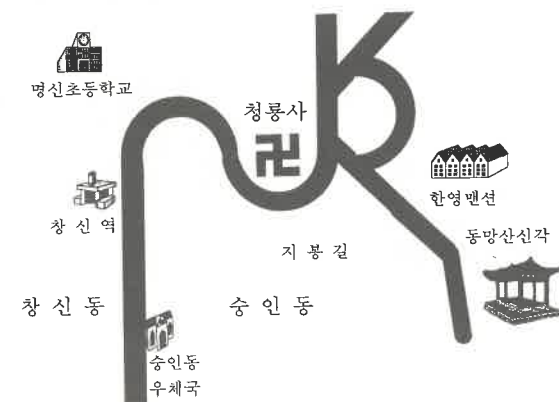
송씨는 아침 저녁으로 동망봉에 올라 영월쪽을 바라보며 단종의 평안을 빌었으나 헤어진 지 4개월 뒤인 세조 3년(1457) 10월 4일, 영월에서 노산군이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이후부터 송씨는 동망봉에 올라 단종의 고혼(孤魂)이 헤매는 영월을 바라보며 명복을 빌었다.

조선 후기 영조 47년(1711)에 영조는 창덕궁에 갔다가 현재 동대문구 송인동인 연미정동(燕尾汀洞)의 정업원을 들러 단종비 송씨의 옛일을 물어보았다. 이때 전 참판(參判) 정운유(鄭運維)가 불러 와서 말하기를 세조가 송씨의 의지할 곳이 없음을 측은히 여겨 성안에 집을 마련하여 주고자 하였으나 송씨가 동대문 밖에서 동쪽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곳에 거처할 것을 원하였으므로 재물을 내려 집을 꾸민 것이 정업원이라고 하였다.

영조는 지난날의 일을 듣고나서 친히 청룡사 자리에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는 글을 써서 비석을 세우게 하고, 또한 '동망봉(東望峰)'이란 석자를 써서 정순왕후 송씨가 올랐던 바위에 새기게 하였다. 그러나 일제 때 채석장이 되면서 바위가 깨어져 나가 글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재는 동망봉 정상 주위에까지 주택이 밀집하여 바위산 봉우리의 옛모습은 찾을 수 없는데 정순왕후가 영월로 귀양간 노산군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던 곳에는 동망산신각이 세워져 있다. 이 산신각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15세기경에 호랑이가 출몰하여 인명과 가축의 피해가 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당을 짓고 산제(山祭)를 지내기 위해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주민들은 매년 음력 10월 초하룻날이면 이 산신각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 참고문헌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개 운 사

開運寺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개운사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안암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개운사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한국 불교 개혁의 근원지이고, 불교 교육의 근본도량인 중앙승가대학이 있다.

이 절은 조선 초 태조 5년(1396)에 왕사(王師)인 무학대사가 동대문 밖 5리 정도 되는 안암산 기슭, 현재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부근에 절을 짓고 영도사(永導寺)라고 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 정조 3년(1779) 5월에 정조의 후궁 원빈(元嬪) 홍씨가 세상을 떠나자 영도사 자리에 묘소를 정하고, 명인원(明仁園)이 세워지자 인파당(人波堂) 축홍(竺洪)스님이 영도사를 동쪽으로 몇 리 떨어진 현재의 자리에 절을 옮겨 지었다고



하였으나 '사기(寺記)'라는 문헌에는 영조 6년(1730)에 영도사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도사가 개운사로 이름을 바꾼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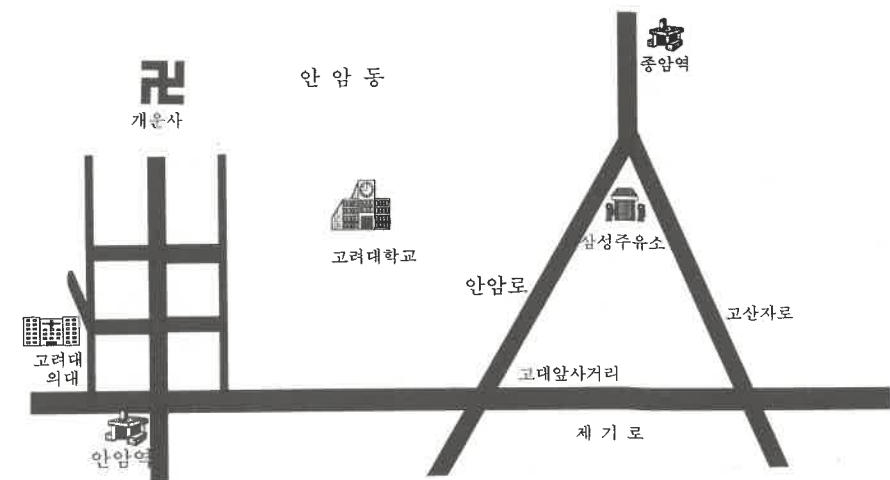
개운사는 20세기 이후에 한국 교육불사와 불교의 진보적인 운동을 주도해 왔다. 1926년 근대 불교의 대석학이었던 박한영스님이 머물었고, 이 절의 암자인 대원암에 탄허(呑虛)스님이 머물면서 역경(譯經)사업에 종사하였다.

이 절은 현재 조계종이지만 최근까지 태고종에서 관리하였으므로 1955년에 대처승 주최로 전국포교사대회(全國布教師大會)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1년부터 중앙승가대학이 이곳을 교육도량으로 사용하면서 현대사 속에서의 개운사 전통을 꽃피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선말 고종 10년(1873)에 명부전을 세우고 나서 7년 후인 1880년에는 이벽송(李碧松)대사가 대웅전을 중건하고, 그 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절은 현재 대대적인 중건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경내에는 현대식 건물로 지은 지상 5층의 중앙승가대학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 절의 암자로서 대원암(大圓庵)과 보타사(普陀寺 : 안암동 5가 157)가 절 동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 보타사 대웅전 뒤의 암벽에 5m 크기의 마애석불(磨崖石佛)이 발견되었으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9호로 지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④ 서울》, 1994.



경 국 사

慶 國 寺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경국사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정릉(3)동 753

경국사는 북한산 동쪽에 자리한 고려시대의 사찰이다.

‘경국사 사적기’에 의하면 670년 전 고려 충숙왕 12년(1325)에 자정율사(慈淨律師)가 창건하여 청암사(靑巖寺)라 하였다. 절이 위치한 곳이 청봉(靑峰) 아래였으므로 청암사라고 붙인 것이다.

자정율사는 충숙왕으로부터 국존(國尊)으로 존경받았던 고려 후기의 스님이다. 창건 이후 1330년경에 무기(無奇)스님이 머물면서 천태종의 교풍을 크게 떨쳤으며, 충혜왕 1년(1331)에는 부정축재로 거금을 모은 권신 채홍철(蔡洪哲)이 선방(禪房)을 증축하여 선승(禪僧)들의 수도를 적극 후원하였다. 고려말인 1352년에는 금강산 법기도장(法起道場)을 참배하고 남하한 인도승 지공(指空)이 이 절에 머물렀다.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누르고 유학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이 절은 퇴락하였다. 인종 1년(1545)에 왕실의 도움으로 중건되고 이듬 해에는 명종의 모후 문정왕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다. 절이 중수되자 성대한 낙성식과 함께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발원하는 호국대법회를 열었다.

‘경국사 사적기’에는 문정왕후의 중창 이후 ‘부처님의 가호로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항상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청암사를 경국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현종 10년(1669)에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을 복원하면서 부근의 약사사를 봉국사로 중창·개칭하고, 홍천사와 함께 정릉의 원찰(願刹)로 삼을 때 이 청암사도 원찰로 지정되어 경국사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절은 숙종 때 연화 승성스님, 영조 때 난암 의눌스님이 중수(重修)하였으며, 철종 때는 예봉 평신스님이 법당을 다시 세우고 고종 1년(1864)에는 고종의 등극을 축하하는 제를 열기도 하였다. 고종 5년(1868)에는 칠성각과 산신각을 새로 짓고 호국대법회를 열었는데 이 때 왕실에서 범종을 보시[布施] 하였다.

일제 때인 1921년부터는 단청(丹青)과 탕화(幀畵) 조성에 일가를 이루었던 보경(寶慶: 1890~1979)스님이 60년간 주지로 머물면서 절을 새롭게 변모시켜 나갔다. 보경스님은 교학과 선지(禪智)를 두루 익히고 계율에도 철저하여 승가의 귀감이 되었고,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서 민족의 정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민족문화의 전승에 있다고 생각하여 전통 불상조각과 불화화법을 익혀 대가를 이루었다. 1950년대에는 이승만대통령이 보경스님의 인격과 태도에 감화되어 몇 차례나 찾아왔고, 1953년 닉슨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였을 때도 이 절을 찾아왔다. 그 후 지관(智冠)스님이 1979년에 주지를 맡아 활발한 포교활동과 절의 내실을 다졌다.

따라서 이 절은 고승대덕의 수도처이자 호국안민을 위한 기도 도량[道場]으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④ 서울》, 1994.

□ 비지정

대 원 암

大 圓 庵

시 대 : 조선시대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8

개운사 동쪽 골짜기에 있는 개운사의 암자이다. 이 암자는 조선 현종 11년(1845)에 지겸이 창건하고 1927년에 영호가 강원을 개설하여 1938년에 독서당 4칸을 중건하였다.

이 암자에는 탄허(呑虛)스님이 머물면서 역경사업에 종사하였다.

* 참고문헌 : 손성우 편저, 《한국지명사전》, 1973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 비지정

돈암동 산신당

敦岩洞 山神堂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동유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6-56

이 산신당은 벽돌로 쌓았으며 지붕은 슬레이트로 덮었고, 당의 둘레에는 원 새끼로 꼰 금줄이 쳐져 있었다. 당의 크기는 가로 2m, 세로 2.5m 이며 기와를 얹은 1칸 크기의 당이었다고 한다. 당 안에는 전면에 산신의 화상이 걸려 있었고,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산신당의 유래는 알 수 없으며, 지금은 재개발 사업으로 자취를 찾을 수 없다.

* 참고문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비지정

미 타 사

彌 陀 寺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미타사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3-51

탑골 승방(僧房)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비구니들이 수

행하는 도량[道場]답게 단아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조계종 소속 사찰로 보문사 옆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절은 고려 초 광종 원년(950)에 혜거국사(惠居國師)가 처음 창건하고, 충숙왕 원년(1314)에 혜감국사(慧鑑國師)에 의하여 중건되었다고 하는데 고려 때 고승(高僧)인 혜거국사와 혜감국사의 비문(碑文)에는 이 절을 개창, 중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고려시대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한편 고려 초 문종 원년(1047)에 이 절에 석탑을 쌓자 이 근처를 탑골[塔洞]이라고 부르면서 미타사를 탑골 승방[塔洞僧房]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따라서 탑골 승방은 인근의 보문사보다 미타사를 지칭한다고 본다. 조선시대에 탑골 승방은 옥수동의 두물개 승방, 석관동의 돌곶이 승방, 송인동의 새절 승방(청룡사)과 함께 여승들이 거처하는 성 밖의 네 이사(尼舍) 중의 하나로 꼽혔다.

이어서 조선 초 세조 3년(1457)에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에 의하여 중수(重修)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미타사 서쪽, 송인동의 정업원·동망봉·자지동천 등에 정순왕후와 관련된 사실이 있음으로 보아 이 절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말 순조와 헌종 때 각각 이 절을 중수한 데 이어 1969년에 송계주(宋季珠) 주지스님이 중수하였다.

이 절 대웅전 뒤의 단하각(丹霞閣) 왼쪽 언덕 위에는 오래된 석탑 하나가 서 있는데 조성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5층까지는 석재가 같은데 6층과 상륜부는 석재와 조각이 다르다. 6층은 그 조성시대가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며, 아울러 기단에는 일부 석재를 보강한 흔적이 있다. 이 석탑이 있었으므로 얼마전까지 보문동 일대를 「탑골」, 이 절을 「탑골승방」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 절의 대웅전은 지하와 지상 1·2층의 목조 기와로 지어져 2층을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며, 법당 내부에는 아미타 삼존불상과 5종의 탱화[幀畵]가 봉안되어 있다. 그 중에는 1863년에 제작된 신중 탱화도 있다.

이 절의 대웅전은 지하와 지상 1·2층의 목조 기와로 지어져 2층을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며, 법당 내부에는 아미타 삼존불상과 5종의 탱화[幀畵]가 봉안되어 있다. 그 중에는 1863년에 제작된 신중 탱화도 있다.

*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박경룡, 《서울문화유적》, 1997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④ 서울》, 1994.

□ 비지정

보 문 사

普 門 寺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보문사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인근의 미타사와 같이 탑골(塔洞)에 있었으므로 「탑골 승방」이라고 잘 알려진 이 절은 전에 조계종 소속이었으나 1972년 세계 유일의 비구니종단인 대한불교 보문종(普門宗)을 창시하여 그 본산이 되었다.

「보문(普門)」이란 뜻은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몸 전체의 온갖 덕(德)을 보(普)라 하고, 쓰임을 나타내는 곳을 문(門)이라고 하므로 보문은 보살이 일체 성덕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기회와 시기를 따라 그 효용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만여평의 대지 위에 대가람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보문사는 비구니들이 거처하는 조용한 암자이다. 보문사는 처음 고려 예종 10년(1115)에 담진(曇眞)스님, 즉 혜조국사(慧照國師)에 의하여 창건된 것으로 전승되어 오는데 조선 후기 숙종 18년(1692)에 묘첨(妙僉)스님이 대웅전을 중건하였고, 영조 33년(1757)에 보찬, 유봉스님이 대웅전을 수축하였다. 순조 26년(1826)에 정운(正雲)스님이 좌우승당(左右僧堂)을 개축하였으며 현종 8년(1842)에 영전스님이 또 다시 대웅전을 수축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절이 황폐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광복과 함께 주지 송은영(宋恩榮)이 취임하면서 30여년간을 불사(佛事) 중흥과 건물 중창에 전심하여 대사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송은영주지는 석굴암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을 새롭게 짓고, 보문종이라는 독립된 종단을 설립함으로써 비구니들만의 고유한 수행풍토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 절은 1972년 대한불교 보문종으로 등록된 후 이 해 6월 16일, 경주의 신라 석굴암을 본 따 사찰 뒤쪽의 보문산 돌산에 석굴암을 조성하였다. 1970년 8월부터 23개월간 진행된 이 불사에는 약 4,500여명에 이르는 조각가·석공이 종사하였고, 2,400톤의 화강석이 사용되었으므로 이 절의 대표적인 불사(佛事)로 알려져 있다.

이 절의 대웅전 영산회상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8호, 대웅전 신중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9호, 지장보살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0호로 1996년에 각각 지정되어 있다. 한편 석굴암 앞의 팔각 9층석탑은 1978년에 오대산 월정사의 탑을 본따서 조성하고,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내부에 봉안 하였다.

보문사 스님들의 범패(梵唄)는 잘 알려진 중요한 무형자산이며, 이 절의 청정도량의 분위기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없는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

* 참고문헌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박경룡, 《서울문화유적》, 1997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④ 서울》, 1994.

□ 비지정

봉갑리 지석묘

鳳甲里 支石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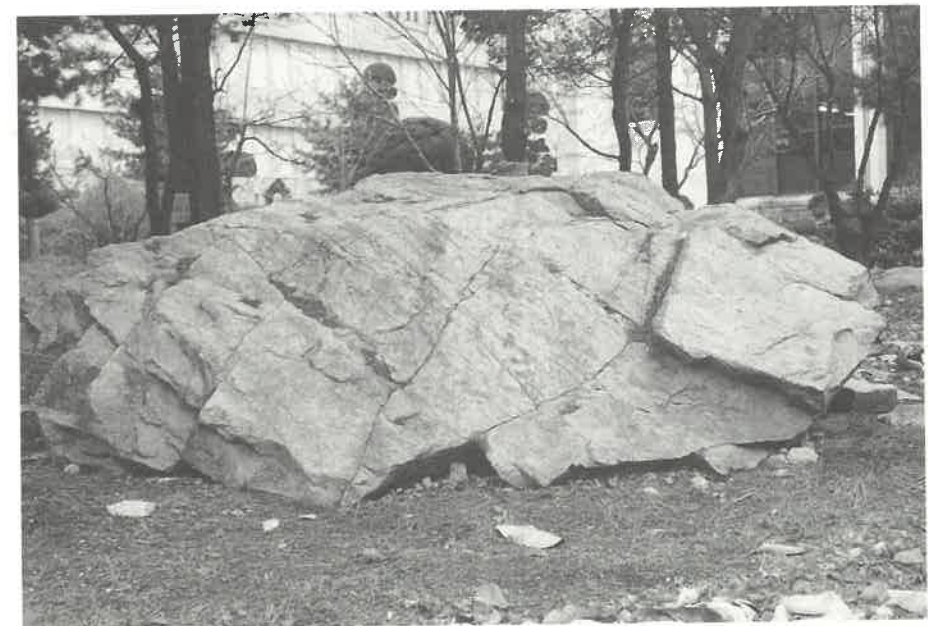
시 대 : 청동기 시대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이 지석묘는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1987년 8월 주암(住岩)댐 수몰 지역 문화유적 발굴 조사 때 전남 보성군 문덕면 봉갑리, 보성강(寶城江) 유역의 돌출된 낮은 구릉의 말단 부분에 14 기가 군집 분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출토 유물로는 마제석촉(磨製石鏃), 삼각형석도(三角形石刀) 등이 있는데 1989년 10월 30일 현재의 자리로 이동 전시하였다.

* 참고문헌 : 尹武炳, <봉갑리 고수월 지석묘>, 《주암댐 수몰지역 문화유적발굴 보고서 3》, 1988.



□ 비지정

봉 국 사

奉 國 寺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봉국사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정릉동 637

봉국사는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의 원찰(願刹)로 정릉길 옆에 위치한 조계종 소속 사찰이다.

이 절은 고려말 공민왕 3년(1354)에 나옹대사(懶翁大師)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는 설도 있고, 조선 초 태조 4년(1395)에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당시 왕사(王師)였던 무학대사에 의해 창건된 호국 사찰로 약사사(藥師寺)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법당에 약사여래를 봉안한 관계로 약사사라 하였다. 조선 후기 현종 10년(1669)에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정릉을 수봉(修封)하고 태묘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정릉의 사초(沙草)를 새로 하는 동시에 정자각(丁字閣), 안향청(安香廳), 전례청(典禮廳) 등을 새로 세우면서 이 절을 원찰(願刹)로 하였다. 이 때 나라를 받든다는 뜻에서 절 이름을 봉국사로 고쳤다.

그러나 이후의 절 역사는 잘 알려지지 않으며 조선말 임오군란(1882) 때 봉국사가 소실된 것을 한계(漢溪)·덕운(德雲) 두 스님이 힘을 모아 이듬해에 중건하였다. 그 후 1898년에 명부전을 중건하고, 1913년에는 칠성각을 중건하였다. 1979년 10월에는 절 입구에 일음루(一音樓)를 건립하였고, 1994년에는 안심



당을 지어 스님들의 수행정진과 신도들의 신행처로 사용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④ 서울》, 1994.

□ 비지정

안암동 삼층석탑 (예산군 소재)

安岩洞 三層石塔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고려 중기(추정)에 건조된 높이 3.31m의 삼층석탑이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모사리에 소재했으나 1962년 1월 5일에 고려대학교 박물관으로 이동 전시하였다. 기단부(基壇部)의 하대갑석(下臺甲石)은 1매로 그 4면에는 보상화문(寶相花文)이 대칭되게 새겨져 있으며, 상대갑석(上臺甲石)은 가장자리로 연판문(蓮瓣文)이 양각되어 있다. 또한 기단부에서 탑신부까지의 옥개석과 옥신은 일정한 비례로 축소되어 안정감을 준다. 2, 3층 옥개석 추녀 모서리의 각각 세부분은 후대에 복원하였다.

* 참고문헌: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비지정

안암동 삼층석탑 (봉화군 소재)

安岩洞 三層石塔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고려 중기(추정)에 건조된 높이 3.7m의 삼층석탑이다.

경북 봉화군에 소재 했으나 1987년 3월 13일에 고려대학교 박물관으로 이동 전시하였다. 기단부의 하대갑석은 1매의 큰방형으로 되어 있고, 옥개석(屋蓋石)의 낙수면(落水面)은 두터우며 추녀 모서리는 반전이 알아 전체적으로 단아한 감을 준다. 상륜부(相輪部)는 후대에 복원하였다.

* 참고문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비지정

안암동 오층석탑

安岩洞 五層石塔

시 대 : 고려시대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고려 중기(추정)에 건조된 높이 5.55m의 오층석탑으로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면 원당국민학교에 소재하였으나 1986년 10월 27일 고려대학교 박물관으로 이동 전시하였다. 기단부의 상대갑석은 4매의 판석으로 되어 있으며 탑신부(塔身部) 옥개석(屋蓋石)의 낙수면(落水面)이 얇고 옥신(屋身)이 높아 웅장한 감을 준다. 2층 옥신과 기단부 면석 3매와 상륜부(相輪部)는 후대에 복원하였다.

* 참고문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비지정

오봉리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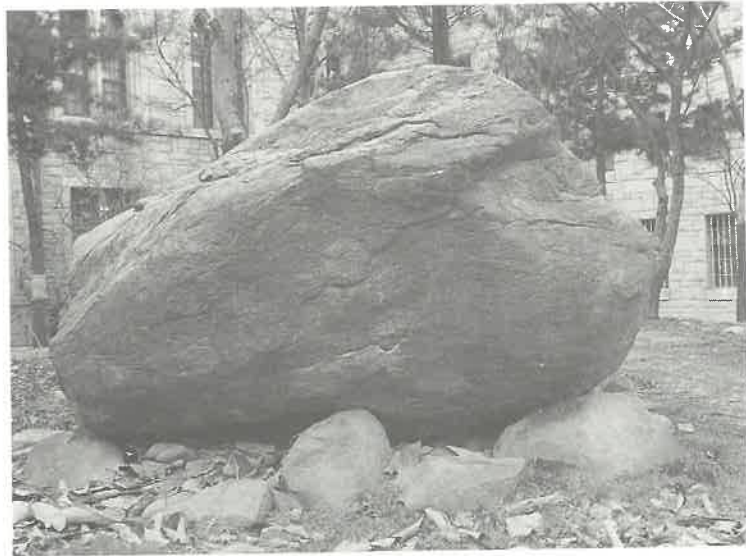
梧峰里 支石墓

시 대 : 청동기시대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이 지석묘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술조사팀이 주암(住岩)담 수물 지역 문화 유적 발굴 조사 계획의 일환으로 전남 송주군 송광면 오봉리 신월(新月) 799번지에 해당되는 보성강(寶城江) 유역의 퇴적지에 16기가 남북으로 4열을 이루면서 군집되어 있던 것을 1986년 12월 1일~1987년 1월 6일에 발굴 조사할 때 발견된 것이다.

출토 유물로는 홍도(紅陶), 마제석검(磨製石劍), 마제석촉(磨製石鏃), 삼각형 석도(三角形石濤), 대팻날, 무문토기편 등의 다양한 유물이 있으며 특이한 하부 구조는 학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발굴 조사된 지석묘들 중에서 4기와 그 하부 구조를 1988년 12월 5일에 이전하여 현재의 자리에 복원하였다.

* 참고문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비지정

완왕묘지

完王墓址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국유
소 재 지 : 동덕여자대학교 / 서울 성북구 월곡동 23-1

조선말 고종의 첫째 아들 완왕(完王)의 묘소로 어릴 때 죽었으므로 애기릉, 또는 완왕묘라 하였는데, 전에는 송림이 우거지고 풍치가 뛰어나다.

고종 5년(1868)에 귀인(貴人) 이씨에서 태어난 그는 완화군(完和君)으로 봉해졌다가 고종 17년(1880)에 12세로 세상을 떠나자 현재 천장산 아래 동덕여자대학교 자리에 묘소를 만들었다.

완왕은 민비의 질투로 독살되었다는 설이 전해온다. 완왕묘는 후에 서오릉(西五陵)으로 이장하였다.

한편 고종의 후궁이며 완왕의 생모인 귀인(貴人) 이씨와 역시 후궁인 내안당(內安堂) 귀인 이씨, 복령당(福寧堂) 귀인 양씨의 묘소 귀인묘(貴人墓) 터가 완왕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서삼릉 내의 귀인, 숙의 묘역에 이장되었다.

* 참고문헌 : 손성우 편저, 《한국지명사전》, 1973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 비지정

인명원지

仁明園址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고려대학교
소 재 지 : 고려대학교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인명원은 조선 후기 정조의 후궁인 원빈(元嬪) 홍씨의 묘소로 고양군 송인면 안암리(고려대학교 이공대학 자리)에 있었는데 애기능 터라고 불리웠다. 원빈 홍씨는 영조 42년(1766)에 태어나 정조 2년(1778) 정조의 후궁이 되었으나 이듬해 5월 병사하였다. 원빈 홍씨의 묘소는 1950년 서삼릉(西三陵)으로 이장되었다.

*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문화사적편, 1987.

□ 비지정

흥 천 사

興天寺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사유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돈암동 595

신흥사라고도 불리우는 흥천사는 정릉(貞陵),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을 비는 원찰(願刹)이다.

흥천사는 태조 6년(1397) 신덕왕후 강씨의 능침사찰로 오늘날 중구 정동에



창건되었던 170여 간의 대사찰로 조계종의 본산(本山)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1396년에 정릉을 조영하고 나서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흥천사를 건립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이듬해인 정월부터 정릉 동쪽에 절 터를 닦고 김사행(金師幸)이 건축 책임을 맡아 그해 8월에 170여간이 되는 대가람을 완공하였다. 태조는 흥천사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나 공사현장에 들러 일꾼들을 격려하고, 재물과 식량을 지급하는 등의 관심을 기울였다.

이어서 태조 7년에 태조는 절 북쪽에 사리전(舍利殿)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 전각은 안에 석가여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안치한 4~5층의 건물로 태조가 조성에 특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공사 기간 중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지만 드디어 정종 원년(1398) 10월에 완성되었다. 개성에 머물고 있던 태조는 사리전 완공 소식을 듣고 바로 한성에 달려왔다. 그리하여 사리전의 낙성을 기념하는 수륙재(水陸齋)를 열어 선왕(先王)과 조상들의 명복을 빌었다.

태종 9년(1409)에 정릉을 현재 자리인 북한산 기슭으로 옮겼지만 흥천사는 계속해서 도성 안의 주요 사원으로 지위를 누렸다. 태종은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제한하고, 전국의 242개 절만 남겼으며 사찰 재산을 몰수하였다. 그러나 흥천사를 잘 보호하라는 태조의 유언을 좇아 흥천사는 그대로 법등을 밝혀 나갔다.

그 후 세종도 이 절의 사리전을 중수하게 하고 관아 건물처럼 정기적으로 중수하도록 하였다. 세종 31년(1449)에 가뭄이 계속되자 이 절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며칠 후에 비가 내리자 세종은 승려 140명에게 상을 내렸으니 이 절의 규모가 얼마나 큰 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유학 장려로 왕실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홍천사는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연산군 10년(1504)에 화재로 전각이 거의 타버리고 사리전만이 화재를 피하였지만 복구는 되지 않았다. 폐허로 방치되었던 홍천사는 중종 5년(1510) 3월에 중학(中學)의 유생들이 이단(異端)을 쓸어버린다고 부르짖으며 밤을 이용하여 불을 질렀으므로 보물, 불경과 통도사에 전해오는 우리나라 유일의 석가여래의 사리를 안치한 사리전마저 불에 타버려 완전히 폐사(廢寺)되었다. 세조 7년(1461)에 제작한 홍천사 대종(大鐘)은 동대문을 거쳐 종루(鐘樓)에 걸려 시각을 알려 주었다가 일제 때 덕수궁에 옮겨져 현재까지 걸려있다.

홍천사가 역사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선조 9년(1576)에 정릉이 복원되면서 부터였다. 태종 9년에 정릉을 북한산 아래로 옮겼을 때 능 가까이에 신흥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

그러나 신흥암은 정릉과 너무 가깝다 하여 현종 10년(1669)에 석문(石門) 밖 합취정(合翠亭) 터로 이건하고 신흥사(新興寺)라고 개칭하였다. 그 후 정조 18년(1794)에 승려 성민(聖敏)·경신(敬信) 등의 뜻에 따라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았고, 고종 2년(1865)에는 홍선대원군의 지원으로 각 도에서 시주를 받아 절을 중창하였다. 이때 홍선대원군은 홍천사라는 이름으로 복원하도록 하고, '홍천사(興天寺)'라는 휘호를 내렸으므로 지금도 만세루에 그 현판이 걸려 있다.

이 절은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친왕이 다섯 살 때 쓴 글이 이 절에 남아있고, 조선왕조의 최후의 왕비 윤비가 6·25전쟁 때 피난갔다가 돌아와 이곳에서 매우 어렵게 살았다. 하루 양식 한 홑으로 두 끼 밖에 먹지 못했는데, 그 한 홑에서 매일 한 줍씩을 아꼈다가 향과 초를 사들고 홍천사에 올랐다.

홍천사 내에는 이 절의 중심건물인 아미타여래를 모신 극락보전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지장보살을 모신 명부전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7호로 지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한국문원, 《문화유산 왕릉》, 1995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④ 서울》, 1994.

□ 비지정

청 룡 암

靑 龍 庵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사유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가 45

삼선중학교와 동소문동사무소 사이 언덕 위에는 청룡암이 있다. 종로구 송인동 낙산 중턱에 있는 청룡사와 절 이름이 비슷하여 혼동이 되지만 이 절은 원래 성북동 북



쪽의 구준봉(狗蹲峰) 아래에 있었다. 정부의 산지(山地)개발계획에 따라 절터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1969년 5월에 현 위치에 절을 세운 것이다. 조선말에 많은 시인들이 이 절을 소재로 시를 짓기도 하였는데 옛 문헌에는 철종 때 영의정 김좌근(金左根)이 1853년에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옛부터 미륵석상(彌勒石像)이 노천에 세워져 있었으므로 미륵당(彌勒堂)이라고도 칭하였다.

* 참고문헌 : 성북구, 《성북구지》, 1993.

□ 비지정

내 원 사

內院寺

시 대 : 미상

소 유 자 : 내원사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산 1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북한산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내원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 절은 고려 현종 19년(1028)에 보조국사 지눌(知訥)이 창건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이는 지눌스님의 생존연대

(1158~1210)와도 맞지 않고 입증할 만한 기록 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절의 명칭은 1969년경에 대웅전을 새로 건립할 때 이전 건물에서 내원사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내의 약수터 바위에는 석불암(石佛庵)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4294년(1961) 9월에 조성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절의 본래 이름이 내원사인지 석불암인지 혼동을 가져온다.

현재 내원사에는 대웅전, 종루, 삼성각 등의 건물이 세워져 있고, 새로운 대웅전 건립을 위한 불사가 진행 중이다. 대웅전 내부에는 석가모니 불상과 입상인 관세음·대세지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다.

* 참고문헌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④ 서울》, 1994.

□ 비지정

적 조 암

寂照庵

시 대 : 현종 15년(1849)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돈암(2)동 593

적조암은 조선말 현종 때 홍천사의 암자로 서해암 성혜(慧庵性慧)스님이 창건하였다.

아담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이 절은 독립된 사찰로 세워진 것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크지 않으며 전형적인 암자의 틀을 잘



갖추고 있다. 이 암자에는 한국 현대 불교사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경산(京山)스님이 마지막 수행 장소였으므로 사리탑과 비석이 세워져 있다. 경산스님의 성은 손(孫)씨로 1917년에 태어나 20세가 되던 해에 금강산 유점사에 들어가 수암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경산스님은 광복후 비구·대처승 분쟁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비구종단의 핵심적 위치를 확보하였고, 조계종 총무원장, 동국대학교 재단이사장을 맡는 등 불교정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컸다.

적조암에는 관음전·동국선원·법당 등의 세 채의 건물이 세워져 있다.

* 참고문헌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④ 서울》, 1994.

□ 비지정

정 법 사

正法寺

시 대 : 미상
소 유 자 : 사유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2)동 330-76

정법사는 원래 종로구 가회동에 있던 건봉사(乾鳳寺) 포교당이었는데 1960년 이 곳의 조그만 암자인 복전암(福田庵)으로 이전하였다.

즉 정법사가 위치한 가회동은 수행처로 적합한 분위기가 아니었으므로 이 암자를 인수하여 정법사로 개칭한 것이다.

이곳에 있었던 복전암이 언제 어떻게 창건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현재 정법사에 봉안되어 있는 범종과 열반도(涅槃圖)가 1922년에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이 복전암의 유물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정법사 부근의 요정 대원각이 전일에 후궁 터였다는 점에서 복전암이 후궁들의 기도처였던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정법사에는 대웅전·팔상전·사천왕문·산신각·요사 3동 등 7채의 건물 외에 미륵불상이 세워져 있다. 대웅전은 정법사가 이전해 올 당시 서대문 신학대에 있던 황태자궁을 이전해 온 것이다. 내부에는 석가모니불·지장·관음 등의 불상과 1918년에 그려진 열반도·후불탱화·현왕탱화 등이 있다. 1969년에 건립된 팔상전 내부에는 석가모니불과 청동으로 만든 천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 참고문헌: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④ 서울》, 1994.



□ 비지정

석관동 도당

石串洞 都堂

시 대 : 조선시대
소 유 자 : 동유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석관동 340

원래 천장산(天藏山)에 있었으나 의릉(懿陵)이 들어오자 주민들이 이 곳으로 이주하면서 함께 받들고 와서 건립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의릉이 조성되기 전에는 천장산 아래에 산신으로서 이 동네의 수호신으로 모시다가 이전해 온 것이다. 이 도당의 주신(主神)은 도당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신주(神主) 대신 향아리에 벼를 가득 넣고 짚으로 뿔은 주저리로 덮어 놓았으므로 여신을 모시고 풍년을 기원한 것이 틀림없다. 또한 벼를 넣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마을의 주업은 농업으로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에 의하면 도당신(都堂神)은 양주분으로 현재 중화동 봉화산 신은 도당할아버지이며, 천장산 신은 도당할머니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석관동에서는 도당 할머니 신을 위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도당의 제사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오후에 지냈는데 도가(都家)·소임·주비 등 5명의 제관(祭官) 선정은 매우 까다로워서 제삿날의 일진(日辰)과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아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이 맞아도 집안에 해산을 했다던가 초상이 났다던가 부정(不淨)이 있으면 선출되지 못하였다. 제관 선정은 제삿날 10일 전에 했으며, 선출된 제관은 그날부터 출입을 삼가고 매일 목욕제계를 하며, 내외를 금하고 마음을 정결히 해야 하였다.

도당 주위에는 며칠 전부터 원새끼에 창호지를 끼우는 금줄을 두르고 출입을 금하였다. 제수(祭需)는 황소 고기, 수탉, 3색과실, 시루떡, 막걸리 등을 쓰는데 시장에서 쇠고기를 살 때에는 제관이 직접 흥정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

람이 흥정을 한다. 소, 닭 등 숫놈을 제물로 쓰는 것을 보아 도당의 주신은 여신(女神)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쇠고기는 모두 꼬지에 꿰는데 내장은 내장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꿰어 쪼으로 엮은 다음 제관들이 집집마다 돌린다. 각 가정에서는 그날 제수를 받기 위해 깨끗하게 마련한 쟁반을 마련해서 기다린다.

제사는 민가에서 지내는 것과 같이 유교식이다.

* 참고문헌 : 성복구, 《성복구지》, 1993.

□ 부 록

문 화 재 현 황

1997. 12

성 복 구

문화재 현황

구분	계	국가지정문화재	서울시지정문화재	비 고
계	69	52	17	

□ 국가 지정 문화재 현황

종 류	계	국보	보물	사적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비 고
계	52	16	22	7	5	2	

□ 서울시 지정 문화재 현황

종류	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비고
계	17	11	1	1	4	

국가 지정 문화재 유형별 현황 (52개)

○ 국 보 : 16

구 분	계	도자기	서 적	불 상	회 화	시 계	가 구	비 고
유형 별	동 산	16	7	3	2	2	1	1
	부동산							
수 량	19	8개	5책	2좌	2점	1기	1점	

○ 보 물 : 22

구 분	계	도자기	서적	불상	서예	석탑	부도	목판	지도	탱화
유형별	동 산	20	5	8	2	1		1	2	1
	부동산	2				1	1			
수 량	29	5개	14책	2구	1점	1기	1기	1점	3폭	1폭

○ 사 적 : 7

구 분	계	성곽	선잠단지	능	건물	성락원
유형별	동 산					
	부동산	7	1	1	2	1
수 량	29	2.3km	528평	678,690m ² (205,639평)	2동 (2,215평)	14,407m ² (4,365평)

○ 중요 무형문화재 : 5

구 분	계	판소리	조각장	대금산조	소목장	태평무
인 원	5	1	1	1	1	1

○ 중요 민속자료 : 2

구 분	계	의 복	비 고
유형별	동 산	2	2
	부동산		
수 량		24점	

서울시 지정 문화재 유형별 현황(17개)

○ 유형문화재 : 11

구 분	계	석탑	불상	부도	건물	사찰	회화	비고
유형별	동 산	3					3	
	부동산	8	1	3	1	2		
수 량	11	1기	3기	1기	72평	2동	3점	

○ 무형문화재 : 1

구 분	계	매듭장	비 고
인 원	1	1	

○ 기념물 : 1

구 분	계	건물	비고
유형별	동 산		만해 한용운 심 우 장
	부동산	1	
수 량		토지374m ² , 건물 17.8평	

○ 민속자료 : 4

구 분	계	건물	비고
유형별	동 산		한규설대감가 이재준가,이태현가, 김진홍가
	부동산	4	
수 량			

국가 지정 문화재 현황

지정 종별	지정번호 (지정일자)	명 칭	소 재 지	면적 수량	소유자
국 보	제65호 (62. 12. 20)	청자기린유개항로	성북동 97-1 (간송미술관)	1개	전성우
	제66호 (62. 12. 20)	청자상감류죽연로 원앙문정병	"	1개	"
	제68호 (62. 12. 20)	청자상감운학문매병	"	1개	"
	제70호 (62. 12. 20)	훈민정음	"	1책	"
	제71호 (62. 12. 20)	동국정운(권1, 6)	"	2책	"
	제72호 (62. 12. 20)	금동계미명삼존불	"	1좌	"
	제73호 (62. 12. 20)	금동삼존불감	"	1좌	"
	제74호 (62. 12. 20)	청자압형수적	"	1개	"
	제135호 (70. 12. 20)	혜원풍속도(30면)	"	1점	"
	제149호 (73. 7. 10)	동래선생 교정복사상철 (권4, 5)	"	2책	"
	제177호 (74. 7. 9)	분청사기인화문태호 (내외호)	안암동 5가 1 (고대 박물관)	2개	고려대학교
	제230호 (85. 8. 3)	혼천시계	"	1기	"
	제249호 (89. 8. 1)	동궐도(16폭)	"	1점	"
	제270호 (92. 4. 20)	청자모자원형연적	성북동 97- 1 (간송미술관)	1점	전성우
	제291호 (97. 1. 1)	용감수경	안암동 5가 1 (고대중앙도서관)	1점	고려대학교
	제294호 (97. 1. 1)	청화백자철사진사 국화문병	성북동 97- 1 (간송미술관)	1개	전성우
보 물	제238호 (63. 1. 21)	백자박산향로	성북동 97-1 (간송미술관)	1개	전성우
	제283호 (63. 1. 21)	금 보	"	1책	"
	제284호 (63. 1. 21)	금동여래입상	"	1구	"

지정 종별	지정번호 (지정일자)	명 칭	소 재 지	면적 수량	소유자
보 물	제284호 (63. 1. 21)	금동여래입상	"	1구	"
	제285호 (63. 1. 20)	금동보살입상	"	1구	"
	제286호 (63. 1. 21)	청자상감포도동자 문매병	"	1개	"
	제287호 (63. 1. 21)	분청박지화문병	"	1개	"
	제348호 (63. 1. 21)	분청사기 모란문반합	"	1개	"
	제349호 (63. 1. 21)	청자상감모자합	"	1개	"
	제417호 (65. 4. 1)	홍무정운역훈	안암동 5가 1 (고대 도서관)	1책	고려대학교
	제569호 (72. 8. 16)	안중근의사 유묵 (백인당중유대화,극락)	정릉동1-186	1점	강신중
	제579호 (74. 10. 2)	괴산 외사리 석조부도	성북동 97-1 (간송미술관)	1기	전성우
	제580호 (74. 10. 2)	전 문경오충석탑	"	1기	"
	제706호 (81. 3. 18)	중용주자혹문	안암동 5가 1 (고대 도서관)	1책	고려대학교
	제710호 (81. 3. 18)	동인지문 사륙권 (권1~6, 10~15)	"	1책	"
	제711호 (81. 3. 18)	동인지문 사륙권 (권1~6)	"	2책	"
	제714호 (81. 3. 18)	동인지문 사륙 (권7~9)	"	1책	"
	제748호 (83. 5. 7)	경국사 목각탱	정릉3동 758	1폭	경국사
	제850호 (85. 8. 3)	대동여지도	동선 3가 249-1 (성신여대박물관)	2폭	성신여자대학교
	제853호 (86. 3. 14)	수선전도 목판	안암동 5가 1 (고대 박물관)	1점	고려대학교
	제930호 (87. 12. 26)	웨장 및 사괘장 연회도 첩	장위2동 75-171	6점	이완주
	제1199호 (94. 5. 2)	해산 유숙필 매화도	장위1동 230-6	1폭 (8첩병)	노재황

지정 종별	지정번호 (지정일자)	명 칭	소 재 지	면적 수량	소유자
보 물	제1225호 (95. 7. 19)	묘법연화경(권 제7)	안암동 5가 156 (승가대학도서관)	1책	승가대학
사 적	제10호 (63. 1. 21)	서울성곽	삼선동, 성북동	2.5km 총17	서울특별시
	제83호 (63. 1. 21)	선잠단지	성북2동 64-1	1,745㎡ (528평)	"
	제204호 (70. 5. 26)	의 룡	석관2동 산 1-5	379,035㎡ (114,859평)	문화재 관리국
	제208호 (70. 5. 26)	정 룡	정릉2동 산 87-16	229,574㎡ (90,780평)	문화재 관리국
	제285호 (81. 9. 25)	고려대학교 본관	안암동 5가 1	1동3,223 (5층976평)	고려대학교
	제286호 (81. 9. 25)	고려대학교 구 도서관	안암동 5가1	5층 1,239평	"
	제378호 (92. 12. 23)	성락원	성북2동 2-22외 17필지	14,407㎡ (4,358.1평)	심 완
중요 무형 문화재	제5호 (76. 6. 30)	판소리(적벽가)	정릉2동 520	남	한갑주
	제5호 (89. 12. 1)	조각장(조각)	종암1동 52-26	남	김철주
	제45호 (96. 12. 10)	대금산조	삼선 1가 11-71	남	이생강
	제55호 (88. 4. 1)	소목장(소목)	정릉3동 369-19	남	강대규
	제92호 (88. 12. 1)	태평무	성북동 110-112 한주빌라 302	여	강선영
중요 민속 자료	제6호 (62. 12. 20)	사영 김병기일가 옷	안암동 5가 1 (고대박물관)	9착	고려대학교
	제113호 (80. 4. 1)	홍진종 의복	"	15점	"

서울시 지정 문화재 현황

지정 종별	지정번호 (지정일자)	명 칭	소 재 지	면적 수량	소유자
유형 문화재	제28호 (74. 5. 12)	삼층석탑	성북동 97-1 (간송미술관)	1기 (h=220cm)	전성우
	제29호 (74. 5. 12)	석조 팔각부조	"	1기 (h=160cm)	"
	제30호 (74. 1. 21)	석조 미륵불입상	"	1기 (h=210cm)	"
	제31호 (74. 5. 12)	석조 비로좌나불좌상	"	1기 (h=150cm)	"
	제37호 (78. 12. 18)	삼군부 총무당	삼선 1가 512-160	1동 72평 238.35㎡	성북구
	제66호 (85. 12. 5)	홍천사 극락보전	돈암동 595	1동 약 14평	홍천사
	제67호 (85. 12. 5)	홍천사 명부전	"	1동 약 14평	"
	제89호 (93. 4. 3)	보타사 마애불	안암 5가 7	불상1좌 h=5m	승가학원
	제98호 (96. 9. 30)	보문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보문 3가 168	1점	보문사
	제99호 (96. 9. 30)	보문사 대웅전 신중도	"	1점	"
	제100호 (96. 9. 30)	보문사 지장보살도	"	1점	"
무형 문화재	제13호 (96. 12. 30)	매듭장	성북2동 81-2	여	김은영
기념물	제7호 (84. 7. 5)	만해 한용운 심우장	성북2동 222-1, 2	토지374㎡ 건물17.8평	한영숙
민 속 자 료	제7호 (77. 3. 17)	장교동 한규설 대감가	정릉3동 855-2	토지1378평 한옥111평	국민대학교
	제10호 (77. 3. 17)	이재준가	성북2동 245-4	1곽 (토지183평)	덕수교회
	제11호 (77. 3. 17)	이태현가	성북2동 248	1곽 (토지120평)	조래혁
	제25호 (77. 9. 5)	김진홍가	장위2동 76-59	1곽 (토지759평)	김진홍

성북구 문화재 안내도



① 경국사	⑭ 동활인서터·돈암장
② 한규설대감가	⑮ 혜화문
③ 봉국사	⑯ 삼군부 총무당
④ 정릉	⑰ 미타사/보문사
⑤ 정법사	⑱ 동망산신각
⑥ 홍천사 / 적조암	⑲ 성신여자대학교
⑦ 성락원	⑳ 개운사
⑧ 간송미술관	㉑ 보타사 마애불
⑨ 숙정문	㉒ 고려대(고대박물관)
⑩ 심우장	㉓ 완왕묘지
⑪ 이태현가	㉔ 김진홍가
⑫ 선잠단지	㉕ 석관동 도당
⑬ 이재준가	㉖ 의릉

